

# 2011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구축: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  
책임연구원: 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연구보조원: 김경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박사)  
이진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2011년 5월

# 목 차

## 제1장 연구내용 및 방법

- I. 연구 목적
- II. 연구 내용
- III. 자료조사 방법
  1. 설문 조사
  2. OECD 자료
  3. 한·일 청소년 자료
- IV.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제2장 연구결과 요약

- I. 행복지수 분석: 한국과 OECD 비교
- II. 한·일 청소년 비교
- III. 2009~2011 한국 행복지수 변화

## 제3장 한국과 OECD 행복지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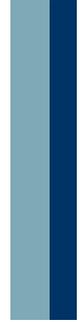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물질적 행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대적 빈곤</li> <li>2. 미취업 가정</li> <li>3. 빈곤</li> </ol> </li> <li>II. 보건과 안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아건강</li> <li>2. 예방접종</li> <li>3. 사고사</li> </ol> </li> <li>III. 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업 성취</li> <li>2. 교육열망</li> <li>3. 학업열망</li> </ol> </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IV. 가족과 친구관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족구조</li> <li>2. 부모관계</li> <li>3. 친구관계</li> </ol> </li> <li>V. 행동과 생활양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강행동</li> <li>2. 위험행동</li> </ol> </li> <li>VI. 주관적 행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강</li> <li>2. 학교생활</li> <li>3. 개인행복</li> </ol> </li> <li>VII. 행복지수 분석</li> </ol> |
|---|---|

## 제4장 한국과 일본 청소년 비교

- I. 친구관계
- II. 고민 및 스트레스
- III. 주관적 만족 및 행복도
- IV. 귀가시간

- 부록 1.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영역별 통계표
- 부록 II. 지수도출 매뉴얼
- 부록 III. 설문지

# 제 1 장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측정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고, 나아가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유니세프 행복지수를 모델로 삼아,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안전, 주관적 행복 등 6개 영역에 대한 한국과 다른 OECD 국가의 행복지수를 측정한다. 또한 행복지수 조사가 2009년부터 매년 실시됨에 따라 OECD 국가간 횡단 비교에서 나아가, 시간 흐름에 따른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변화 추세도 파악할 수 있다.

2011년도 보고서에는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에 대한 비교 연구도 새로이 추가했다.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 삶에 대한 만족도, 고민 및 스트레스 등을 비교함으로써 한·일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들의 ‘행복’ 위치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 11. 주요 연구내용

영역	세부 내용
한국과 OECD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비교	1. 물질적 행복 2. 보건과 안전 3. 교육 4. 가족과 친구관계 5. 행동과 생활양식 6. 주관적 행복
한국·일본 청소년 비교	1. 친구관계 2. 고민 및 스트레스 3. 주관적 만족 및 행복도 4. 귀가시간

### III. 자료조사 방법

#### 1. 설문조사

올해 설문조사는 4월 4일~4월 21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은 통계청 교육 통계자료를 기초로 삼아, 학생 수에 따라 교급별, 권역별, 지역 규모별, 성별을 고려해 비례할당 방식으로 추출했다. 우편 조사를 실시했으며, 유효표본 수는 초등학교 1,560명, 중·고등학교 4,850명이다.

조사대상	전국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
응답대상	초등학교 1560명 중고등학교 4850명
조사지역	전국 5대 권역(제주도제외)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표본수	6410명
표본추출	통계청 교육통계자료를 기초로 학생 수에 따라 교급별, 권역별, 지역규모별, 성별을 고려하여 비례할당추출 방식으로 표본 추출
조사방법	설문조사
조사기간	2011년 4월 4일~2011년 4월 21일
조사기관	현대리서치
조사분석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

## 응답자 특성

초등학생		사례수(명)	비율 (%)
		1560	100
성별	남성	791	50.71
	여성	769	49.29
지역	수도권	659	42.24
	강원도	69	4.42
	충청권	197	12.63
	영남권	445	28.53
	호남권	190	12.18
지역크기	대도시	685	43.91
	중소도시	599	38.4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276	17.69
학년	4 학년	543	34.81
	5 학년	485	31.09
	6 학년	532	34.1

중고등학생		사례수(명)	비율 (%)
		4,850	100
성별	남성	2,345	48.35
	여성	2,505	51.65
지역	강원권	380	7.84
	수도권	1,693	34.91
	영남권	1,288	26.56
	충청권	769	15.86
	호남권	720	14.85
지역크기	대도시	2,123	43.77
	중소도시	1,819	37.51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908	18.72
학년	고등학생	2,745	56.60
	1 학년	905	18.66
	2 학년	962	19.83
	3 학년	878	17.37
	중학생	2,105	43.40
	1 학년	736	15.17
	2 학년	687	14.16
	3 학년	682	14.06

## 2. OECD 국가 비교연구 자료

행복지수의 영역별 지표 자료는 OECD 국가의 관련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수집됐다. 대표적으로 OECD 데이터베이스, PISA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자료, HBSC 서베이(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Survey), 세계은행의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 등이 이용됐다. 올해 연구에서는 3 개 지표 - 물질적 행복 영역의 문화적 결핍, 가족과 친구관계 영역의 부모관계, 주관적 행복 영역의 부정적 생각 - 만 제외하고 최신 자료로 변경해 측정했다.

### 행복지수 영역 구성 및 지표 측정 자료

영역	구성 요소	지표	측정	조사대상	2011	
					외국 자료	한국 자료
물질적 행복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의 50% 이하	중위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속한 학생의 비율	0-17세	OECD 2008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가족의 성인이 직업이 없는 학생 비율	19세 이하	OECD 2008	본 연구 설문지 (20111 KCWI)
	결핍	교육여건	교육자재 <sup>1</sup> 를 4개 미만 보유하고 있는 비율	15세	OECD/PISA 2009	
		문화적 결핍	집에 책이 10권 미만 있는 아동의 비율	19세 이하	OECD/PISA 2006	
보건과 안전	영아 건강	영아 사망률	사망한 영아의 비율 (출산 1,000명 당)	0-12개월	OECD Health data 2010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2010 World Bank 2010	
		저체중아 비율	저체중아의 비율	2500g이하		
	예방접종	질병 예방접종 여부	홍역예방접종 (12-23개월)	12-23개월	WDI 2009	
			소아마비 예방접종 (12-23개월)			
DPT3 예방접종 (12-23개월)						
사고사	아동 사고사	최근 3년 평균 자살과 사고사를 당한 학생의 비율 (십만명당)	19세 이하	WHO mortality database 2008		
교육	학업 성취	15세 학업성적	읽기시험점수 수학시험점수 과학시험점수	15세	OECD/PISA 2009	
	교육 참여	15~19세 아동의 학	학교를 다니는 아동의 비율	15-19세	OECD 2010 교육지표	

<sup>1</sup> PISA(2009)에서는 ‘공부할 수 있는 책상’,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곳’, ‘학습을 위한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인터넷 연결’, ‘자기만의 계산기’, ‘사전’, ‘학교교과서’ 등 총 8개의 항목으로 조사된 결과를 보여준다.

		<b>업유지</b>				
	<b>청소년 실업</b>	<b>실업상태인 청소년</b>	학교, 다른 훈련기관, 직업이 없는 15-19세	15-19세	OECD 2010 교 육지표	교육개발원 2010
	<b>고용으 로의 전환</b>	<b>미숙련 일자리</b>	기대하는 일자리가 미숙련 일자리인가?	15세	PISA 2006	
<b>가족 과 친구 관계</b>	<b>가족 구조</b>	<b>홀부모가정 의 비율</b>	홀부모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의붓 아버지/어머니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11, 13, 15세	HBSC 2006	본 연구 설문지 (2011 KCWI)
	<b>부모 관계</b>	<b>함께 식사 하기 함께 대화 하기</b>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부모 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부모 님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학생의 비율	15세	PISA 2000	
	<b>친구 관계</b>	<b>친절한 급우관계</b>	급우가 친절하며 도움을 주 는가?	11, 13, 15세	HBSC 2006	본 연구 설문지 (2011 KCWI)
<b>행동 과 생활 양식</b>	<b>증진 행위</b>	<b>아침식사</b>	학교 가기 전에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	11, 13, 15세	HBSC 2006	본 연구 설문지 (2011 KCWI)
		<b>과일섭취</b>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학생 의 비율	11, 13, 15세		
		<b>과체중</b>	체질량지수 (BMI ) 25이상 비율	13, 15세		
		<b>운동</b>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운동을 한 일 수	11, 13, 15세		
	<b>위협 행위</b>	<b>흡연/ 음주/ 마약 사용</b>	흡연/음주여부 비율	11, 13, 15세	HBSC 2006	본 연구 설문지 (2011 KCWI)
마약사용 비율			15세			
		<b>임신과 출산</b>	십대출산율	15-19세 (여)	WDI 2008	
<b>주관적 행복</b>	<b>주관적 건강</b>	<b>주관적 건강</b>	자신의 건강의 상태가 ‘전 혀 좋지 않다’, ‘별로 좋 지 않다’, ‘보통이다’ 라 고 응답한 비율	11, 13, 15세	HBSC 2006	본 연구 설문지 (2011 KCWI)
	<b>학교 생활</b>	<b>학교생활 만족</b>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 다’고 답한 비율	11, 13, 15세		
		<b>삶의 만족 척도</b>	자신의 삶에 ‘다소’, ‘매 우’ 만족하는 비율	11, 13, 15세		
	<b>개인 행복</b>	<b>부정적 생각</b>	소속감을 ‘전혀’, ‘별 로’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 하는 비율/주변상황에 ‘전 혀’, ‘별로’ 적응하지 못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 ‘다 소’ 및 ‘매우’ 외롭다고 느끼는 학생의 비율	15세	PISA 2003	

## 2009~2011 년 측정지표 변화

영역	구성요소	지표	2009		2010		2011		
			외국 자료	한국 자료	외국 자료	한국 자료	외국 자료	한국 자료	
물질적행복	상대적 빈곤	중위수 입의 50% 이하	OECD 2000 (1999, 2001 부분적 사용)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08	OECD 2006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08	OECD 2008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OECD 2005	본 연구 설문지 (KCWI)	OECD 2005	본 연구 설문지 (KCWI)	OECD 2008	본 연구 설문지 (2011 KCWI)	
	결핍	교육 여건	PISA 2003		PISA 2003		PISA 2003	OECD/PISA 2009	
		문화적 결핍			OECD/PISA 2003				
보건과안전	영아 건강	영아 사망율	OECD Health data 2002, 2003	사망원인 통계 2007	UN 2010 OECD Health data 2009	교육개발원	OECD Health data 2010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2010 World Bank 2010		
		저체중아 비율		OECD Health data 2002, 2003					
	예방접종	질병 예방접종 여부	WDI 2003		UNICEF 2008 World Bank 2008		WDI 2009		
			HNP 2002						
사고사	아동 사고사	WHO mortality database 2005	사망원인 통계 2007	WHO mortality database 2005	사망원인 통계 2007	WHO mortality database 2008			
교육	학업 성취	15세 학업 성취	PISA 2003		PISA 2006 (OECD 2009)	PISA 2006	OECD/PISA 2009		
	교육 참여	15~19 아동의 학업 유지	OECD 2009 (Education at a glance 2005)	국제 통계연감 2007 (교육 정도 별 취학을)	OECD 2009 교육지표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0 교육지표		
	청소년 실업	실업 상태 청소년	조사하지 않음	조사하지 않음	OECD 2009 교육지표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0 교육지표	교육개발원 2010	
	고용으로의 전환	미숙련 일자리	PISA 2000 (Education at a glance 2005)	본 연구 설문지 (KCWI)	PISA 2000 (Education at a glance 2005)	본 연구 설문지 (KCWI)	PISA 2006		
가족과친구	가족 구조	홀부모 가정 의붓 가정	HBSC 2001	본 연구 설문지 (KCWI)	HBSC 2001	본 연구 설문지 (KCWI)	HBSC 2006	본 연구 설문지 (2011 KCWI)	
	부모	함께	PISA 2000		PISA 2000		PISA 2000		

관계	관계	식사하기 함께 대화하기						
	연구 관계	친절한 금융 관계	HBSC 2001		HBSC 2001		HBSC 2006	본 연구 설문지 (2011 KCWI)
행동 과 생활 양식	증진 행위	아침 식사	HBSC 2001	본 연구 설문지 (KCWI)	HBSC 2001	본 연구 설문지 (KCWI)	HBSC 2006	본 연구 설문지 (2011 KCWI)
		과일 섭취		국민건강영 양조사2005		국민건강 영양조사 2005		
		과체중		본 연구 설문지 (KCWI)		본 연구 설문지 (KCWI)		
		운동		국민건강영 양조사 2005		국민건강 영양조사 2005		
	위협 행위	흡연/ 음주/ 마약 섹스	HBSC 2001	본 연구 설문지 (KCWI)	HBSC 2001	본 연구 설문지 (KCWI)	HBSC 2006	본 연구 설문지 (2011 KCWI)
		임신과 출산	WDI 2003	인구동태 조사보고서 2007 (통계청)	WDI 2008	인구동태 조사보고서 2007 (통계청)	WDI 2008	
주관적 행위	주관적 건강	HBSC 2001	본 연구 설문지 (KCWI)	HBSC 2001	본 연구 설문지 (KCWI)	HBSC 2006	본 연구 설문지 (2011 KCWI)	
	학교 생활							학교생 활만족
	개인 행위							삶의 만족 척도
		부정적 생각		PISA 2003		PISA 2003		PISA 2003

### 3. 한국과 일본 청소년 자료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에 대한 비교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국제비교 조사 자료(책임연구원: 김현철)를 활용했으며,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정책연구원 자료에서 활용한 질문 문항을 2011 년도 행복지수 설문조사에 포함시켰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자료를 활용한 항목은 친구관계, 고민거리, 주관적 행복감 및 만족도, 귀가시간 등이다.

다음은 한·일 청소년 비교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자료 목록이다. 일본 조사가 동경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우 2006 년과 2007 년(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년(행복지수 설문) 한국 자료의 분석대상을 서울지역 고등학생으로 한정했다.

#### 2006 년 고교생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국가	조사지역	조사대상	조사방법	분석 설문문항
일본	전국	고등학생 (만 15-18 세)	집단 질문지법	고민거리 행복도 행복을 느끼는 장소
한국	전국	고등학교 2 학년	집단 질문지법	

#### 2006 년 청소년 사회화 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국가	조사지역	조사대상	조사방법	분석 설문문항
일본	동경	고등학생 (만 15-18 세)	방문 유치법	귀가시간
한국	전국	중 2-고 2	집단 면접조사	

#### 2007 년 청소년 사회화 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국가	조사지역	조사대상	조사방법	분석 설문문항
일본	동경	고등학생 (만 15-18 세)	방문 유치법	친구관계 만족도
한국	전국	14-17 세	집단 면접조사	

## IV.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올해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Key-in Programming 과정을 거쳐 전산화
- 올해 설문조사 데이터의 경우 지역별(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지역 규모별(대도시, 중소도시,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교급별(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전문 고등학교)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함
- OECD 자료의 경우 모든 점수를 평균이 100 이고 표준편차가 10 인 분포가 되도록 표준화해 사용했다. 개별지표를 평준화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을 구해 지표를 계산하고, 각 지표의 점수를 더해 다시 산술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구성요소를 점수화 했다. 그리고 각 구성요소의 점수를 더해 산술평균을 얻는 방식으로 각 영역의 점수를 구했다. 원자료 가운데 부정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진 것은 표준점수(Z-score)로 전환할 때, 부호를 바꿔주었다. 그리고 측정질문, 지표, 구성요소, 그리고 영역에 이르는 점수를 얻는 과정에서 가중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 전산화된 자료 (Raw Data)는 통계패키지 STATA SE 를 활용해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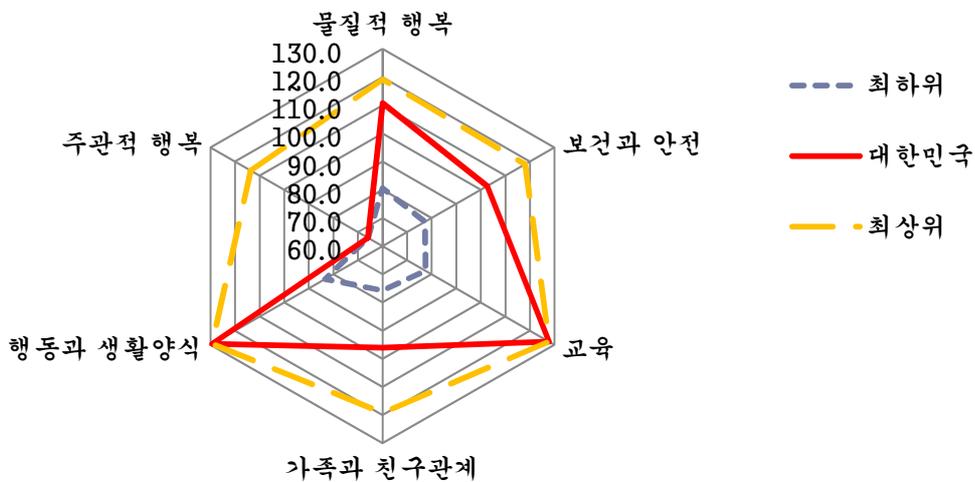
# 제 2 장 연구결과 요약



# 1. 행복지수 분석 : 한국과 OECD 비교

- 유니세프 행복지수를 모델로 한 2011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교육 성취도를 측정하는 ‘교육’에서 127.8(OECD 국가 평균=100)로 최상위 점수를 기록하는 등 5개 영역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유일하게 주관적 행복지수에서만 현저한 골짜기를 기록했다. 유니세프 행복지수는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등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한국과 OECD 국가 비교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최하위국	80.5	77.3	77.5	75.8	83.4	65.98
대한민국	110.7	102.6	127.8	96.1	129.3	65.98
최상위국	119.2	118.0	127.8	119.2	129.3	113.63

## 2011년 영역별 OECD 국가의 행복지수

(평균 = 100)

국가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한국	110.7	102.6	127.8	96.1	129.3	65.98
포르투갈	93.0	88.6	99.4	116.6	110.8	97.84
그리스	95.6	105.3	94.3	94.2	97.2	112.47
오스트리아	113.5	85.6	77.5	95.0	93.8	108.20
체코	111.9	105.2	99.0	87.6	90.3	96.00
스페인	106.9	101.9	93.0	104.8	94.0	113.63
스위스		103.0	95.1	108.6	103.0	106.95
프랑스	104.5	104.2	101.1	97.2	93.8	96.85
이탈리아	100.7	102.8	91.1	119.2	99.1	106.10
독일	95.4	104.3	99.0	98.9	97.5	100.68
벨기에	98.3	96.6	109.4	104.6	97.9	92.56
캐나다		85.5	106.4	84.9	94.4	97.09
헝가리	92.1	94.4	93.9	99.5	83.4	86.70
핀란드	119.2	114.4	106.5	95.1	87.7	104.73
영국	93.2	95.1	83.4	94.0	98.3	96.78
아이슬란드		118.0	100.3	100.8		95.40
일본	99.8	106.1				
호주		98.5	102.3			
아일랜드		101.4	106.2	103.9		105.95
덴마크		94.4	93.5	103.1	112.1	100.04
노르웨이		106.6	99.1	107.6		101.41
미국	80.5	77.3	102.3	75.8		102.58
뉴질랜드	94.8	85.5	96.1			
폴란드	85.9	97.2	112.1	95.6		94.91
네덜란드	104.0	107.4	113.8	114.9	112.8	110.33
스웨덴		118.2	97.4	102.1	118.2	10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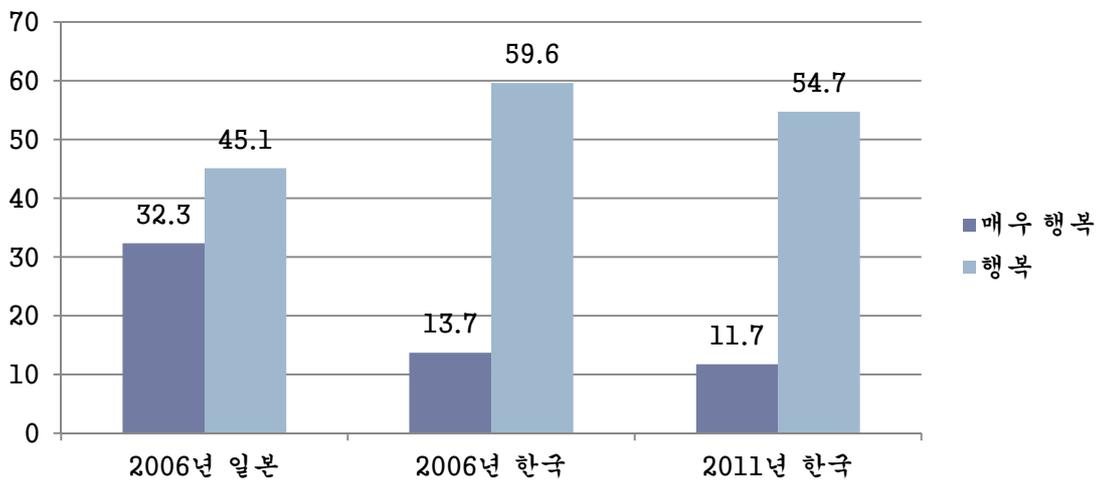
\* 행복수치가 비어있는 곳은 관련 데이터가 없는 경우임

## 11. 한·일 청소년 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 연구결과, 한국 청소년(고등학생)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이 일본 청소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양한 면에서 볼 때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매우 행복하다' 고 응답한 비율은 2006 국제조사에서 한국은 13.7%로 일본의 32.3%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2011년 조사에서도 한국은 11.7% 수준에 그쳤다.

### 한국·일본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단위: %)



한국과 일본 청소년은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학교생활, 친구관계, 교사관계, 가정생활, 생활전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만족한다' 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본 결과, 특히 친구관계와 생활 전체에 대한 만족도에서 한국과 일본 청소년이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 한·일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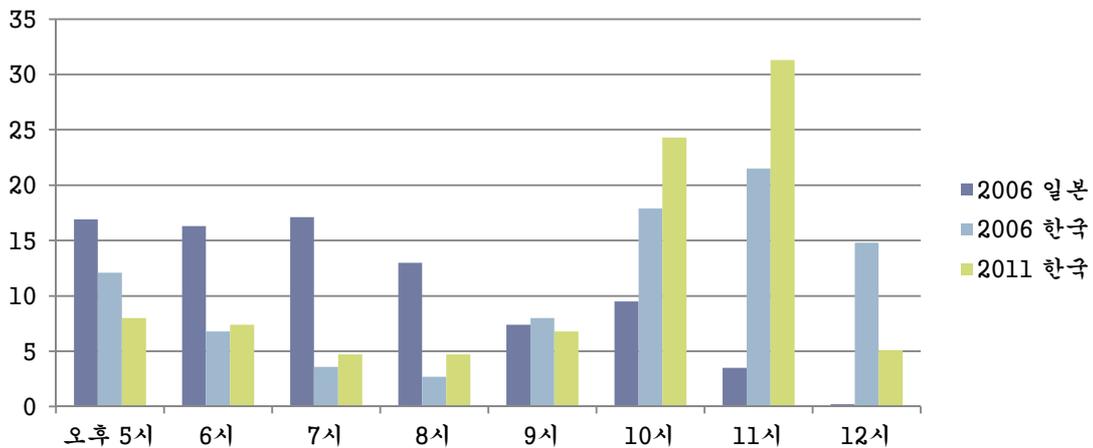
	학교생활	친구관계	교사관계	가정생활	생활 전체
2007년 일본	24.6	46.9	13.5	34.8	28.5
2007년 한국	17.5	37.5	8.5	33.5	23.1
2011년 한국	23.6	34.4	13.7	30.7	17.4

또한, 한국 청소년은 ‘가정’ 보다는 ‘친구와 함께 있는 장소’에서 더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조사에서 일본 청소년은 행복을 느끼는 공간으로 집, 친구와 함께 있는 장소, 학교 순으로 꼽은 한편, 한국 청소년은 친구와 함께 있는 장소, 집, 학교 순으로 꼽았다. 행복을 느끼는 공간에 대한 한국 청소년의 순위는 2011년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과 일본 청소년은 귀가시간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다. 2006년 조사에서 한국 청소년의 귀가 시간은 오후 10시, 11시, 12시 이후에 집중된 한편, 일본 청소년은 오후 5시, 6시, 7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귀가시간 차이는 2011년 조사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 한국과 일본 청소년의 귀가시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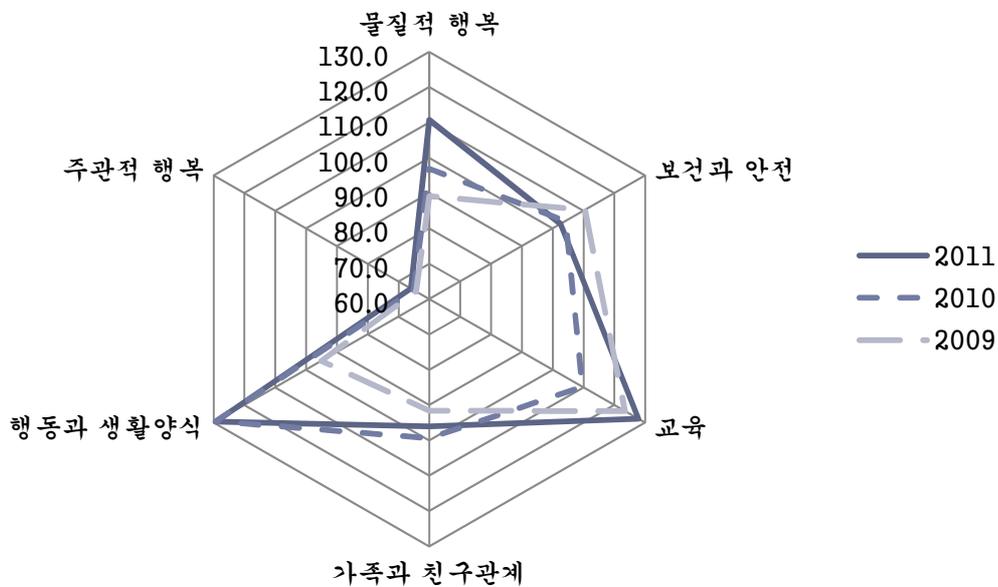
(단위: %)



### III. 2009-2011 한국 행복지수 변화

-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2009 ~ 2011 년 영역별로 상이한 변화 추세를 나타냈다. 물질적 행복 영역은 2009 년과 2010 년 OECD 국가 평균(100)을 밑돌았으나, 2011 년에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110.7 를 기록했다. 한편, 주관적 행복 지수는 2009 년 64.3 점, 2010 년 65.1 으로 3 년 연속 OECD 국가 증 끝찌를 기록했으며, 가족과 친구관계 영역 점수도 3 년 연속 평균을 밑돌았다.

#### 2009~2011년 행복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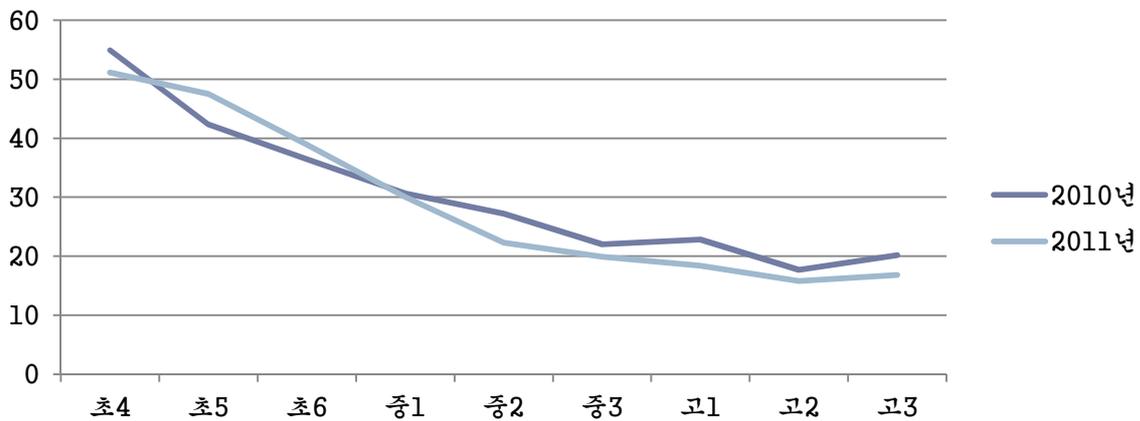


연도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2009	89.1	110.5	123.4	91.6	95.1	64.3
2010	96.9	104.2	109.6	99.4	129.2	65.1
2011	110.7	102.6	127.8	96.1	129.3	65.98

2011 년 조사에서 ‘주변 친구들에 비해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행복하다’ 고 응답한 비율은 2010 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볼 때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는 학생 범주와 학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주변 친구들에 비해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매우 행복하다’ 고 응답한 비율은 2010 년 조사에서 초등학생이 44.7%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27%로 크게 감소했으며, 고등학생은 17.1%로 가장 낮았다. 2011 년 조사에서도 초등학생이 45.6%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24.2%, 고등학생은 17.1% 수준이었다.

### 2010~2011 초·중·고 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 제 3 장

## 한국과 OECD 행복지수 구축<sup>2</sup>

---

<sup>2</sup> 그래프에서 수치가 '0' 인 경우는 해당 수치가 조사 되지 않은 국가임.  
기술 통계치에서는 '0' 을 결측값으로 처리 한 후 계산한 값임.

# 1. 물질적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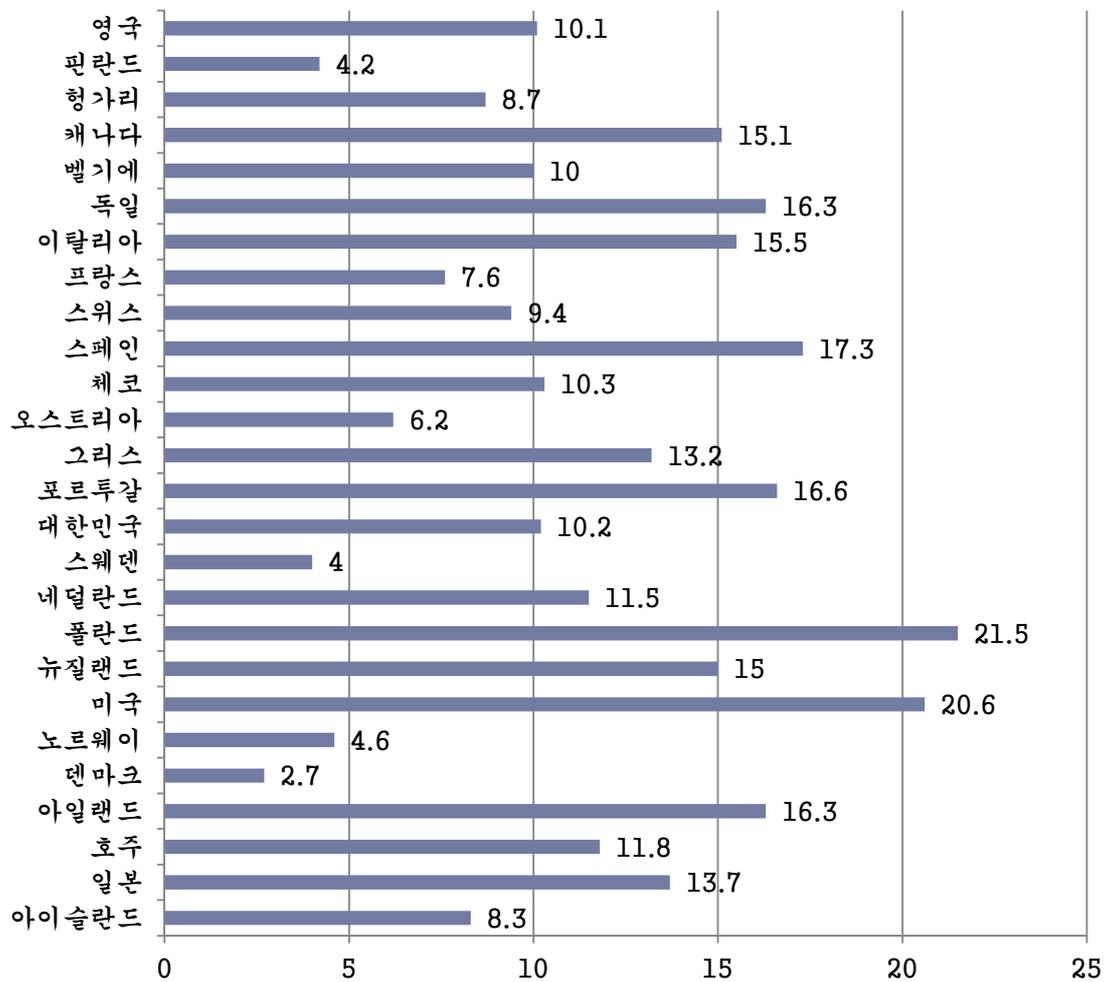
## 1.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의 50% 이하  
: 개별국가에서 중위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속한 아동의 비율

- 한국의 상대적 빈곤 비율은 10.2%로 OECD 국가 평균(11.5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상대적 빈곤] 단위: %

### 중위 수입



[상대적 빈곤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상대적 빈곤	11.57	5.080074	2.7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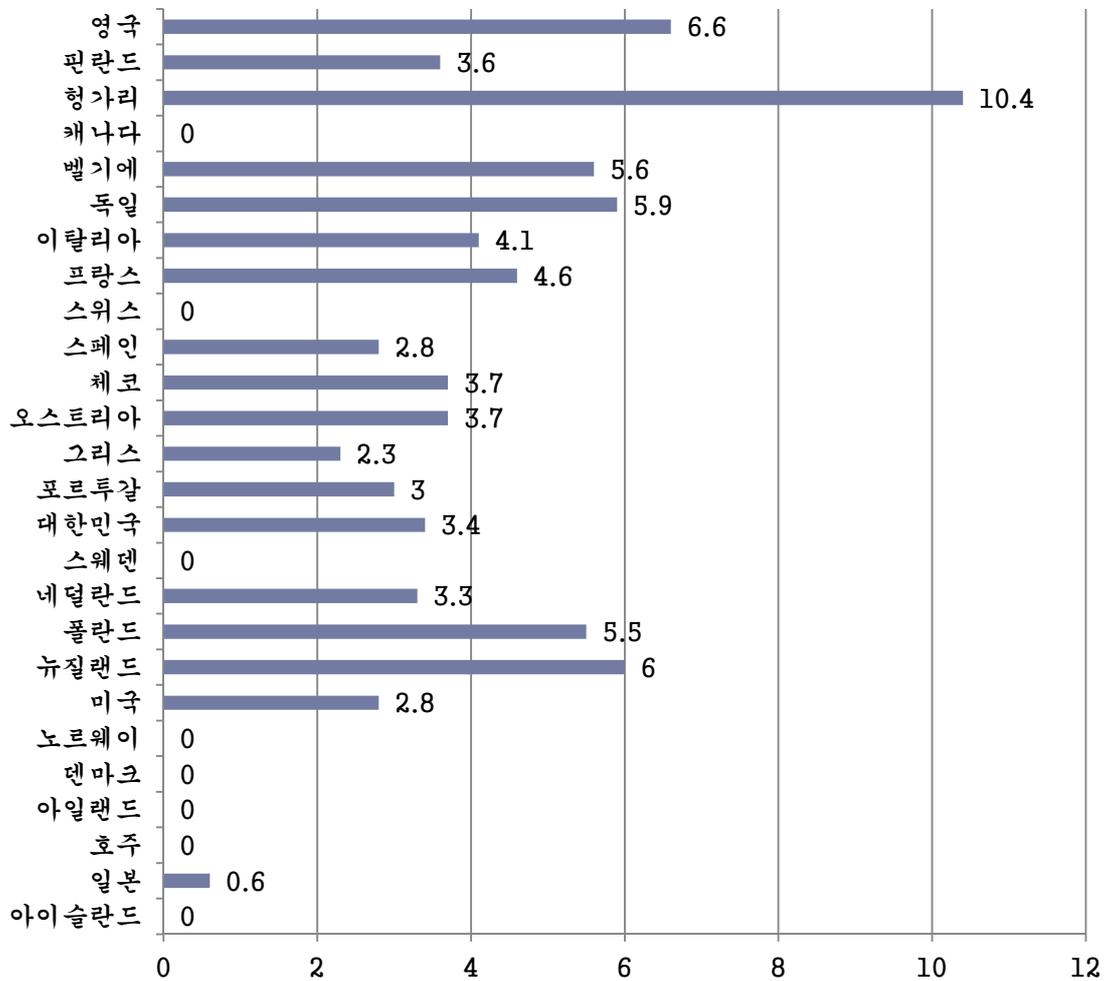
## 2.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 가정의 성인이 취업이 되어 있지 않는 아동비율

- 한국의 미취업 가정 비율은 3.4%로 OECD 국가 평균인 4.3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 가정] 단위: %

###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미취업 가정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미취업 가정	4.33	2.14334	0.6	10.4

### 3. 빈곤

#### 교육여건

: 교육자재 - 책상, 조용한 곳, 컴퓨터, 교육 소프트웨어, 인터넷, 계산기, 사전, 학교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책 - 를 4개 미만 소유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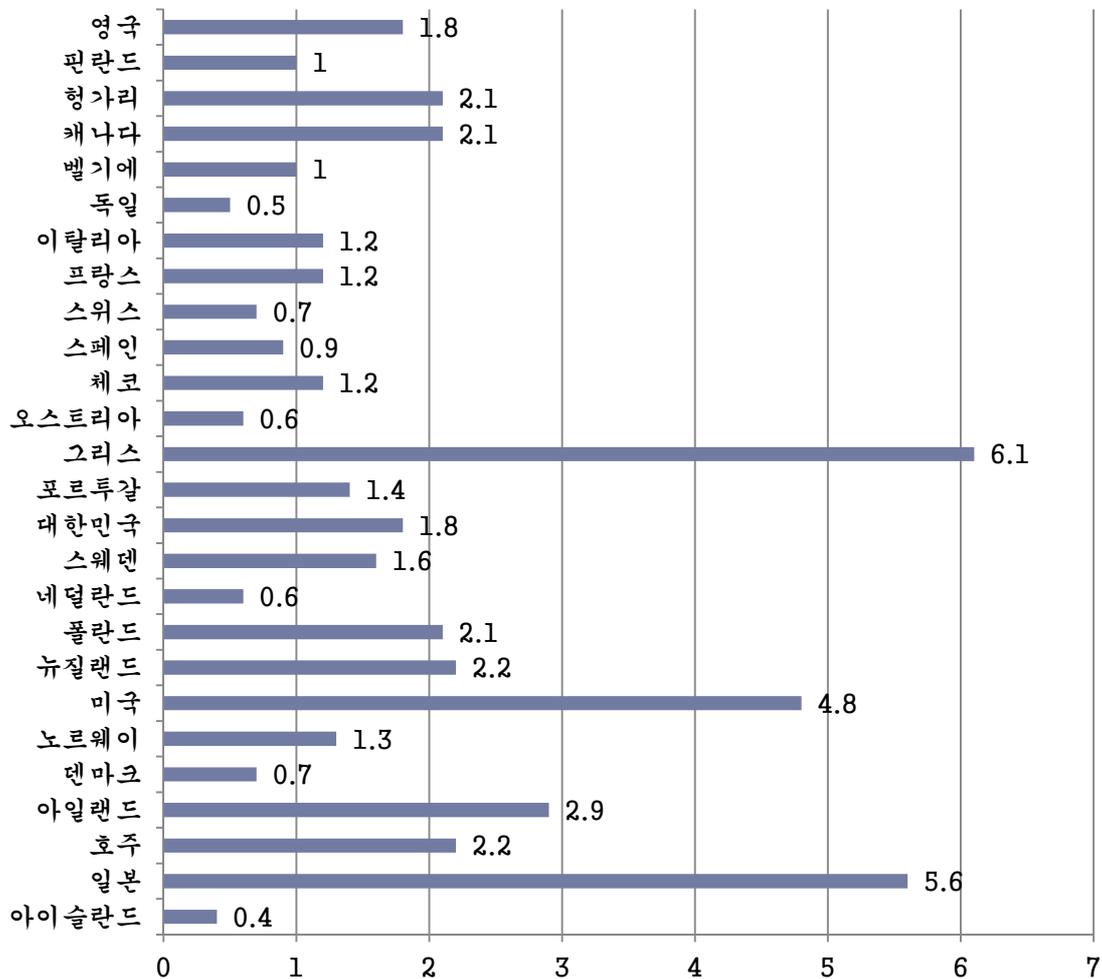
#### 문화적 결핍

: 집에 책이 10권 이상 있는 아동의 비율

- 한국의 교육여건 관련 수치는 1.85% 로 OECD 국가 평균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교육여건] 단위: %

### 교육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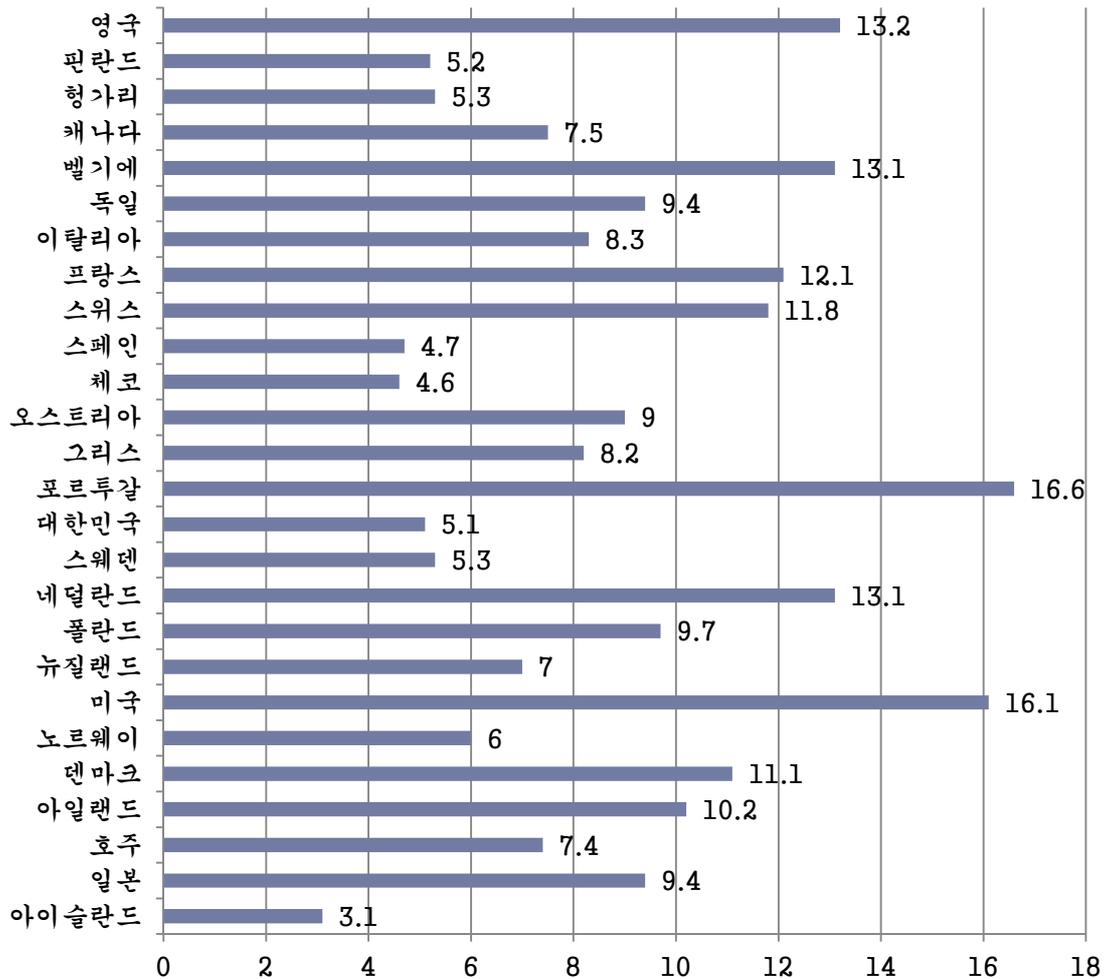
[교육여건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교육여건	1.85	1.49993	0.4	6.1

- 한국의 문화적 결핍 수치는 5.1 로 OECD 국가 평균(8.94)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결핍] 단위: %

### 문화적 결핍



[문화적 결핍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문화적 결핍	8.94	3.64463	3.1	16.6

## 11. 보건과 안전

### 1. 영아건강

#### 영아사망률

: 사망한 0-1 세의 비율 (출산 1,000 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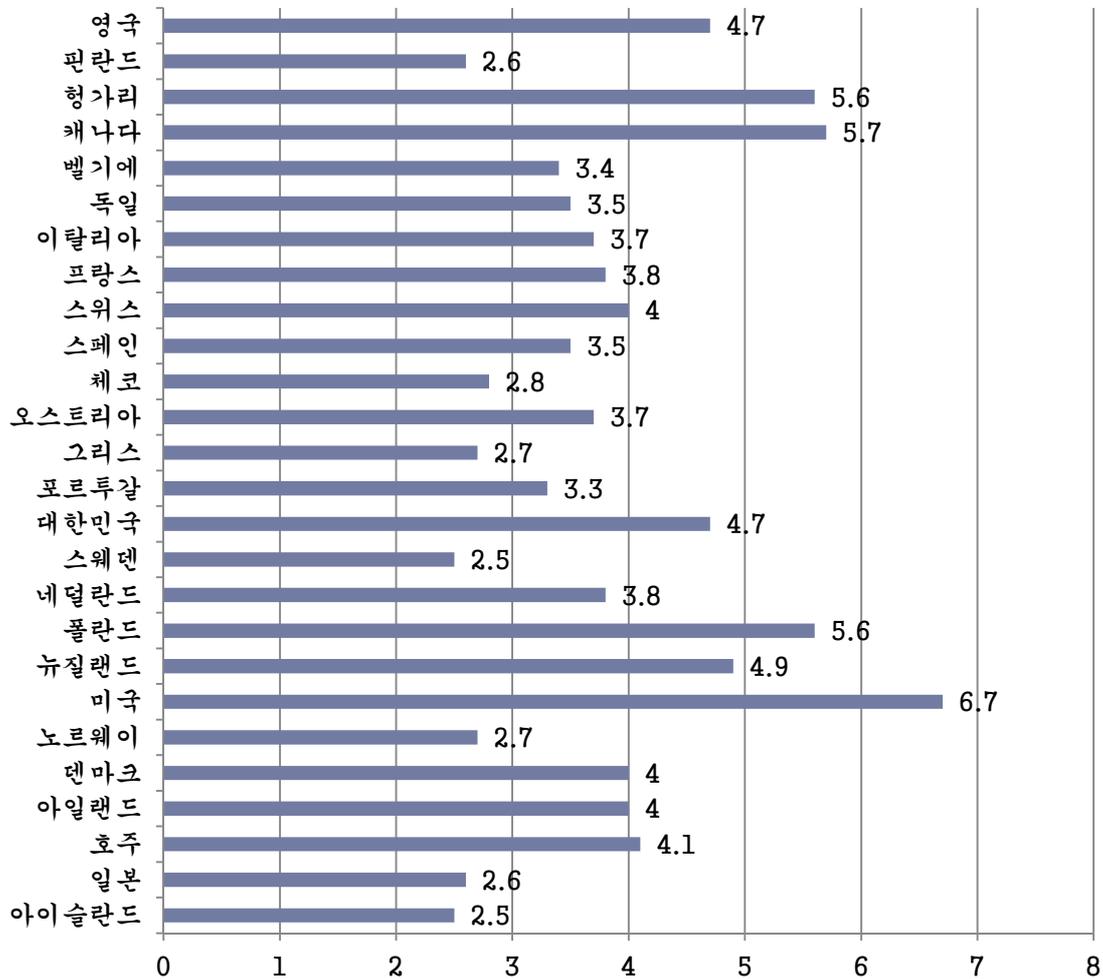
#### 저체중아 비율

: 2.5kg 이하 저체중아의 비율

- 한국의 영아 사망률은 4.7%로 OECD 국가 평균(3.8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사망률] 단위: %

### 영아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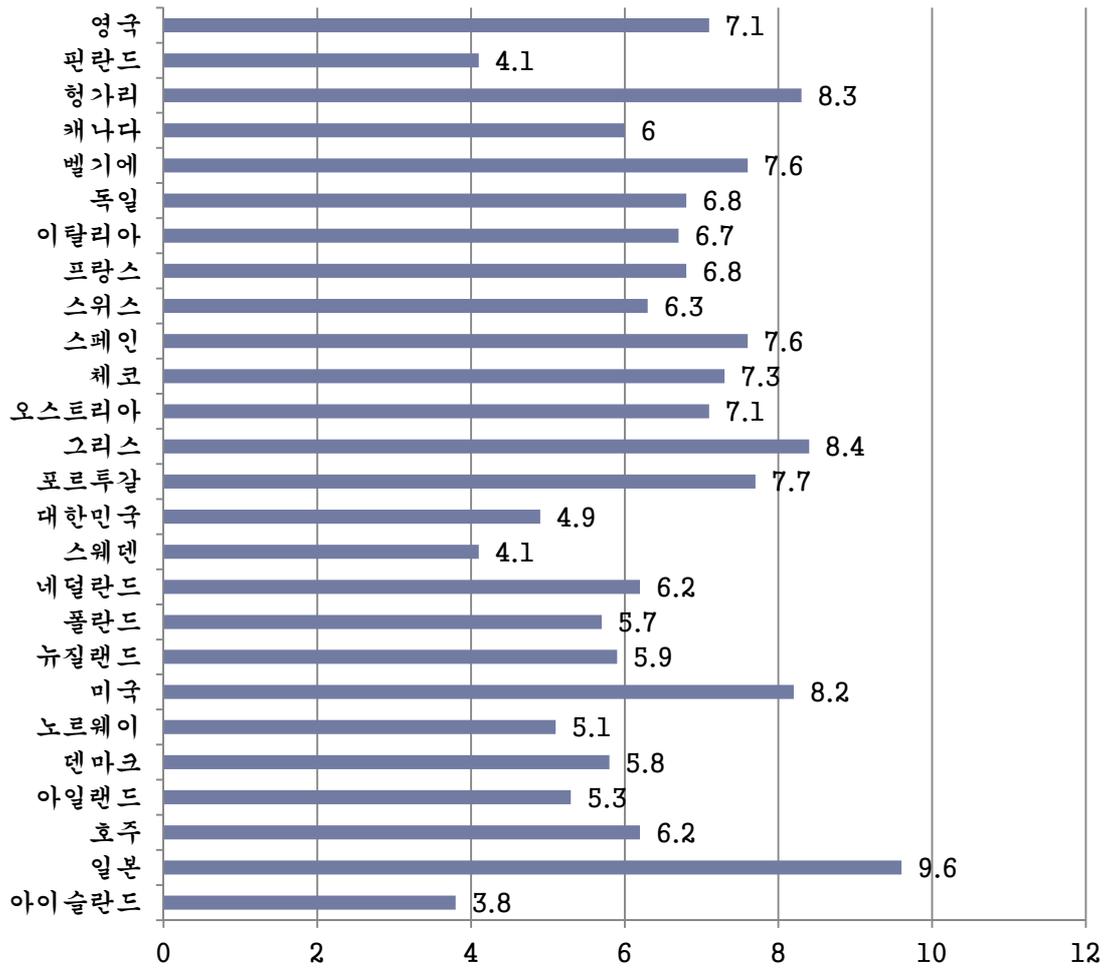
[영아사망률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영아사망률	3.89	1.12475	2.5	6.7

- 한국의 저체중아 비율은 4.9%로 OECD 국가 평균 6.4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체중아] 단위: %

### 저체중아



[저체중아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저체중아	6.48	1.43546	3.8	9.6

## 2. 예방접종

질병의 예방접종여부

:홍역 예방접종 (12-23개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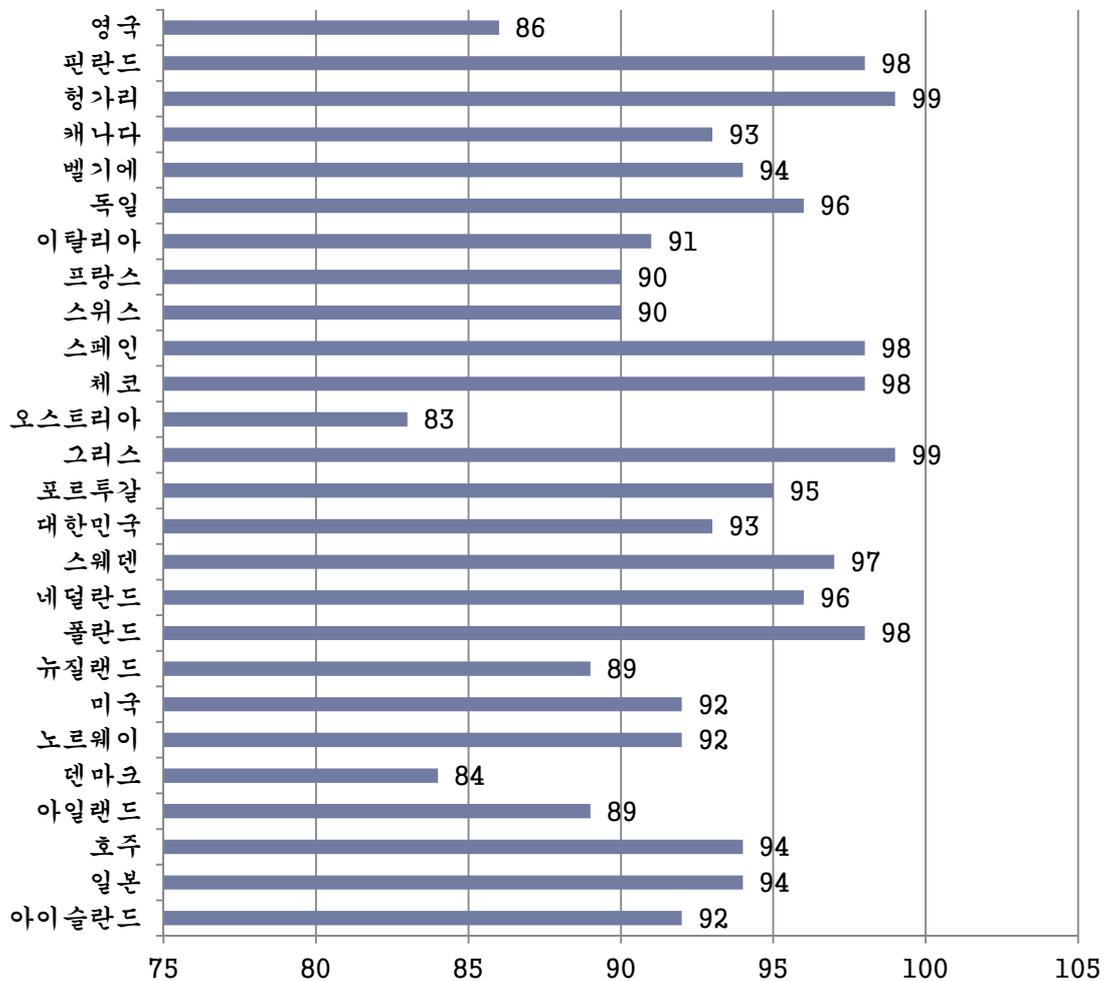
:소아마비 예방접종 (12-23개월) 비율

: DPT3 (Diphtheria, Pertussis and Tetanus) 예방접종 (12-23)개월 비율

- 한국의 홍역 예방 접종 비율은 93%로 OECD 국가 평균(93.08%)과 거의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다.

[홍역예방] 단위: %

### 홍역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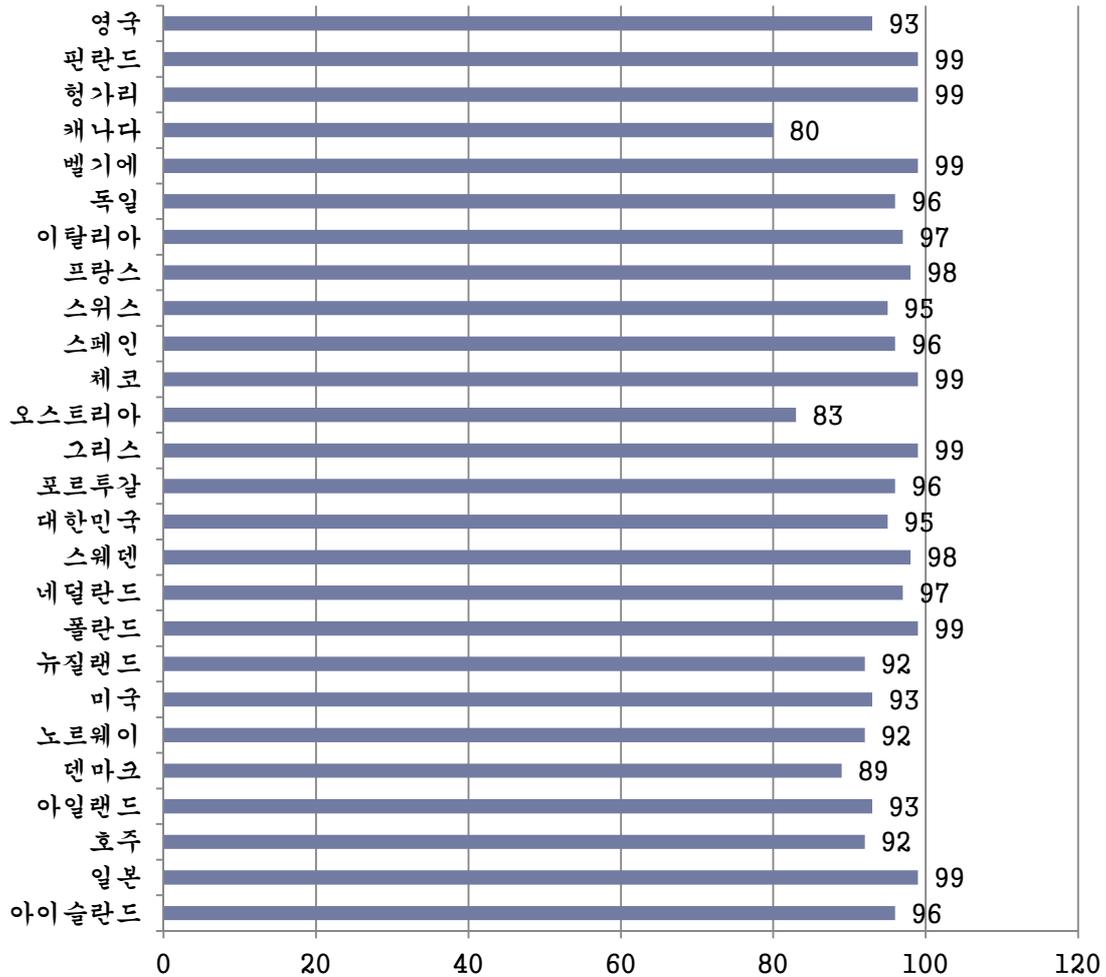
[홍역 예방접종 여부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홍역 예방접종 여부	93.08	4.47145	83	99

- 한국의 소아마비 예방접종 비율은 95%로 OECD 국가 평균(94.77%)과 거의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다.

[소아마비] 단위: %

### 소아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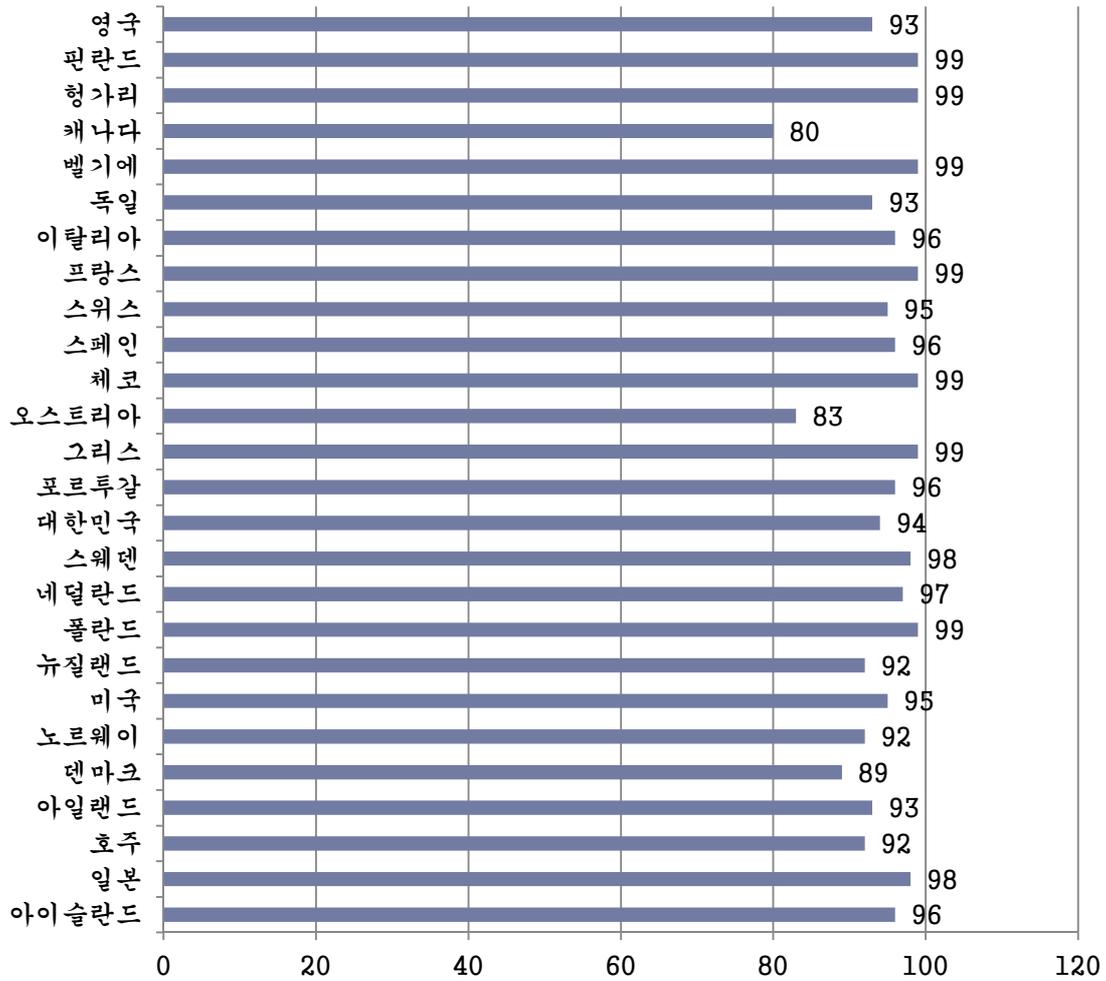
[소아마비 예방접종 여부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소아마비 예방접종 여부	94.77	4.83576	80	99

- DP3 (Diphtheria, Pertussis and Tetanus) 예방접종 비율 역시 한국은 OECD 국가 평균(94.65%)과 유사한 94%를 나타냈다.

[DPT3] 단위: %

### DPT3



[DPT3 예방접종 여부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DPT3 예방접종 여부	94.65	4.81616	80	99

### 3. 사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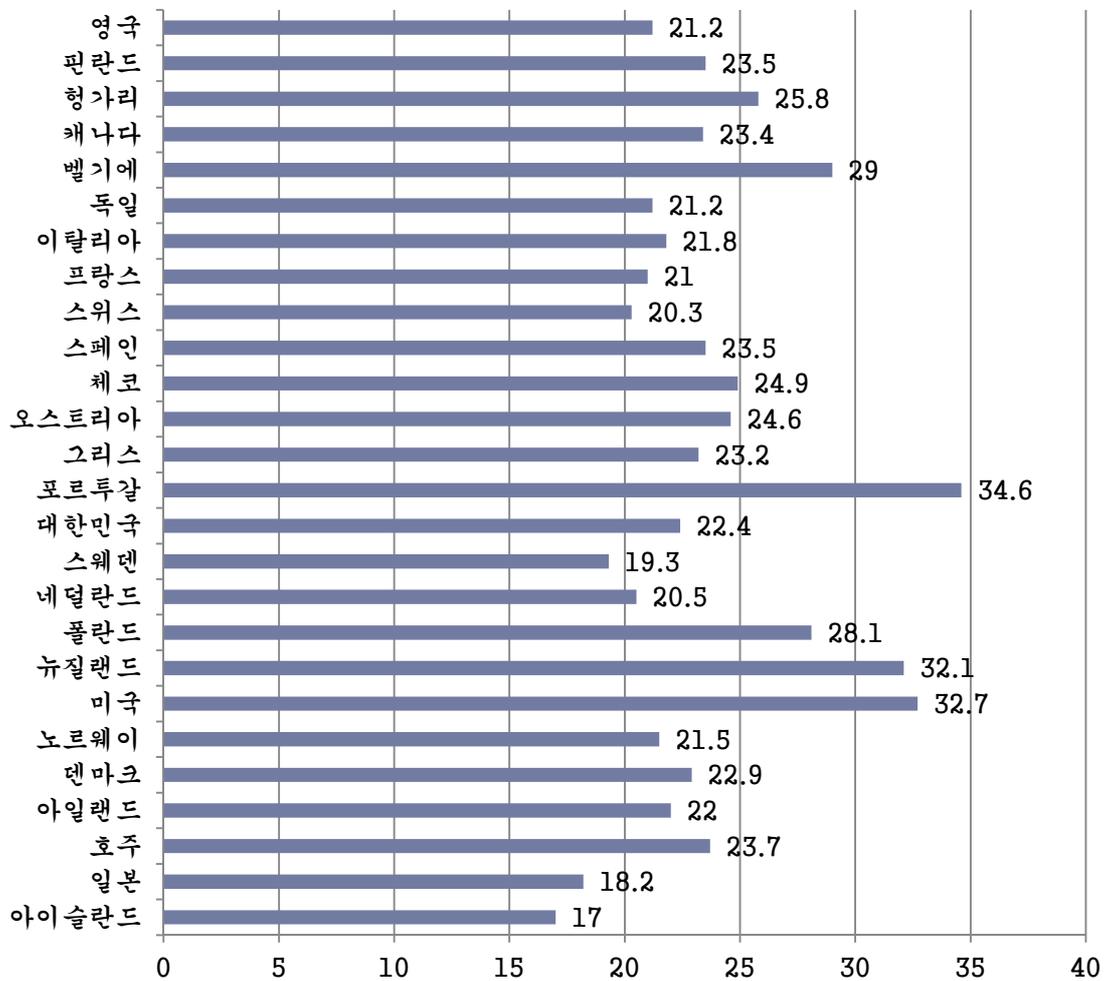
#### 아동 사고사

: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자살과 사고사를 당한 아동 (19 세 이하)의 십만명당 비율

- 한국의 아동 사고사 연평균 비율은 십만 명당 22.4%로 OECD 국가 평균(23.78%)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아동사고사] 단위: %

### 아동사고사



[아동 사고사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아동 사고사	23.78	4.35648	17	34.6

### III. 교육

#### 1. 학업 성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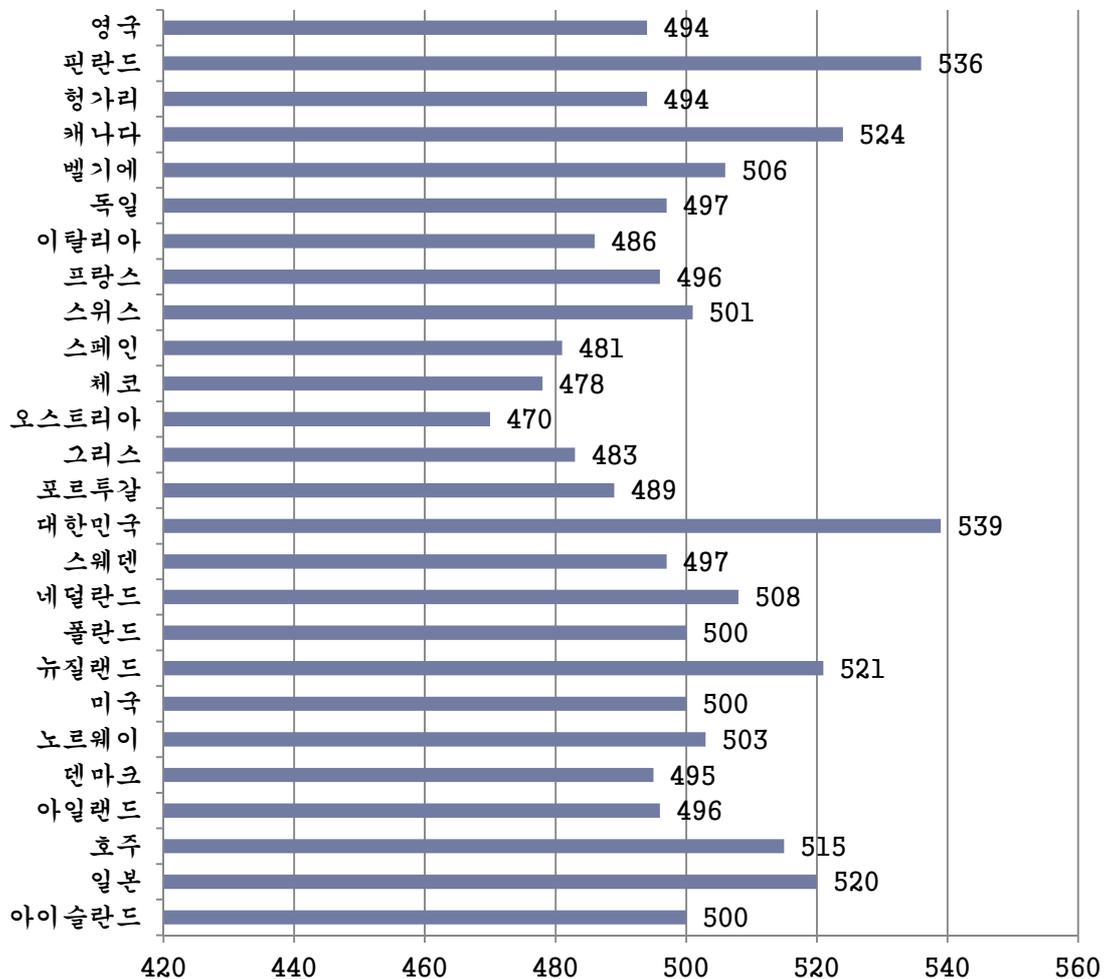
##### 15 세 학업성적

:OECD 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읽기, 수학, 과학의 세가지 영역 시험 점수로 측정

- 한국의 읽기시험 점수는 539 점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읽기시험점수]

### 읽기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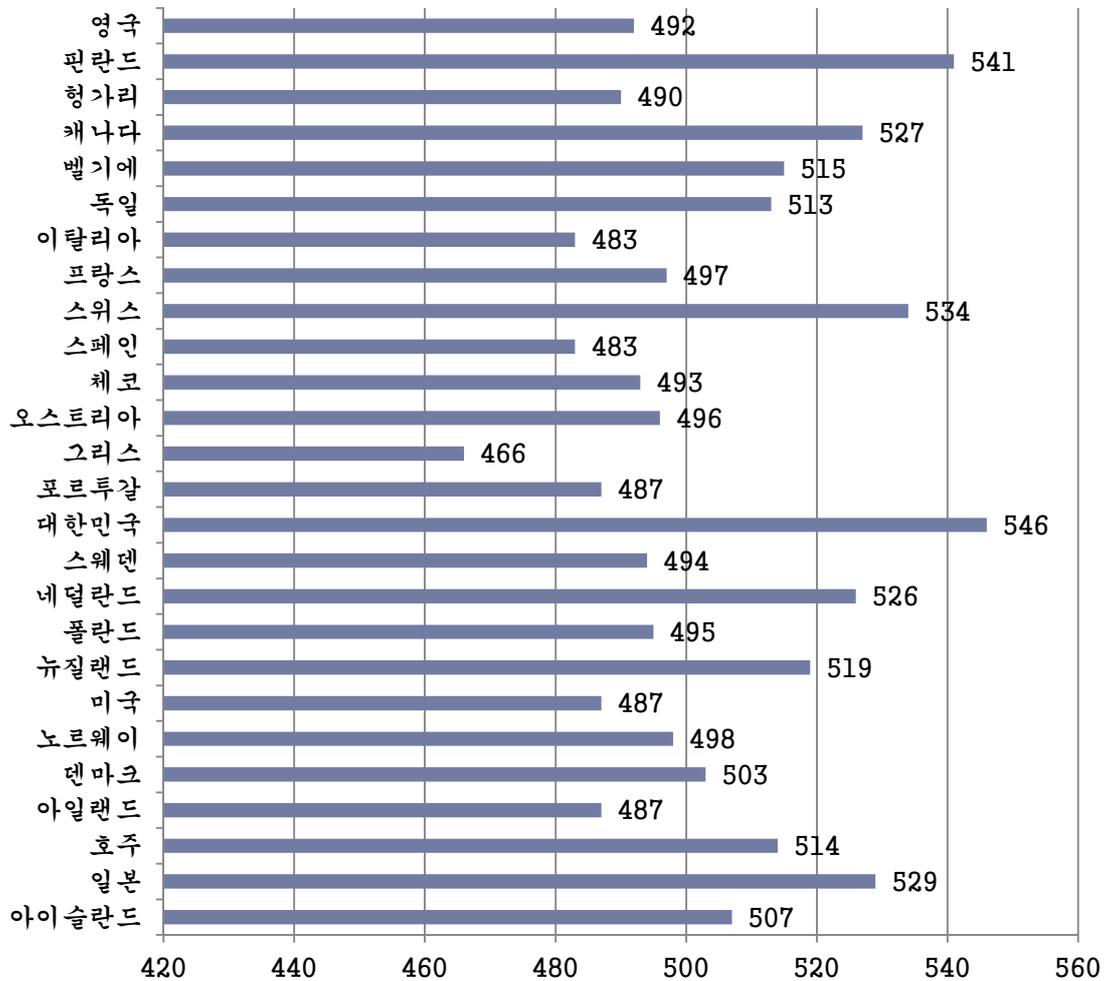
[읽기점수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읽기점수	501.12	16.7746	470	539

- 한국의 수학 점수는 OECD 국가 평균(504.69)을 크게 상회하는 546 점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수학시험점수]

### 수학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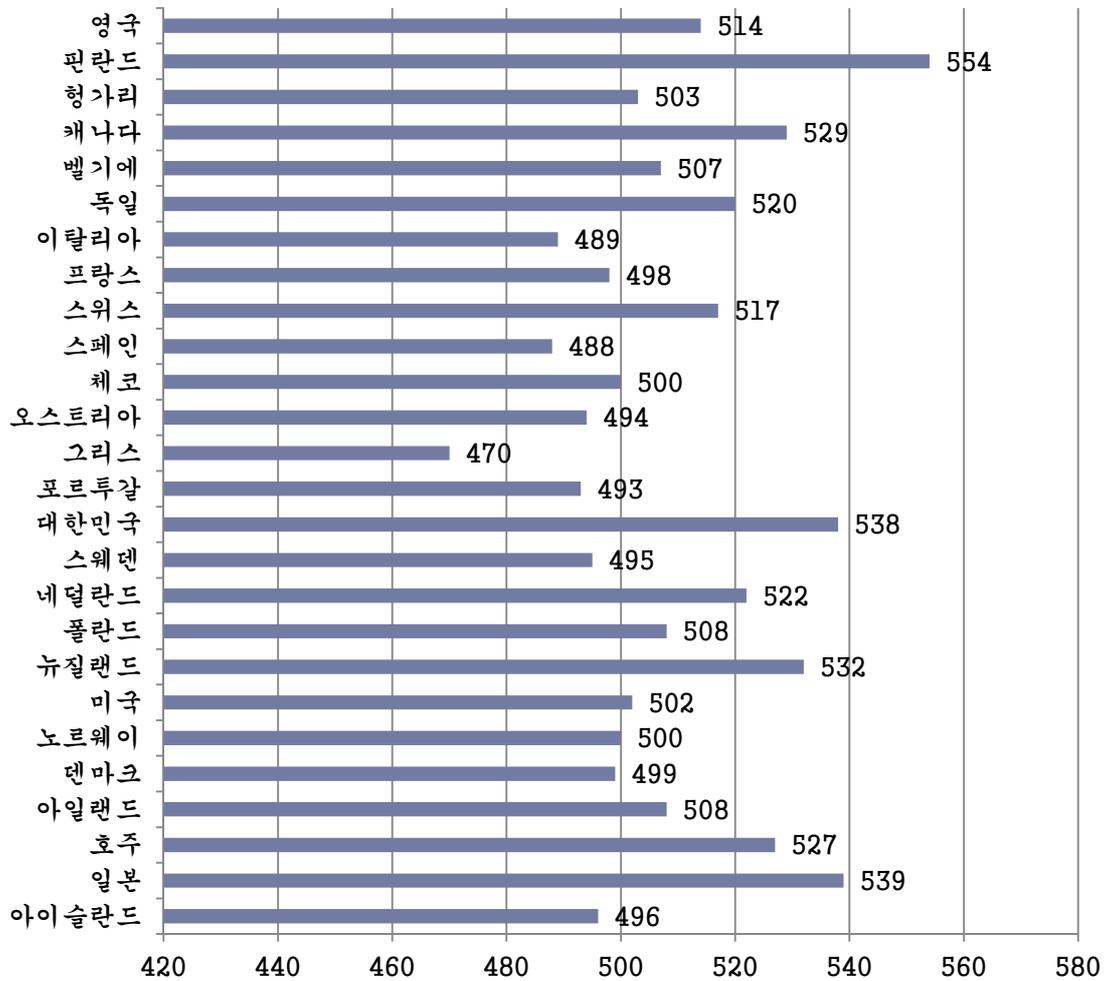
[수학점수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수학점수	504.69	20.1787	466	546

- 한국의 과학점수는 538 점으로 OECD 국가 평균(509.31)보다 크게 높았으며, 핀란드,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과학시험점수]

## 과학점수



[과학점수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과학점수	509.31	19.0552	470	554

## 2. 교육참여

### 15-19 세 아동의 학업유지

: 학교를 다니는 15-19 세의 아동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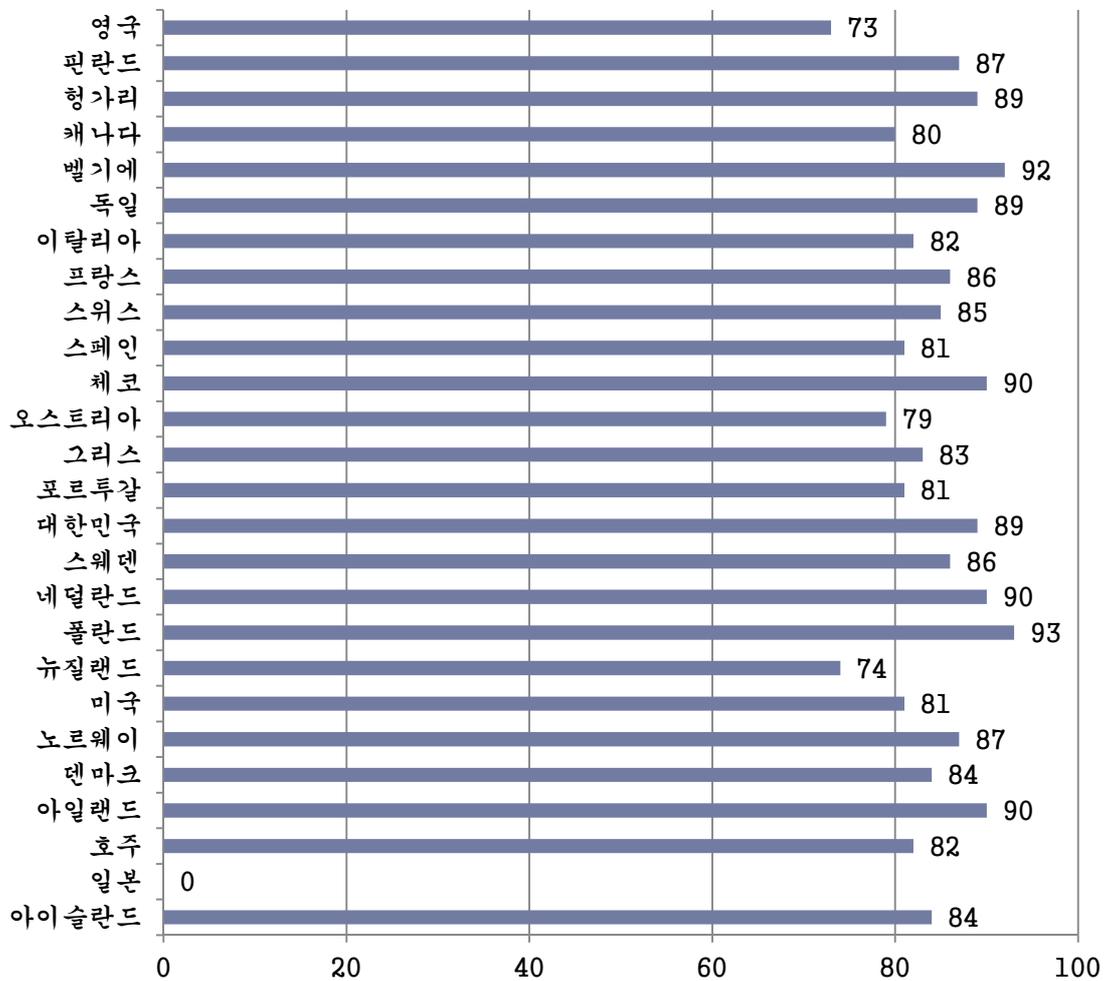
실업상태

:교육훈련기관에 속하지 않으면서 학업을 이어가지 않는 젊은 층의 비율

- 한국의 학업유지 비율은 89%로 OECD 국가 평균 84.6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유지] 단위: %

### 학업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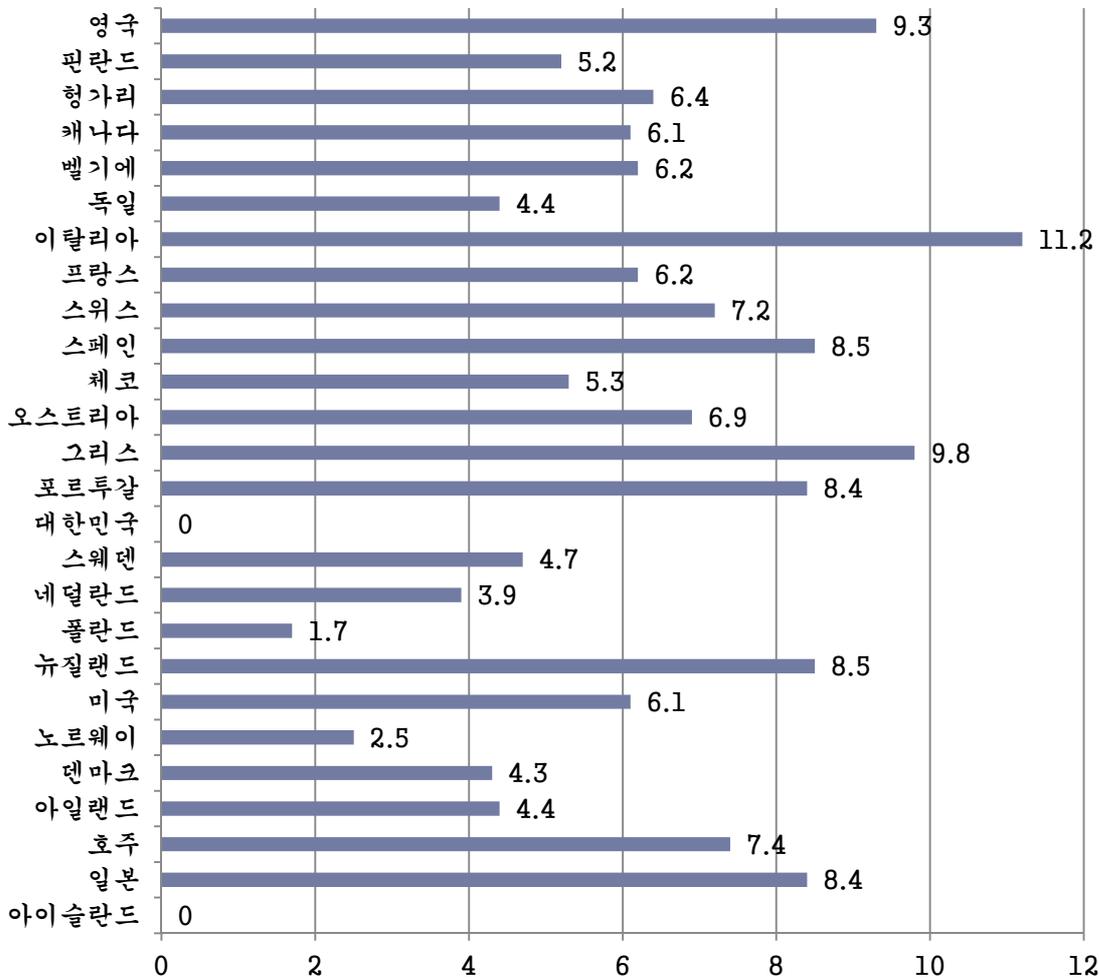
[학업유지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학업유지	84.68	5.16978	73	93

- 교육훈련기관에 속하지 않으면서 학업을 이어가지 않는 젊은 층의 비율은 한국의 경우 6.38%로 OECD 평균( 8.95%)보다 낮게 나타났다.

[실업상태] 단위: %

### 실업상태



[실업상태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실업상태	6.48	2.326	1.7	11.2

### 3. 학업열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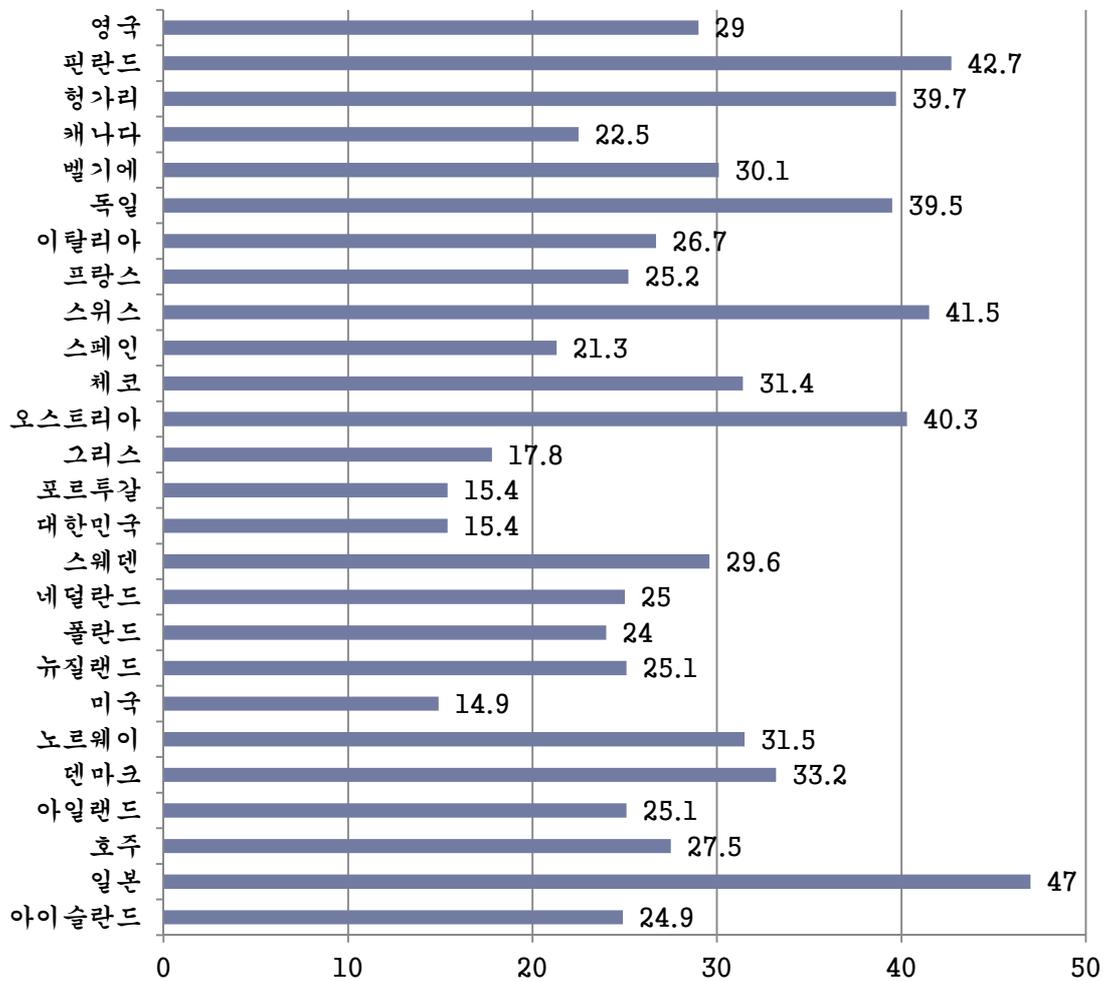
#### 미숙련 일자리

:기대하는 일자리로 미숙련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

- 성인이 되어 희망하는 일자리로 미숙련 일자리를 기대하는 비율은 한국이 15.4%로 OECD 국가 평균인 28.7% 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학업열망] 단위: %

### 미숙련 일자리



[학업열망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학업열망	28.70	8.8436	14.9	47

## IV. 가족과 친구관계

### 1. 가족구조

홀부모 가정

: 홀부모와 같이 사는 아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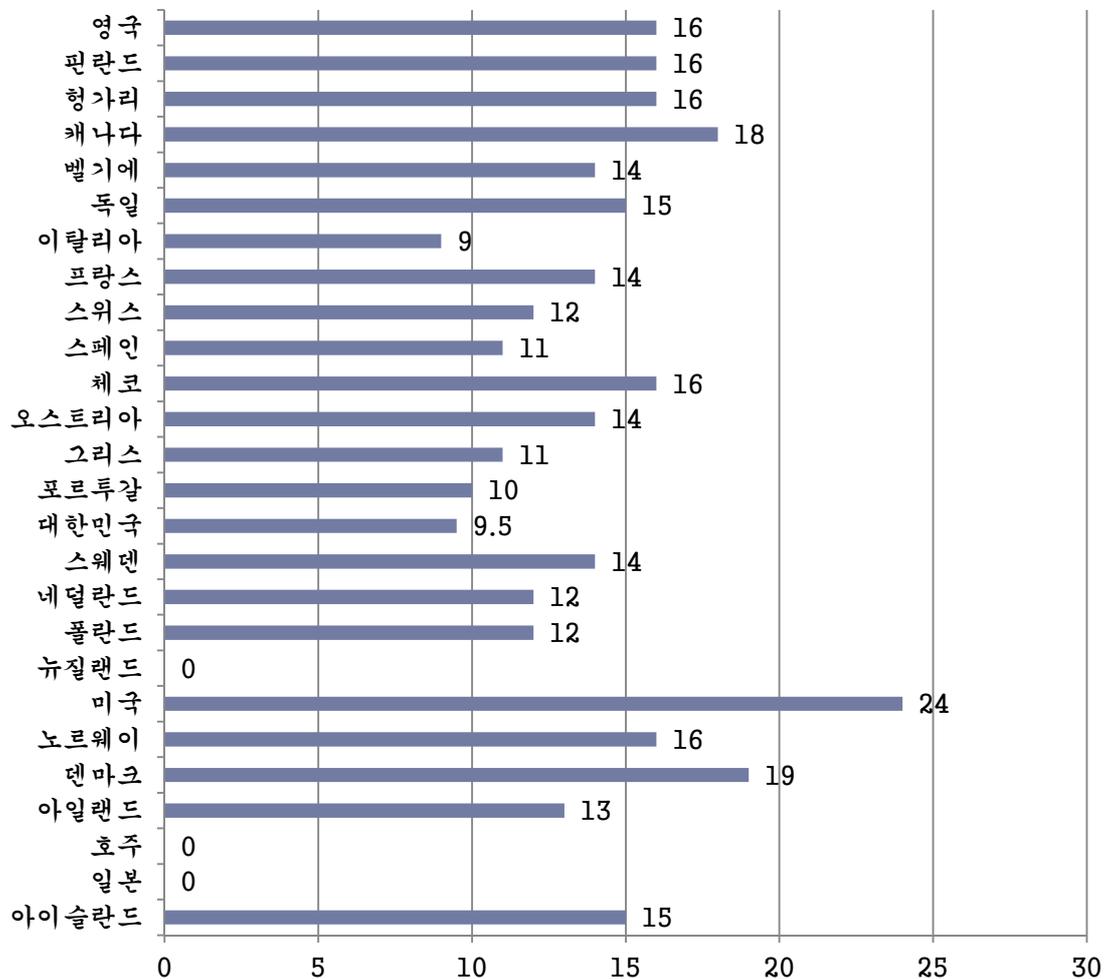
의붓 가정

: 의붓아버지나 의붓어머니와 같이 사는 아동의 비율

- 한국의 홀부모 가정 비율은 9.5%로 OECD 국가 평균(14.20%)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홀부모가정] 단위: %

### 홀부모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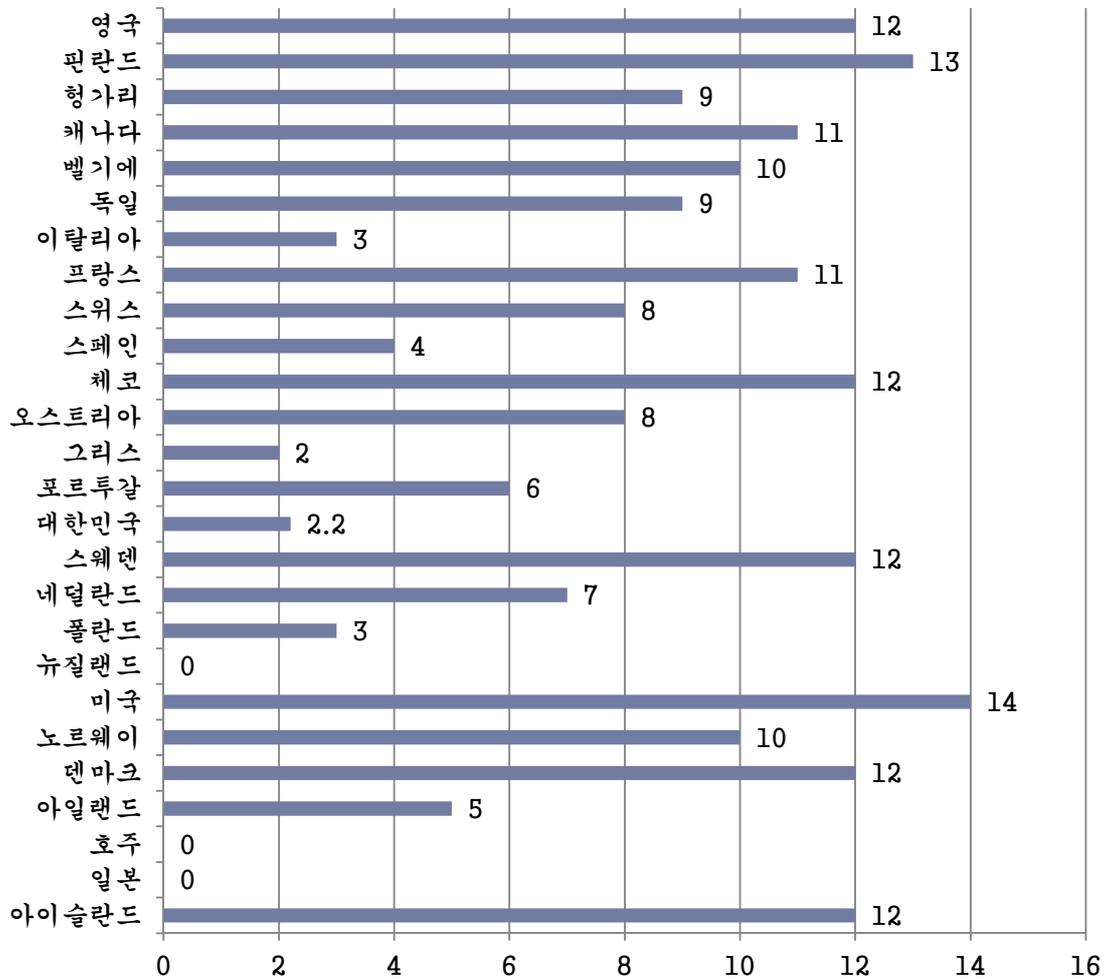
[홀부모가정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홀부모가정	14.20	3.40033	9	24

- 의붓 아버지 혹은 의붓 어머니가 있는 가정의 비율은 한국의 경우 2.2%에 그친 반면, OECD 국가 평균은 이보다 훨씬 높은 8.49%로 나타났다.

[의붓가정] 단위: %

### 의붓가정



[의붓가정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의붓가정	8.49	3.77303	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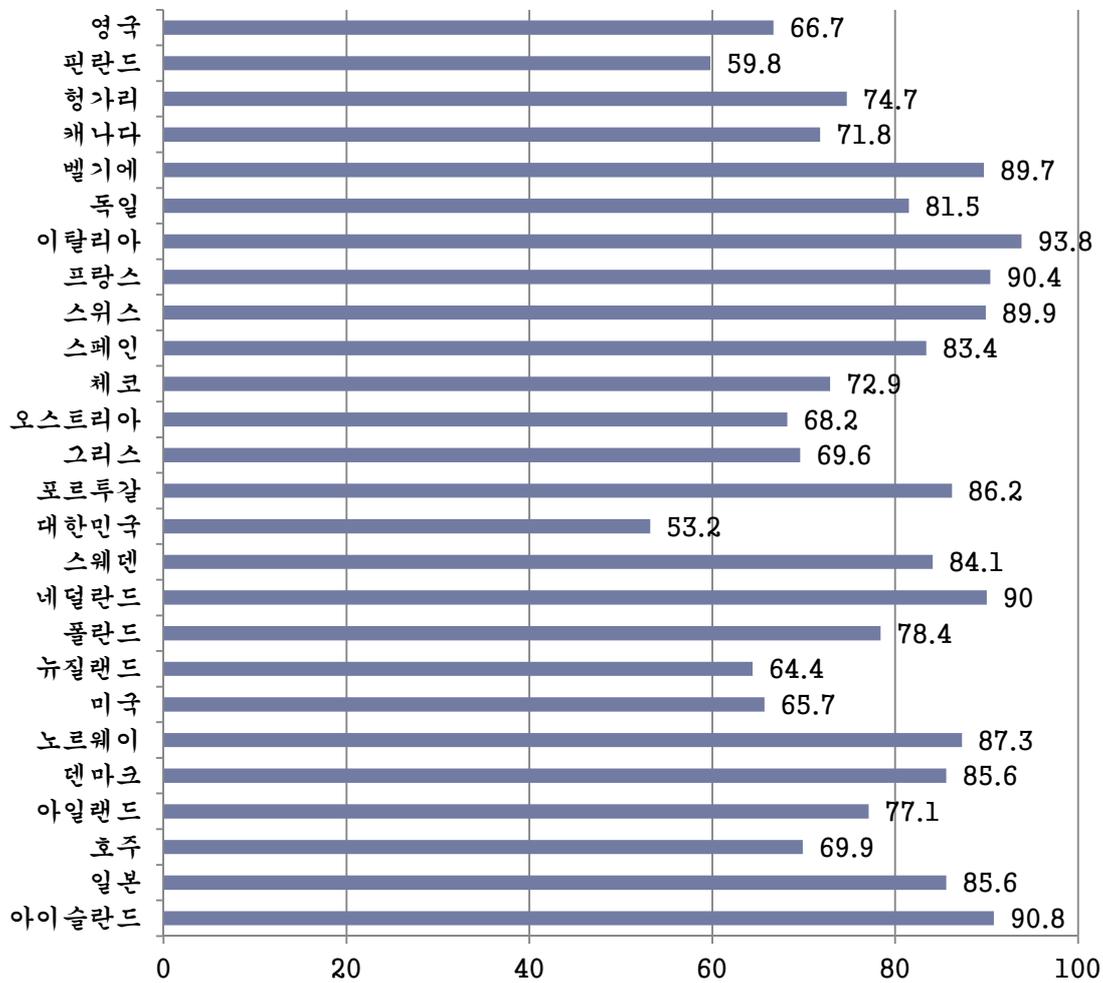
2. 부모관계

함께 식사하기  
: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아동의 비율  
함께 대화하기  
: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아동의 비율

- 부모님과 함께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은 한국의 경우 53.2%로, OECD 국가 평균 78.1% 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함께 식사하기] 단위: %

### 함께 식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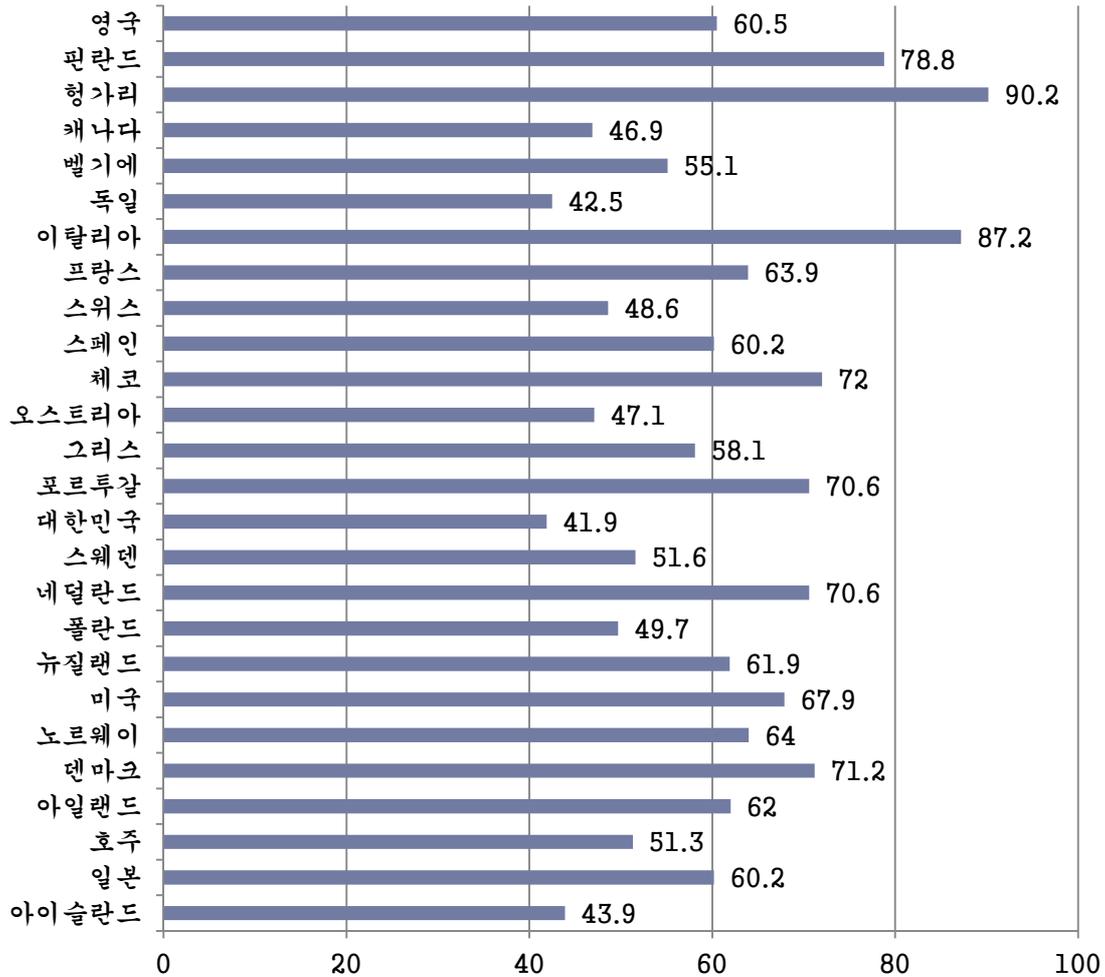
[함께 식사하기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함께 식사하기	78.10	11.0564	53.2	93.8

- 부모님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대화하는 빈도에서는 OECD 국가 평균이 60.69%로 나타났지만, 한국은 41.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함께 대화하기] 단위: %

### 함께 대화하기



[함께 대화하기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함께 대화하기	60.69	13.0073	41.9	90.2

### 3. 친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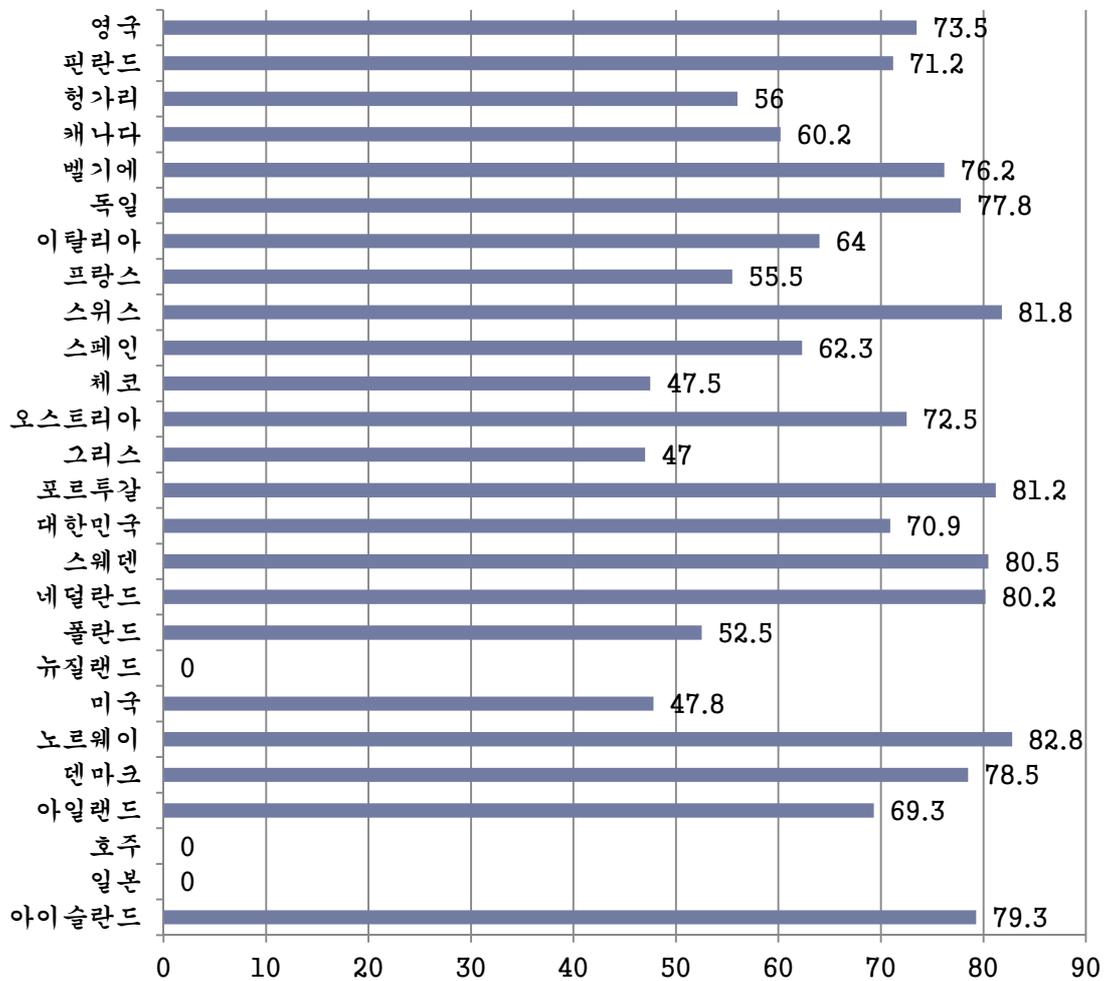
#### 친절한 급우관계

: 급우가 친절하며 도움을 주는가?

- 급우가 자신에게 친절하며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비율은 한국이 70.9%로 OECD 국가 평균 68.20%보다 높게 나타났다.

[친절한 급우관계] 단위: %

### 친절한 급우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친절한 급우관계	68.20	12.2086	47	82.8

## V. 행동과 생활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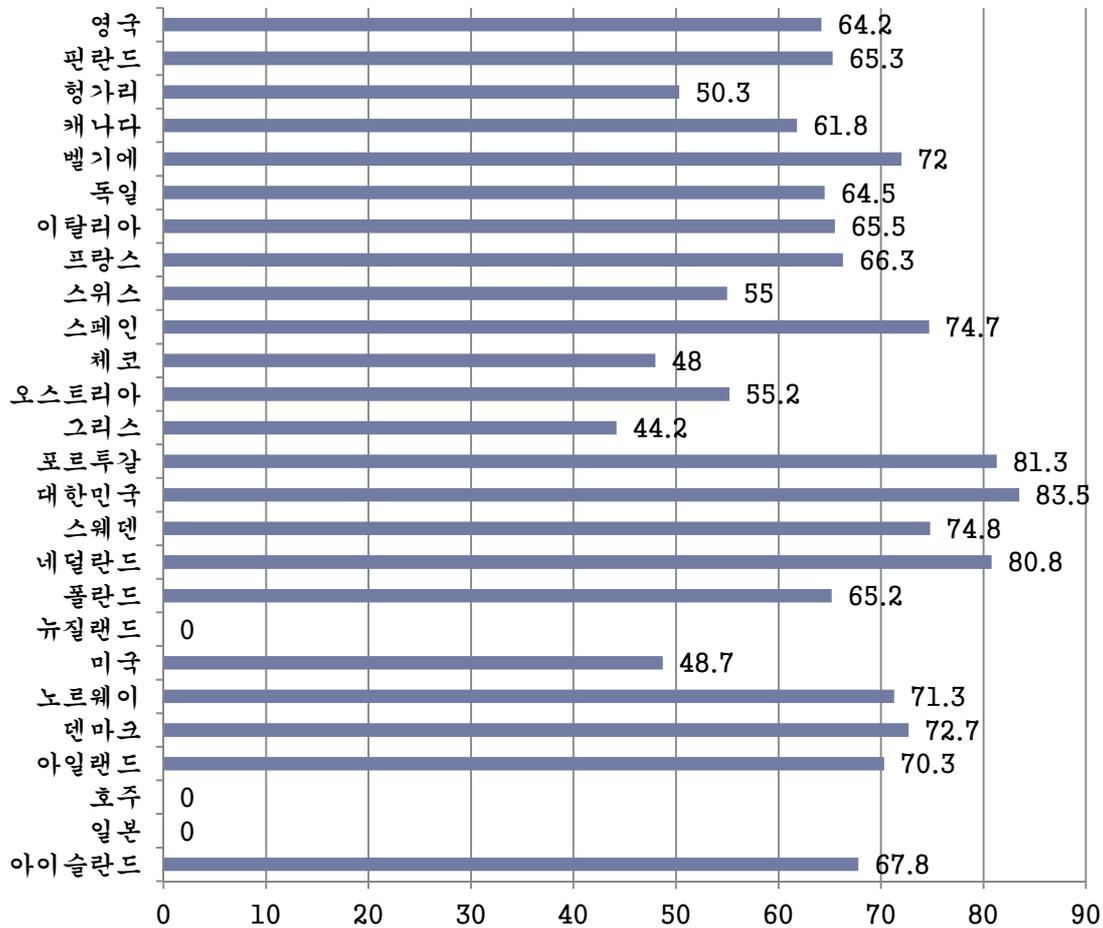
### 1. 건강행동

아침식사: 학교가기 전, 아침식사를 하는 어린이 비율
과일섭취: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학생의 비율
과체중: 체질량지수 (BMI)가 25 이상인 비율
운동: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운동을 한 일 수

- 2011년 설문에서 측정된 등교 전 아침식사 비율은 한국이 83.5%로, OECD 국가 평균 (65.37%)보다 크게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아침식사] 단위: %

### 아침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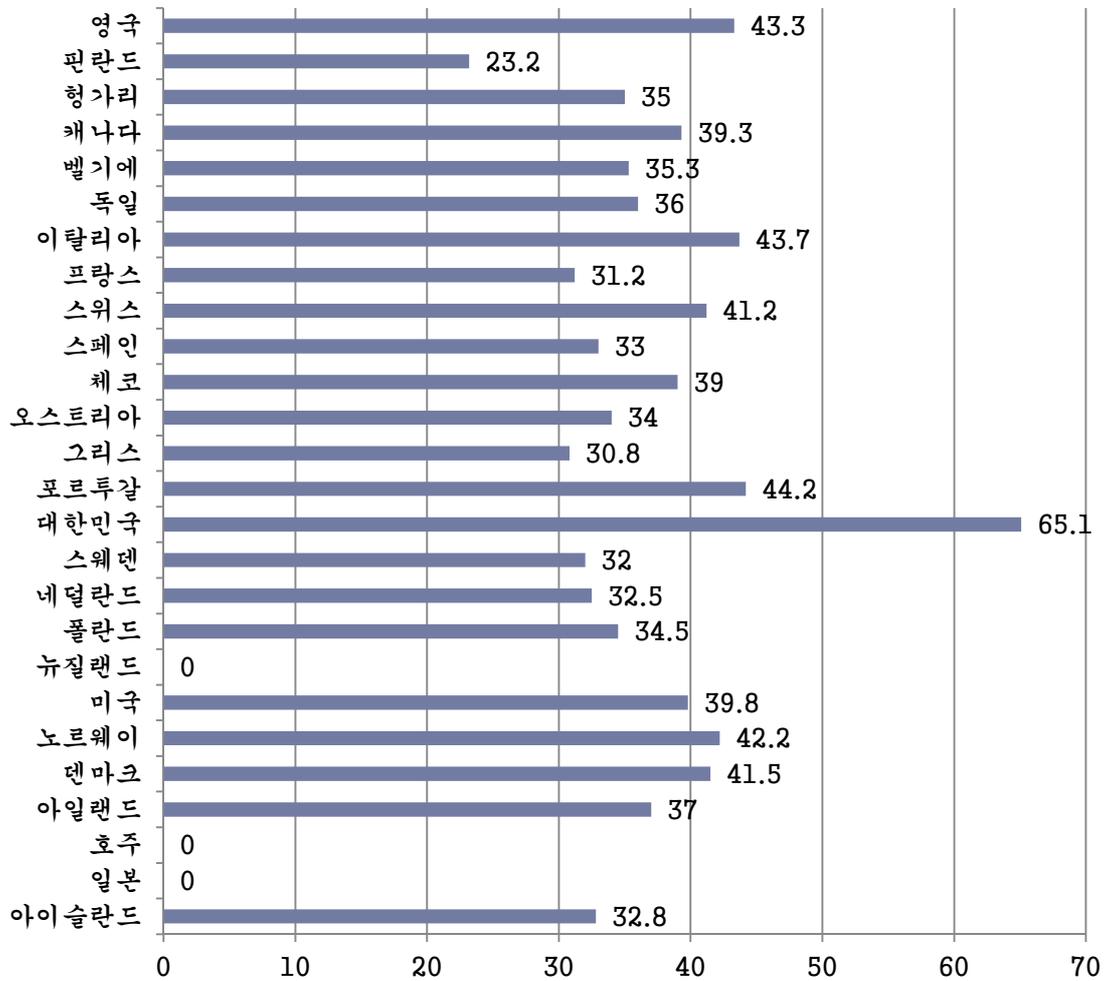
[아침식사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아침식사	65.37	10.957	44.2	83.5

- 2011 년 설문으로 측정한 과일섭취 비율은 한국이 65.1%로 OECD 국가 평균(37.68%)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섭취] 단위: %

### 과일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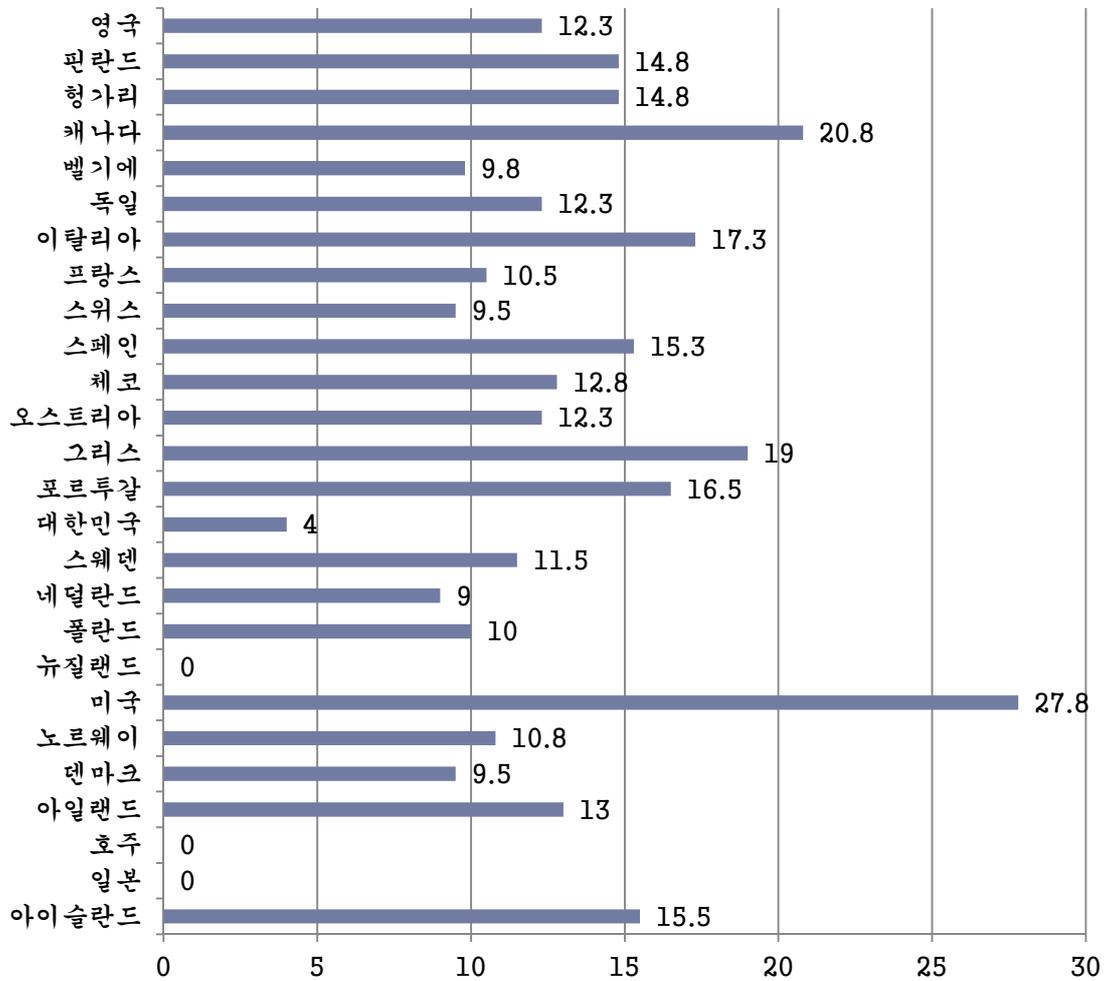
[과일섭취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과일섭취	37.68	7.8684	23.2	65.1

-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 즉 과체중인 아이들의 비율이 한국은 4%로 OECD 국가 평균(13.44%)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과체중] 단위: %

### 과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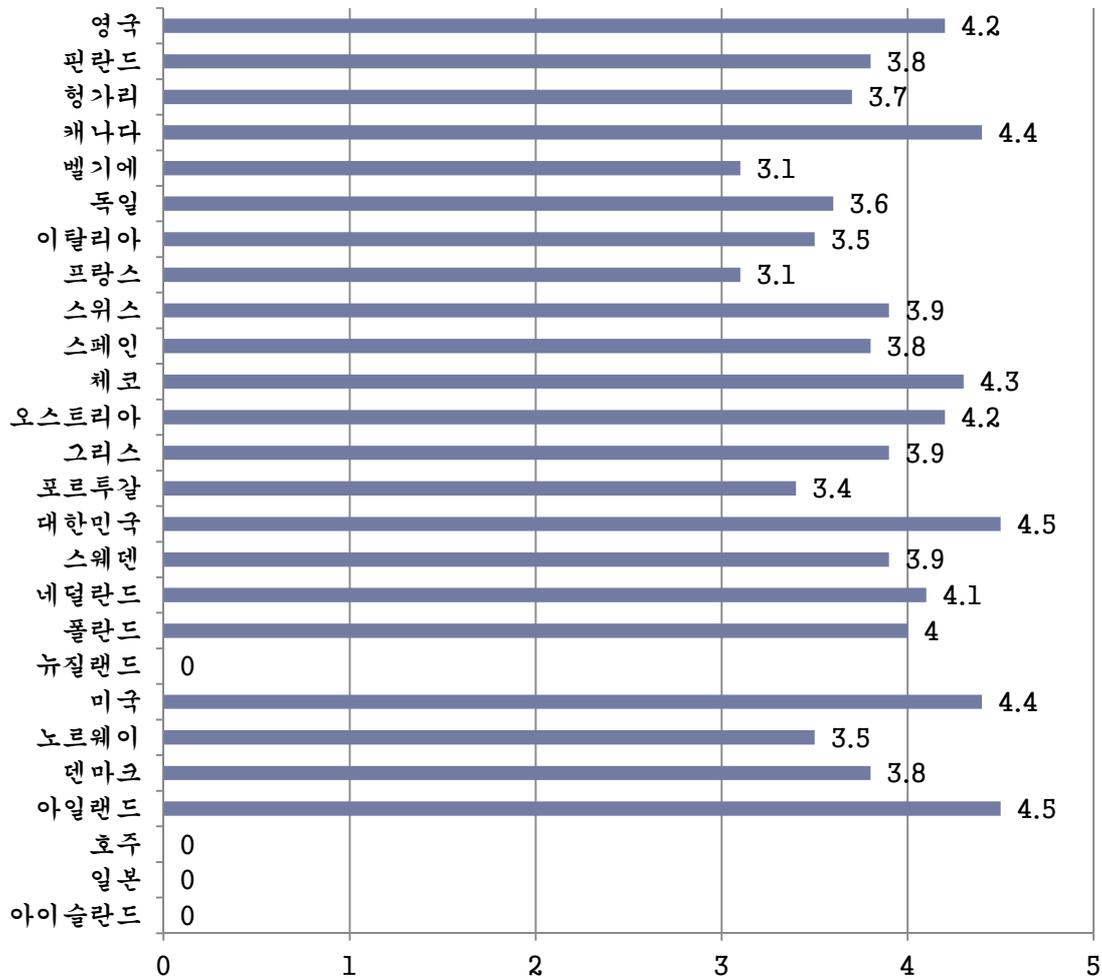
[과체중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과체중	13.44	4.84203	4	27.8

- 지난 1 주일간 1 시간 이상 운동을 한 일 수의 경우 한국은 4.5 일로 OECD 국가 평균인 3.89 일보다 높게 나타났다.

[운동] 단위: %

### 운동



[운동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운동	3.89	0.41508	3.1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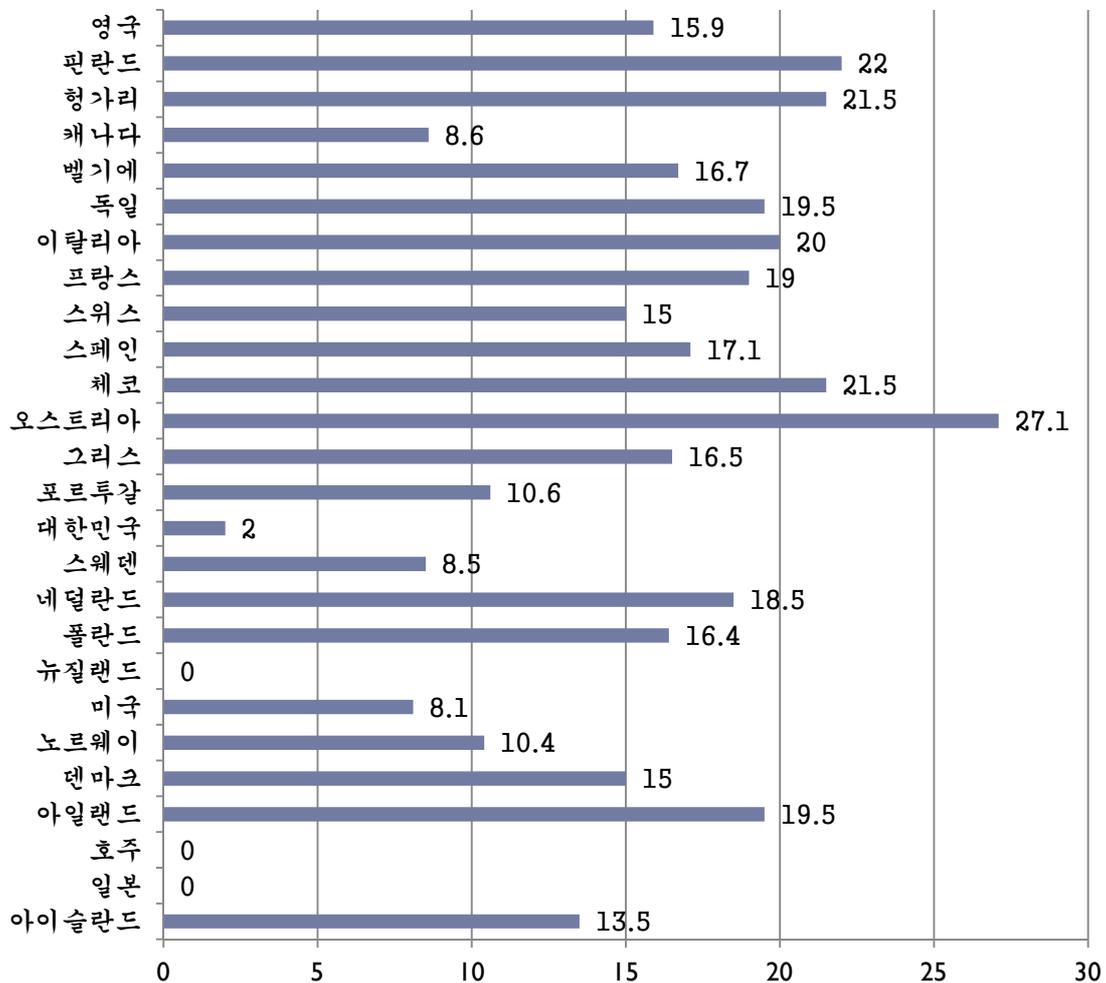
2. 위험행동

흡연: 11, 13, 15 세의 흡연비율  
 음주: 11, 13, 15 세의 음주비율  
 마약: 11, 13, 15 세의 마약사용 비율  
 성관계: 15 세의 성관계 경험 비율  
 콘돔: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한 15 세 아동 비율  
 임신과 출산: 십대 출산율  
 싸움: 지난 12 개월 동안 폭력행위에 관련된 아동의 비율  
 왕따: 지난 12 개월 동안 다른 학생에 의해 놀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

- 한국 청소년의 흡연비율은 2%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흡연] 단위: %

흡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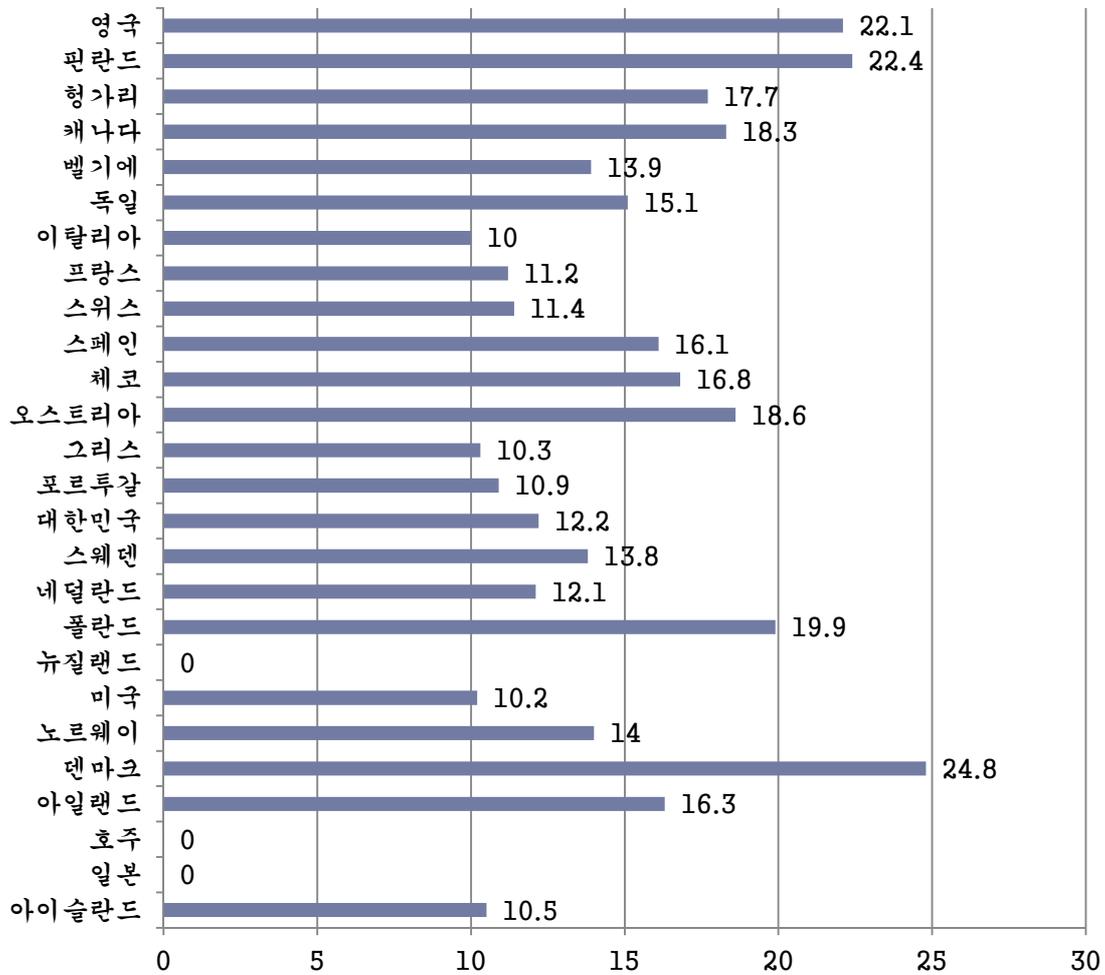
[흡연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흡연	15.78	5.69944	2	27.1

- 한국 청소년 음주경험 비율은 12.2%로 OECD 국가 평균( 15.16%)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음주] 단위: %

## 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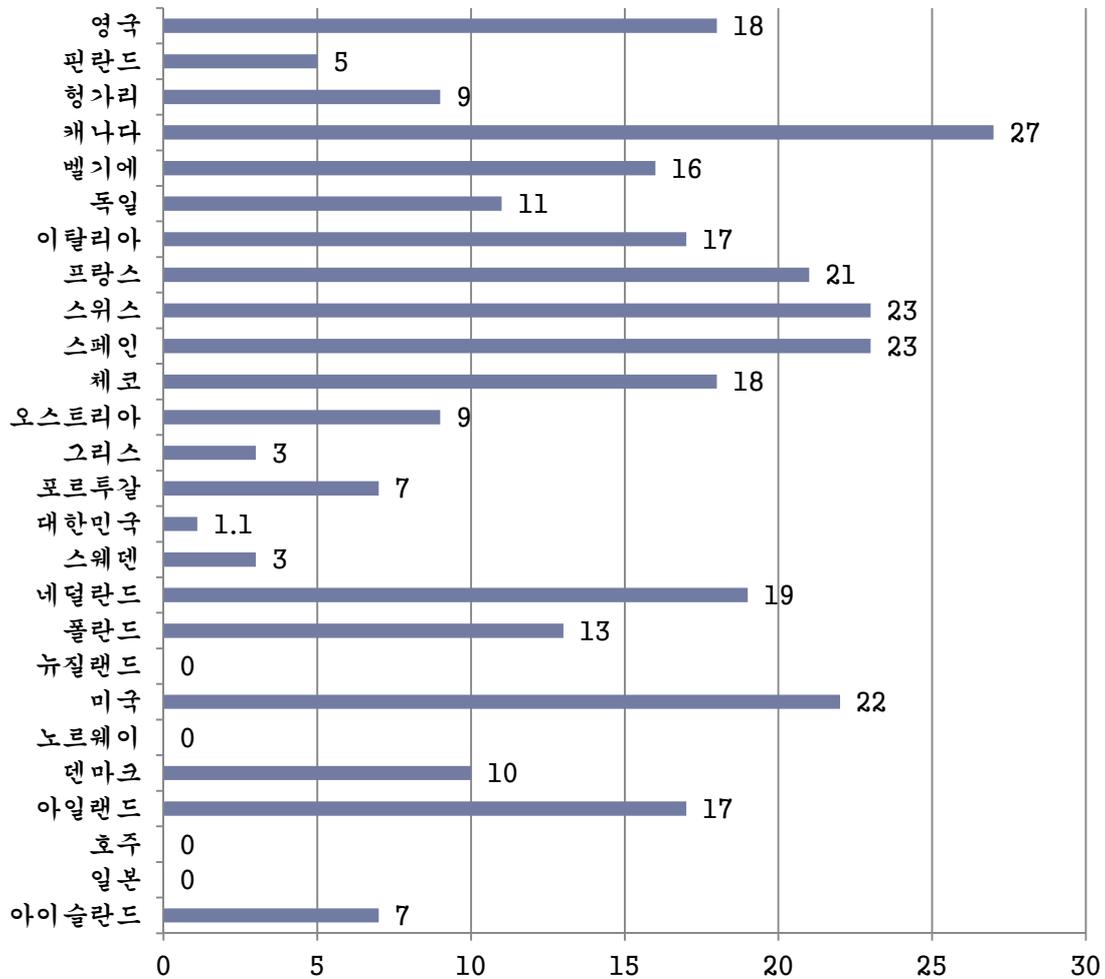
[음주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음주	15.16	4.35074	10	24.8

- 한국 청소년의 마약복용 비율은 1.1%로 OECD 국가 평균(13.6%)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마약] 단위: %

## 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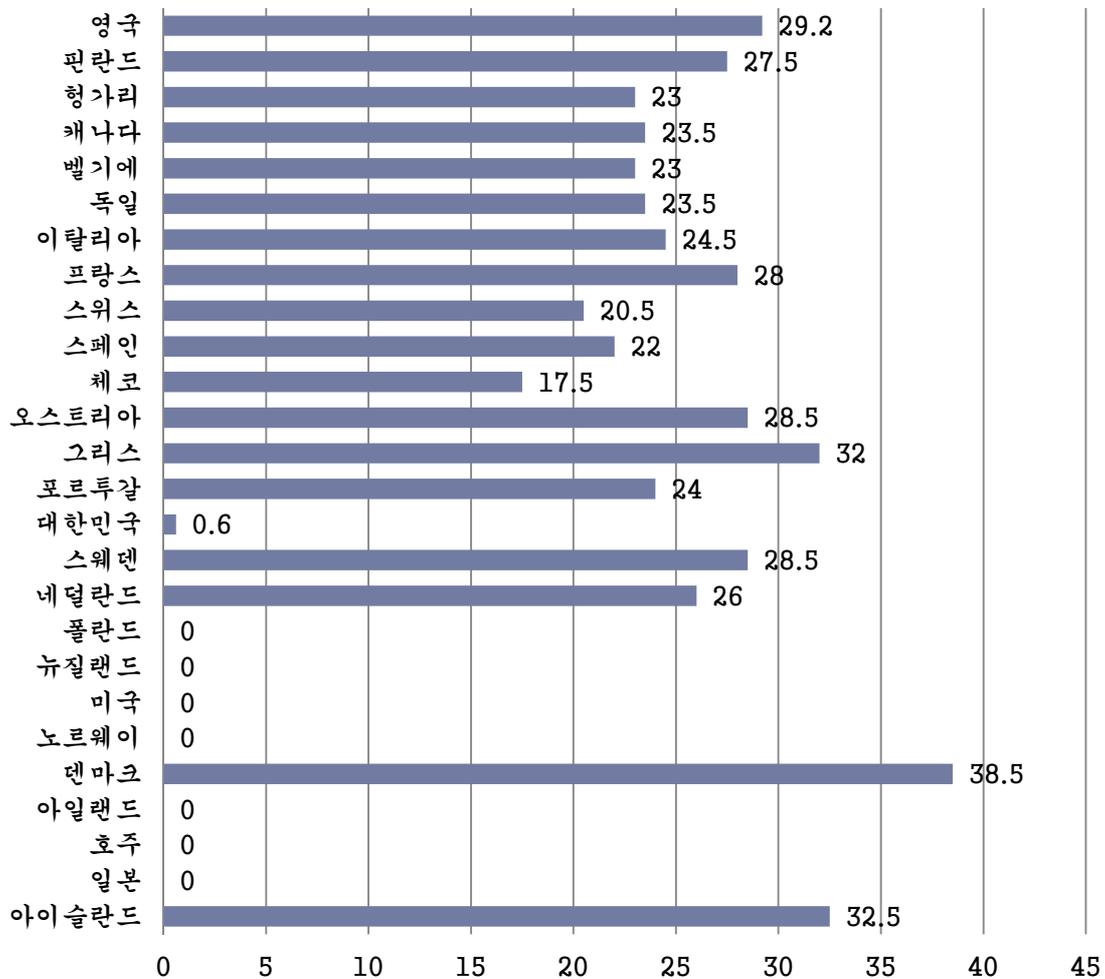
[마약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마약	13.60	7.50495	1.1	27

- 2011년 설문을 통해 측정된 한국 십대의 성관계 경험 비율은 0.6%로, OECD 국가 평균(24.88%)과 비교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 단위: %

## 성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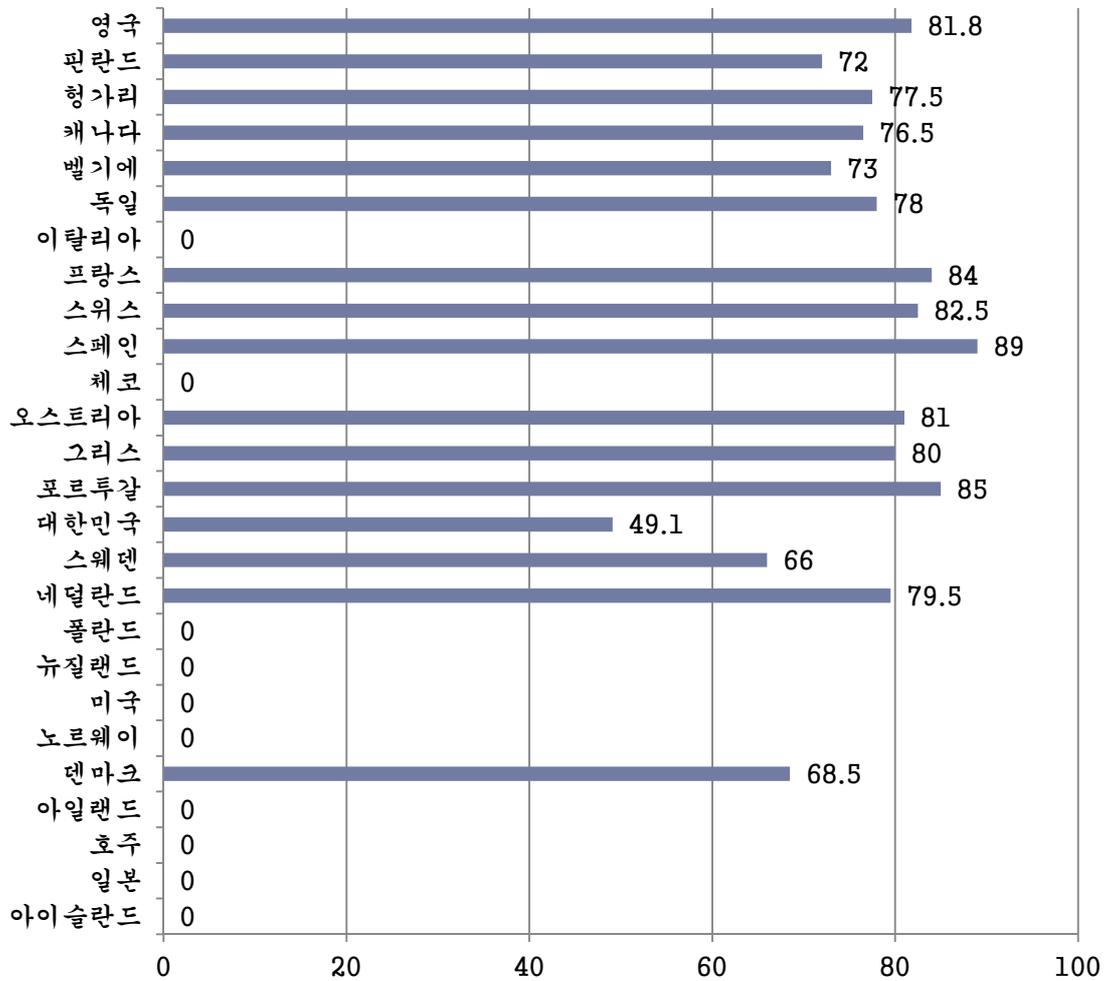
[성관계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성관계	24.88	7.60207	0.6	38.5

-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한 비율의 경우 한국은 49.1%로 OECD 국가 평균 76.46%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콘돔] 단위: %

### 콘돔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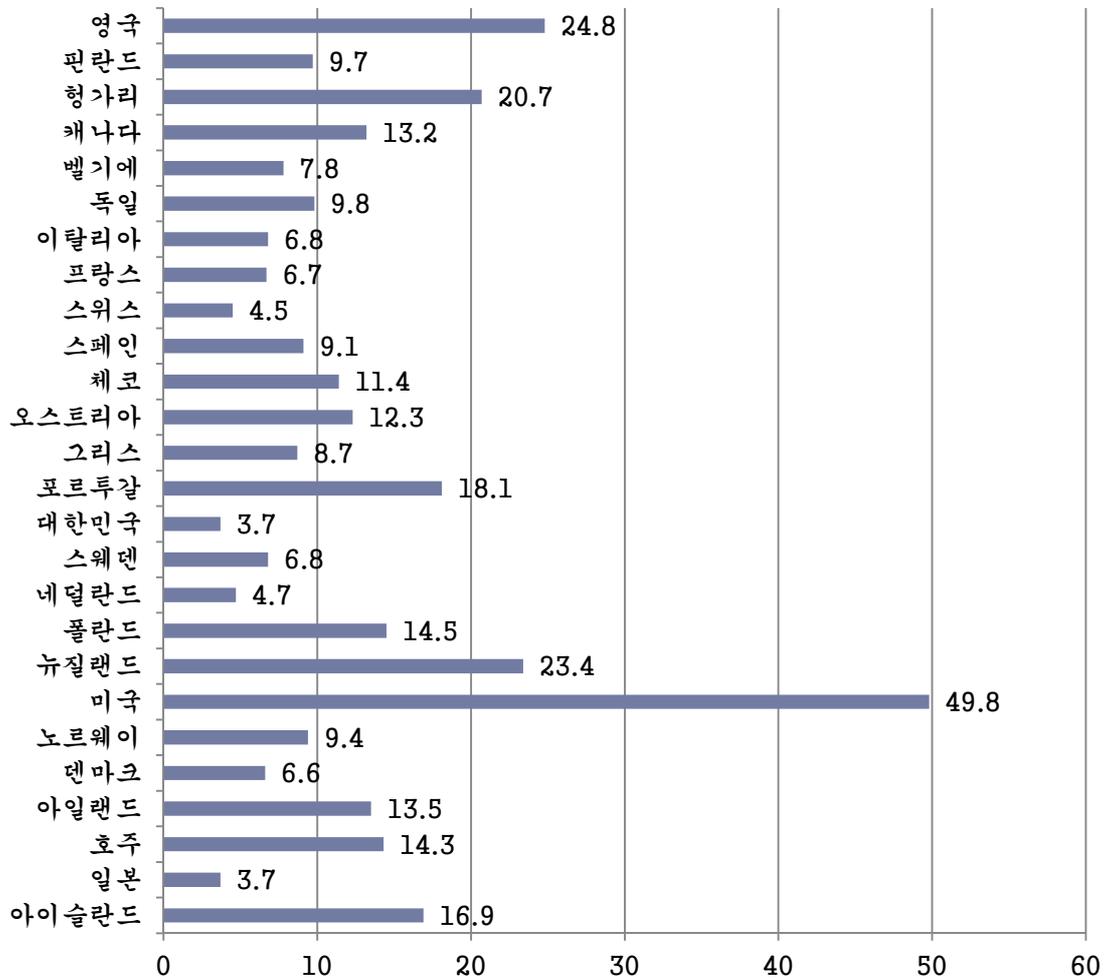
[콘돔사용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콘돔 사용	76.46	9.49062	49.1	89

- 한국 십대의 출산비율은 3.7%로 OECD 국가 평균(12.7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임신과 출산] 단위: %

## 임신과 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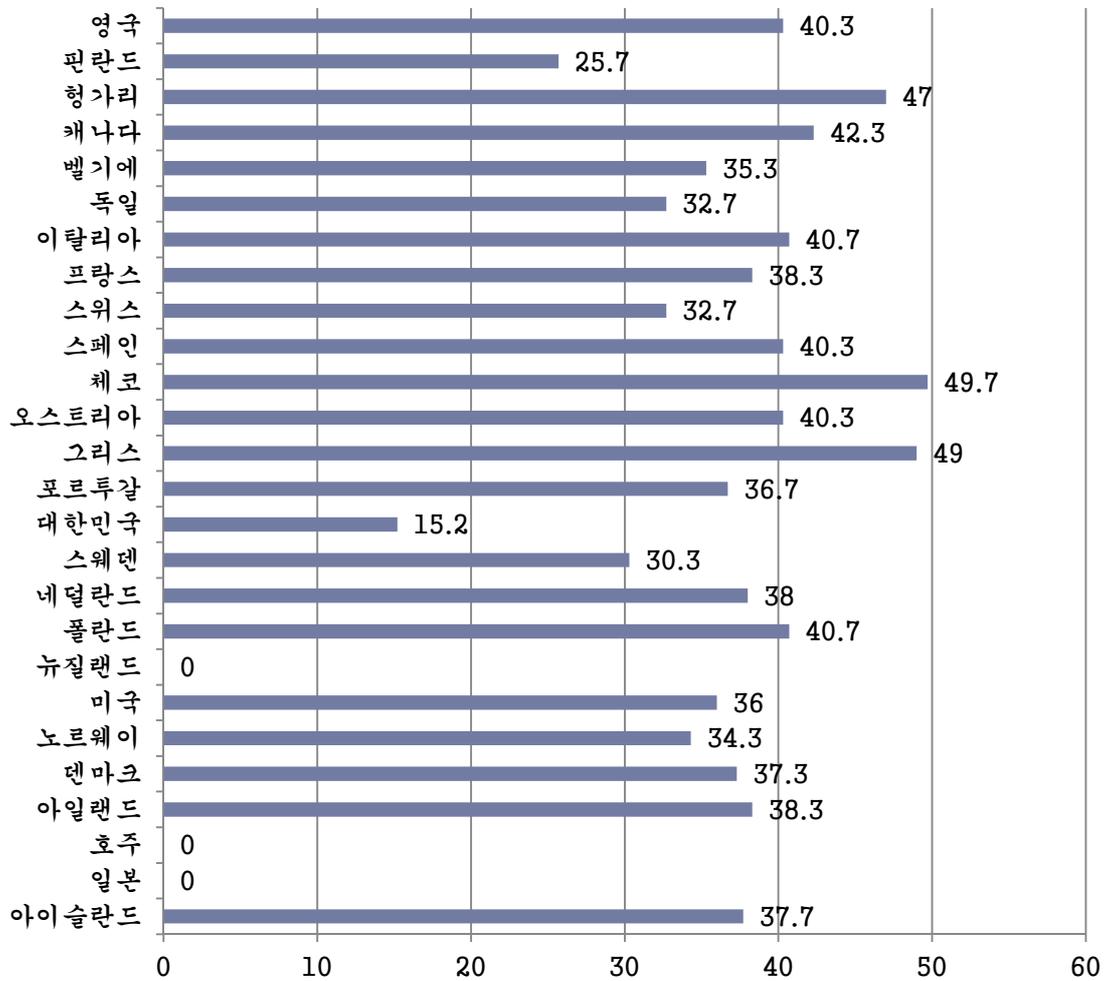
[임신과 출산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임신과 출산	12.73	9.53724	3.7	49.8

- 지난 12 개월간 싸움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의 경우 한국은 15.2%로 OECD 국가 평균(37.3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싸움] 단위: %

### 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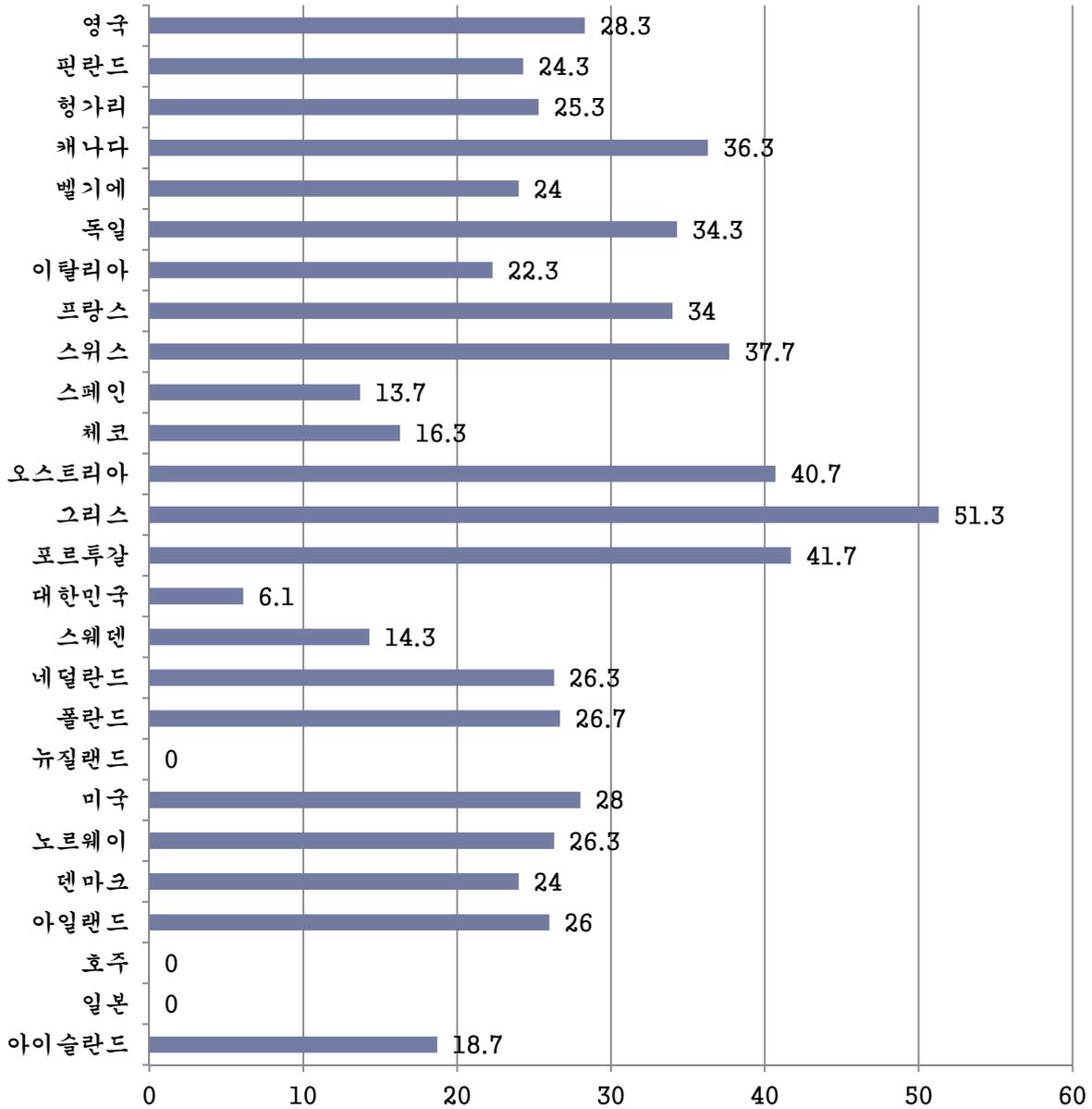
[싸움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싸움	37.34	7.36026	15.2	49.7

- 지난 12개월간 왕따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의 경우 한국은 6.1%로, OECD 평균 27.24%보다 크게 낮았다.

[왕따] 단위: %

### 왕따



[왕따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왕따	27.24	10.246	6.1	51.3

## VI. 주관적 행복

### 1.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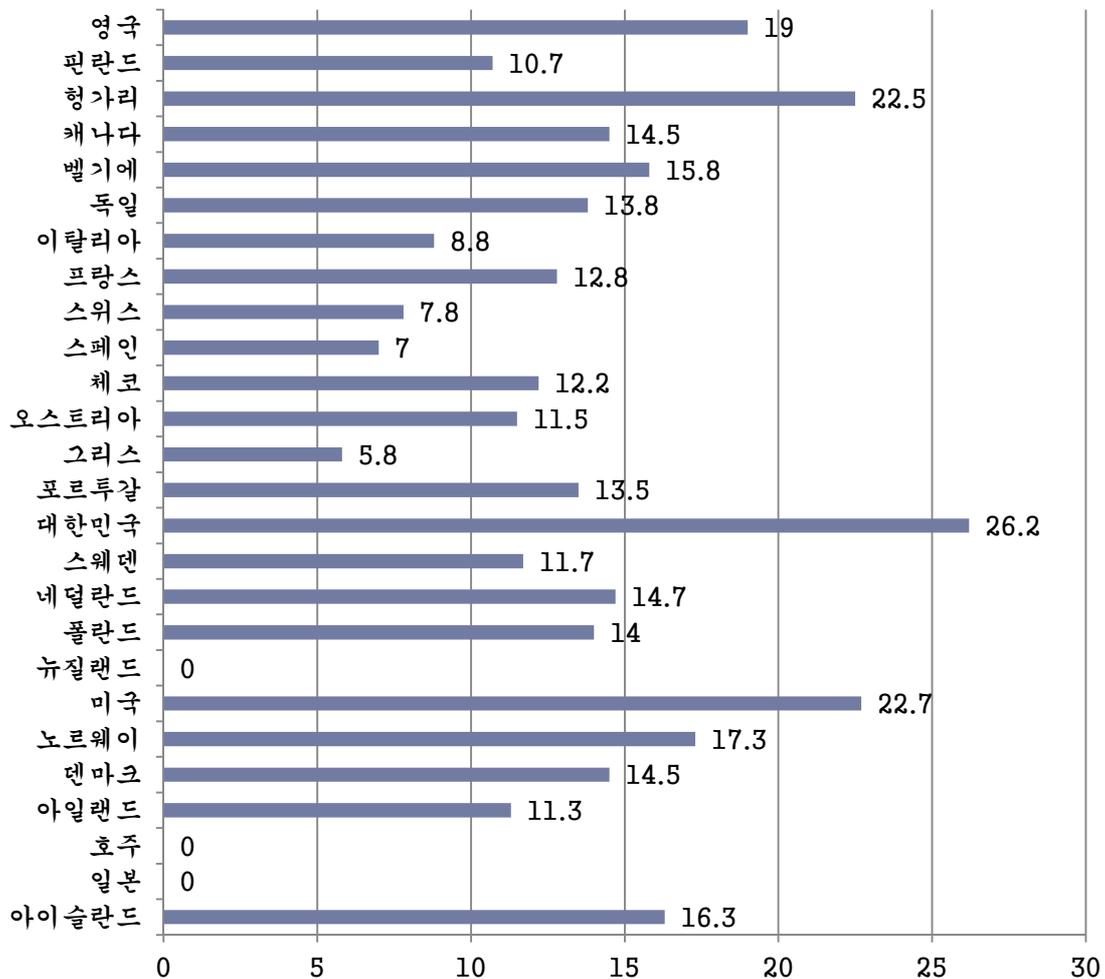
#### 주관적 건강

: 스스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동의 비율

-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동 비율은 한국이 26.2%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 단위: %

###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주관적 건강	14.10	5.03781	5.8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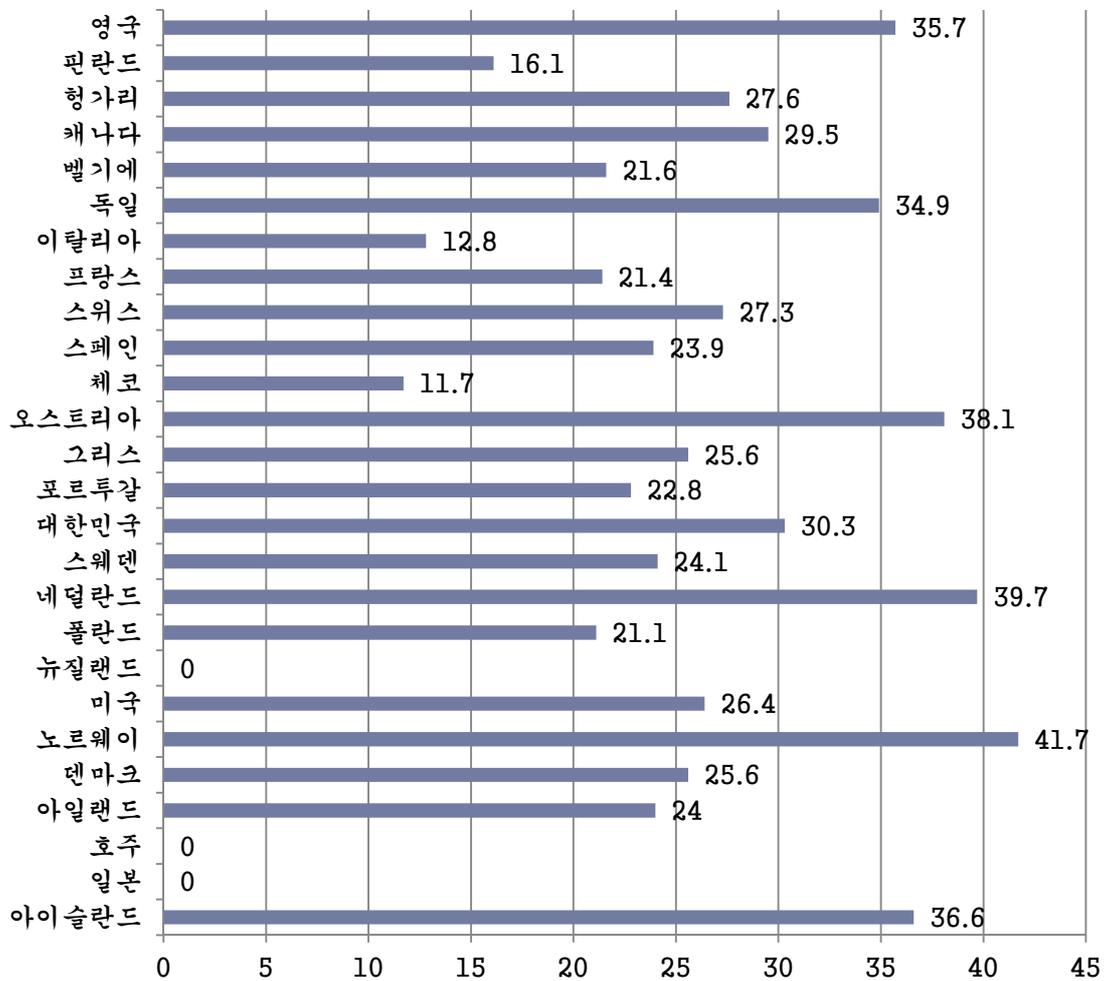
## 2.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고 응답한 비율

-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한국이 30.3%로 OECD 국가 평균(26.89%)보다 높았다.

[학교만족] 단위: %

### 학교 만족



[학교 만족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학교 만족	26.89	8.10998	11.7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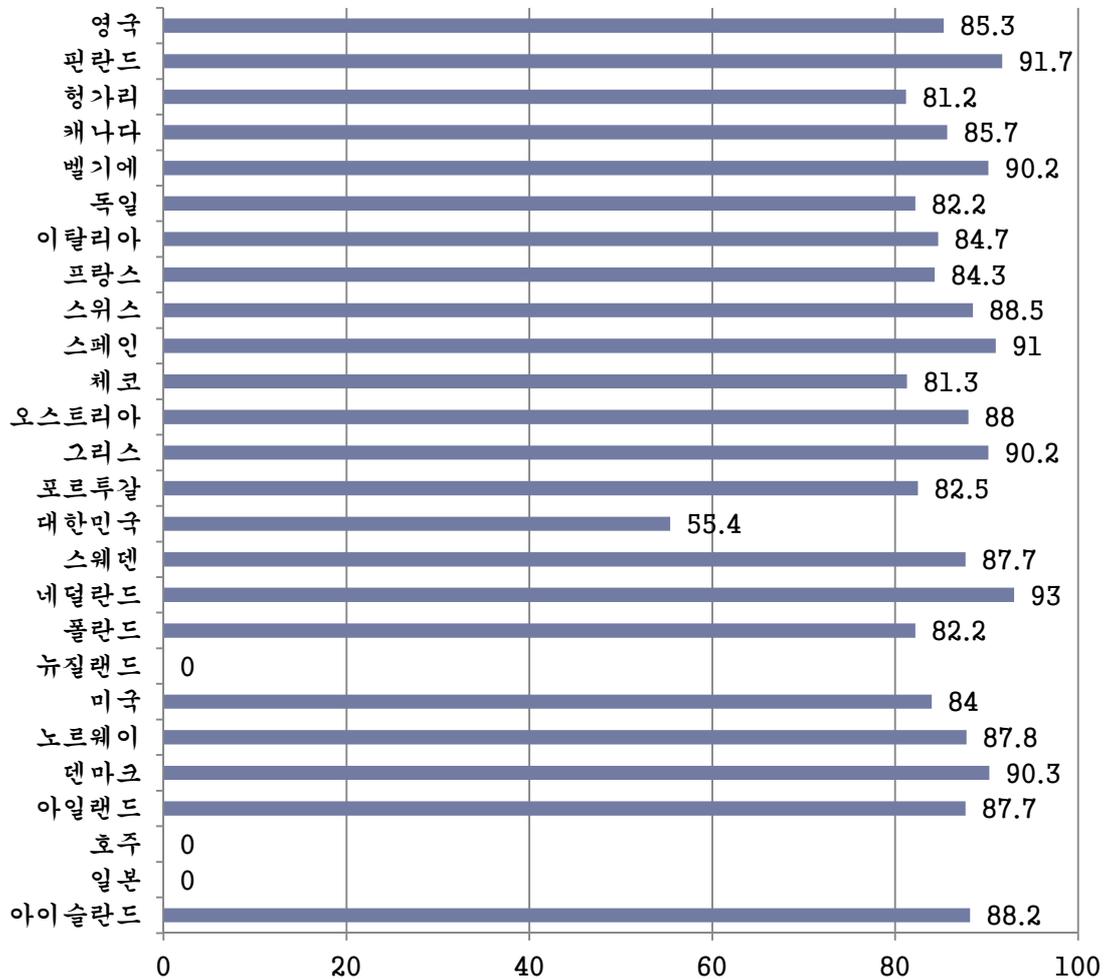
### 3. 개인 행복

**삶의 만족 척도**  
 :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 '만족한다' 와 '매우 만족한다' 고 응답한 비율)  
**부정적 생각**  
 : 자신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  
 :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  
 : 외롭다고 느끼는 학생의 비율

-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 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한국은 55.4%로, OECD 국가 평균(85.35%)보다 크게 낮았다.

[삶의 만족] 단위: %

## 삶의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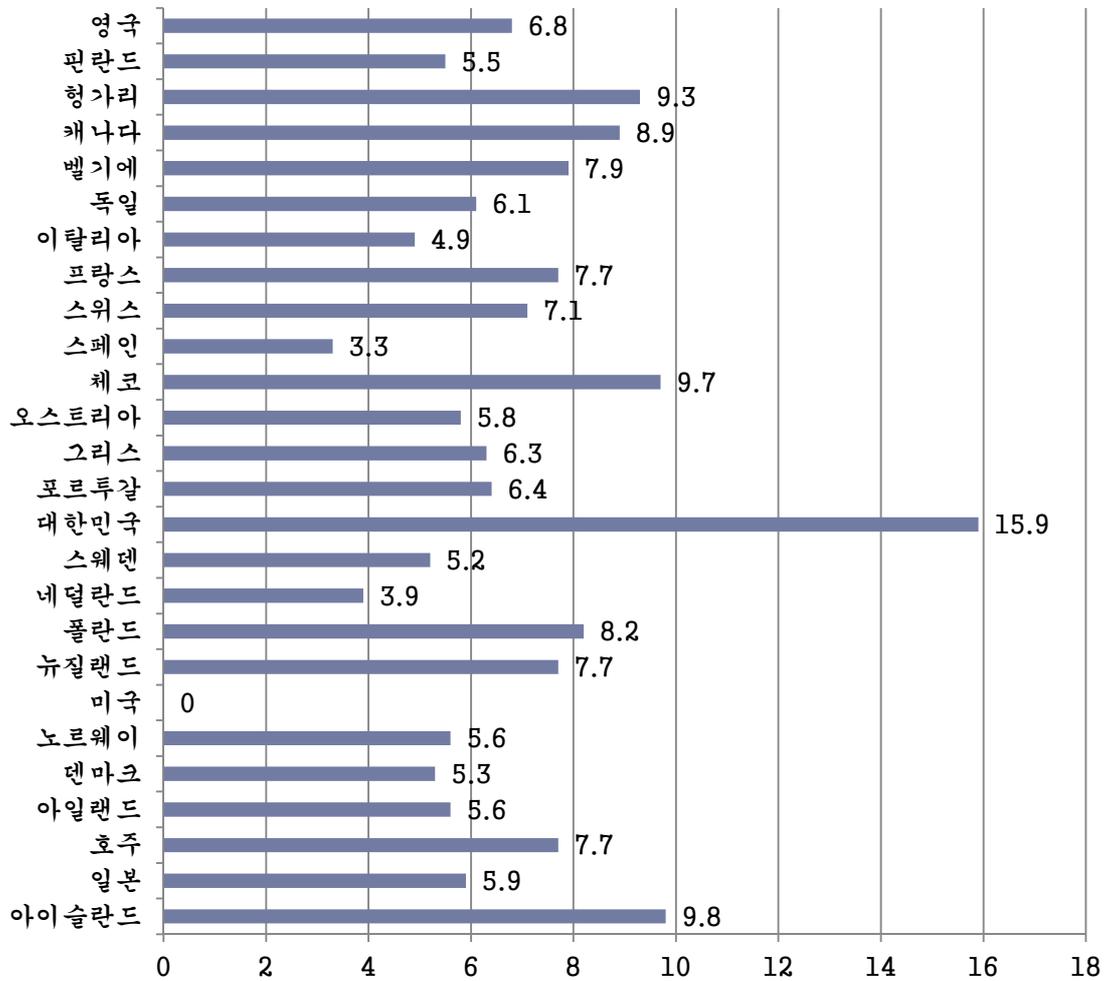
[삶의 만족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삶의 만족	85.35	7.40546	55.4	93

-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 비율의 경우 한국이 15.9%로, OECD 국가 평균(6.7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소속감] 단위: %

### 소속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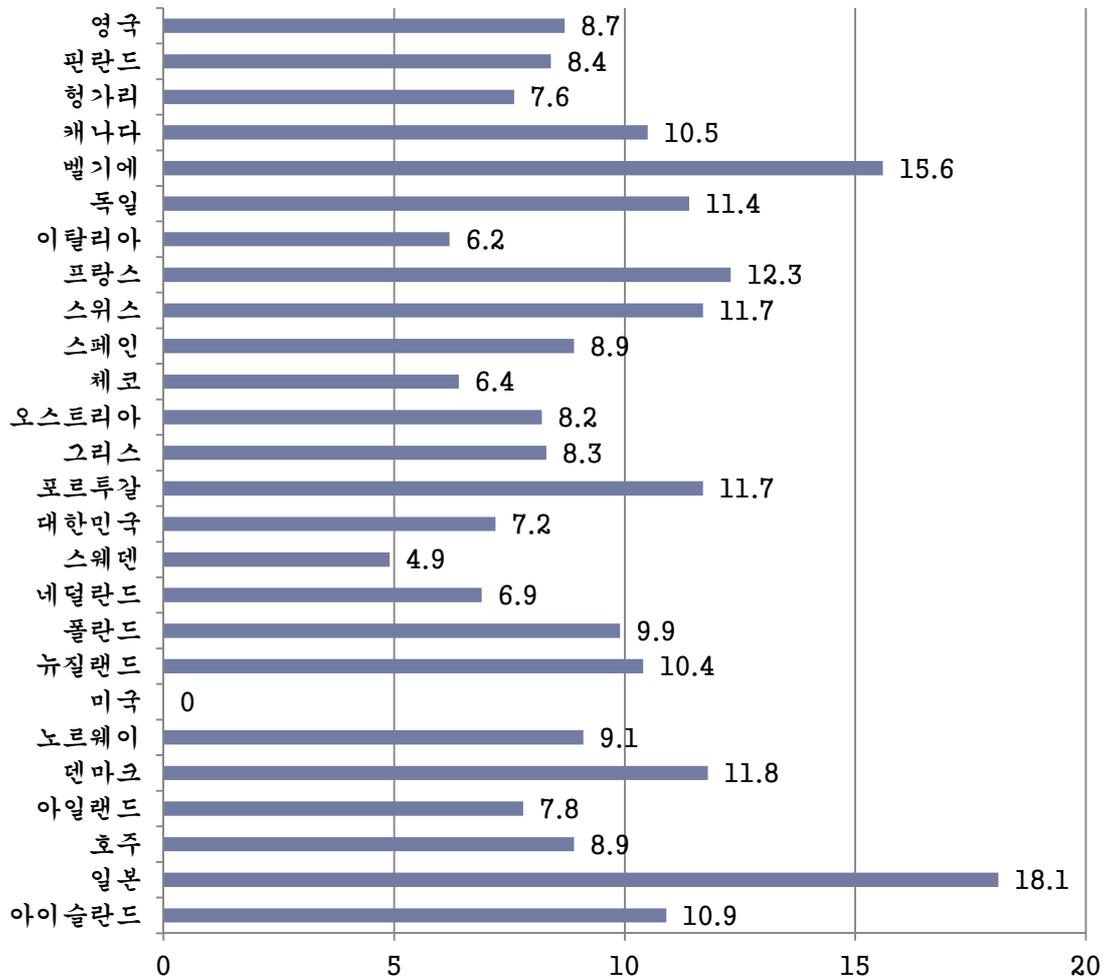
[소속감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소속감	6.79	2.82253	3.3	15.9

-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 고 느끼는 학생의 경우 한국은 7.2%로 OECD 국가 평균(9.3%)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어울림] 단위: %

## 어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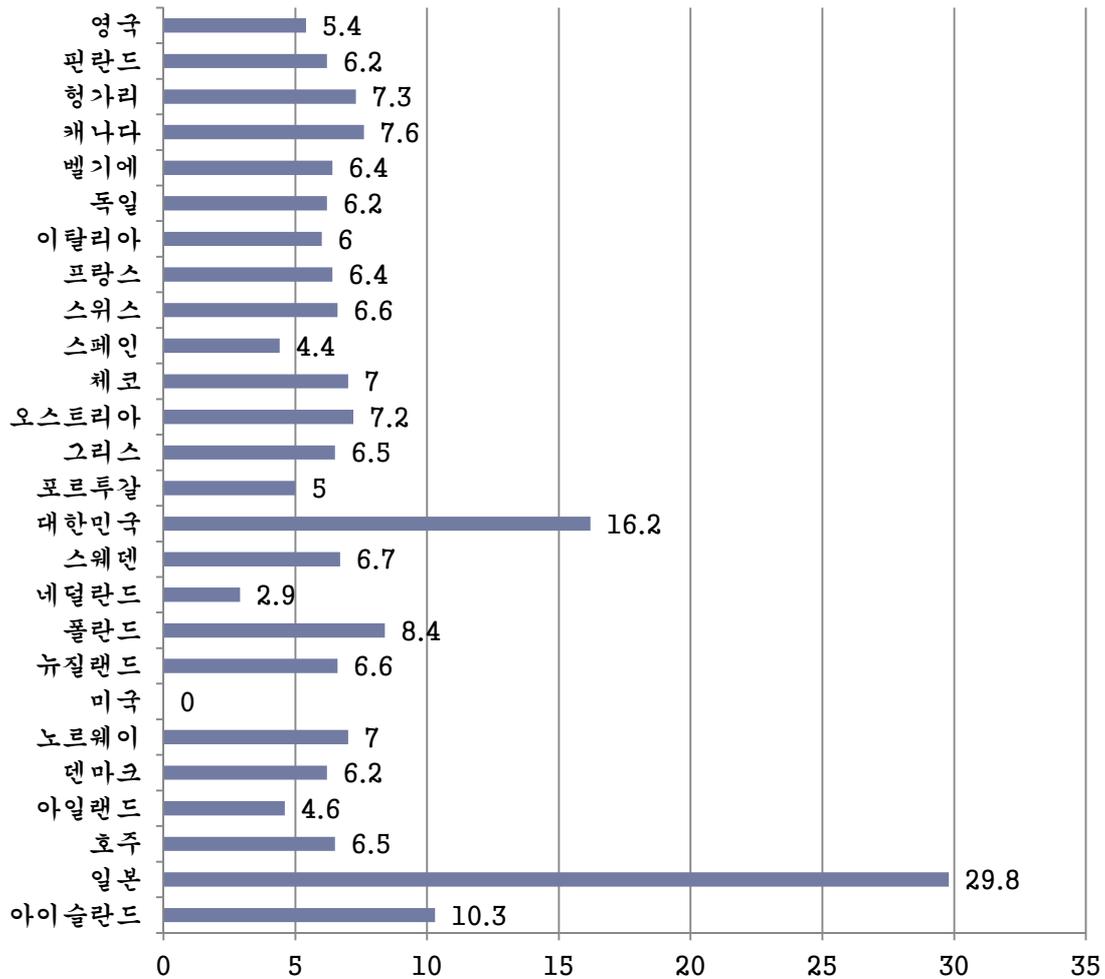
[어울림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소속감	9.30	3.44558	4.9	18.1

- ‘외롭다고 느끼는 학생 비율’의 경우 한국은 16.2%로, OECD 평균(7.4%)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외로움] 단위: %

### 외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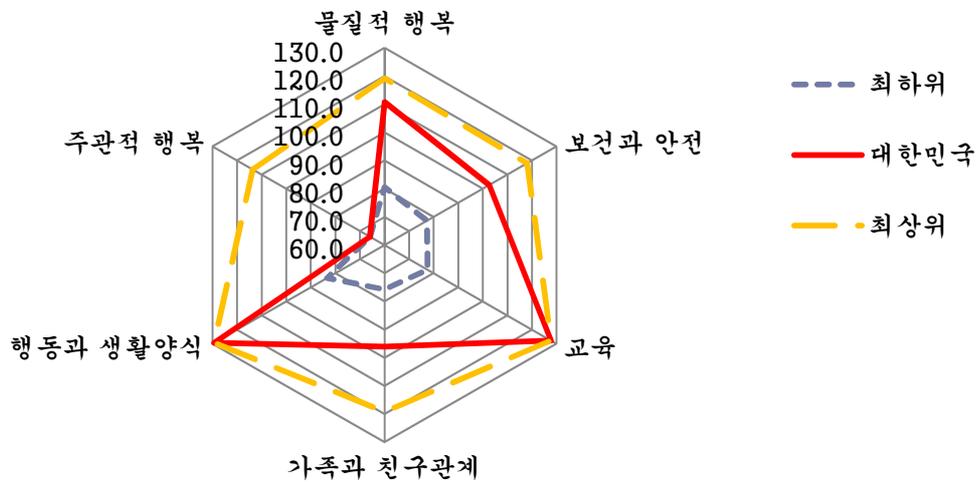
[외로움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외로움	7.44	5.30004	2.9	29.8

## VII. 행복지수

- 2011 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분석 결과, 한국은 교육 성취도를 측정하는 '교육 영역' 에서 127.8(OECD 국가 평균=100)로 최상위 점수를 기록하는 등 5 개 영역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유일하게 주관적 행복지수에서만 현저한 꼴찌를 기록했다.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한국과 OECD 국가 비교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최하위국	80.5	77.3	77.5	75.8	83.4	65.98
대한민국	110.7	102.6	127.8	96.1	129.3	65.98
최상위국	119.2	118.0	127.8	119.2	129.3	113.63

## 2011년 영역별 OECD 국가의 행복지수

(평균 = 100)

국가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한국	110.7	102.6	127.8	96.1	129.3	65.98
포르투갈	93.0	88.6	99.4	116.6	110.8	97.84
그리스	95.6	105.3	94.3	94.2	97.2	112.47
오스트리아	113.5	85.6	77.5	95.0	93.8	108.20
체코	111.9	105.2	99.0	87.6	90.3	96.00
스페인	106.9	101.9	93.0	104.8	94.0	113.63
스위스		103.0	95.1	108.6	103.0	106.95
프랑스	104.5	104.2	101.1	97.2	93.8	96.85
이탈리아	100.7	102.8	91.1	119.2	99.1	106.10
독일	95.4	104.3	99.0	98.9	97.5	100.68
벨기에	98.3	96.6	109.4	104.6	97.9	92.56
캐나다		85.5	106.4	84.9	94.4	97.09
헝가리	92.1	94.4	93.9	99.5	83.4	86.70
핀란드	119.2	114.4	106.5	95.1	87.7	104.73
영국	93.2	95.1	83.4	94.0	98.3	96.78
아이슬란드		118.0	100.3	100.8		95.40
일본	99.8	106.1				
호주		98.5	102.3			
아일랜드		101.4	106.2	103.9		105.95
덴마크		94.4	93.5	103.1	112.1	100.04
노르웨이		106.6	99.1	107.6		101.41
미국	80.5	77.3	102.3	75.8		102.58
뉴질랜드	94.8	85.5	96.1			
폴란드	85.9	97.2	112.1	95.6		94.91
네덜란드	104.0	107.4	113.8	114.9	112.8	110.33
스웨덴		118.2	97.4	102.1	118.2	106.81

\* 지수가 비어 있는 곳은 관련 데이터를 구할 수 없는 경우임.

# 제 4 장

## 한국과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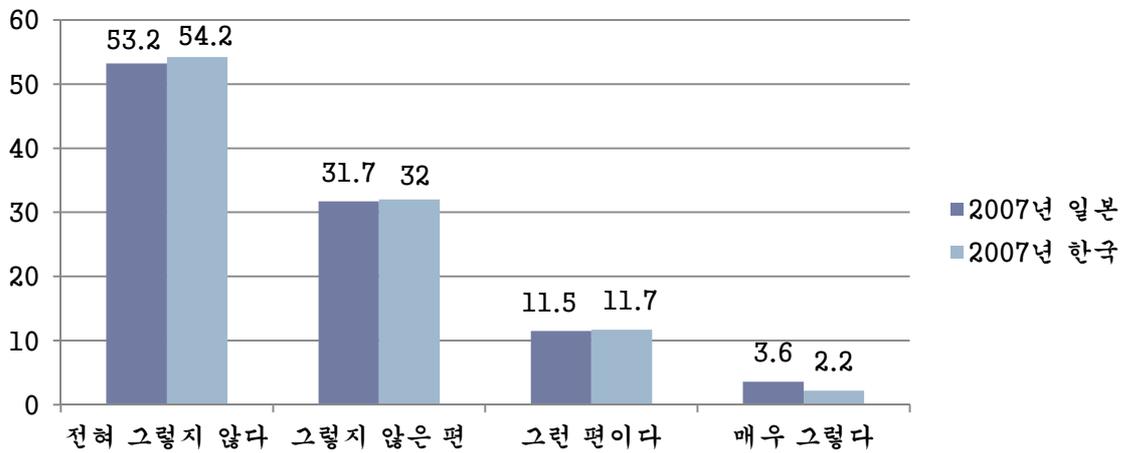
### 청소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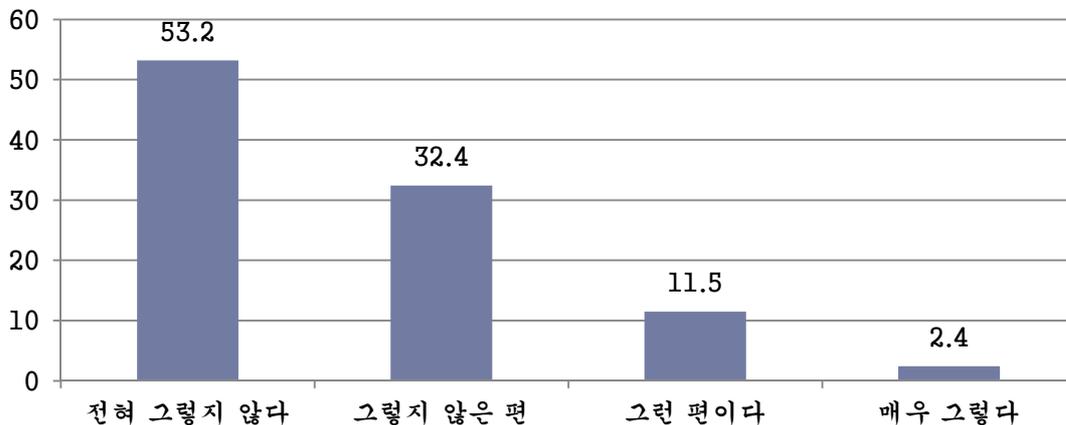
## 1. 친구관계

한국과 일본 청소년 가운데 10%를 넘는 학생이 친구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친구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편’, 또는 ‘매우 느낀다’고 응답한 학생은 한국이 13.9%로, 일본(15.1%)보다 약간 낮았다. 2011년 조사에서도 한국 수치는 2007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 2007년 한·일 청소년의 친구관계: 외로움 느끼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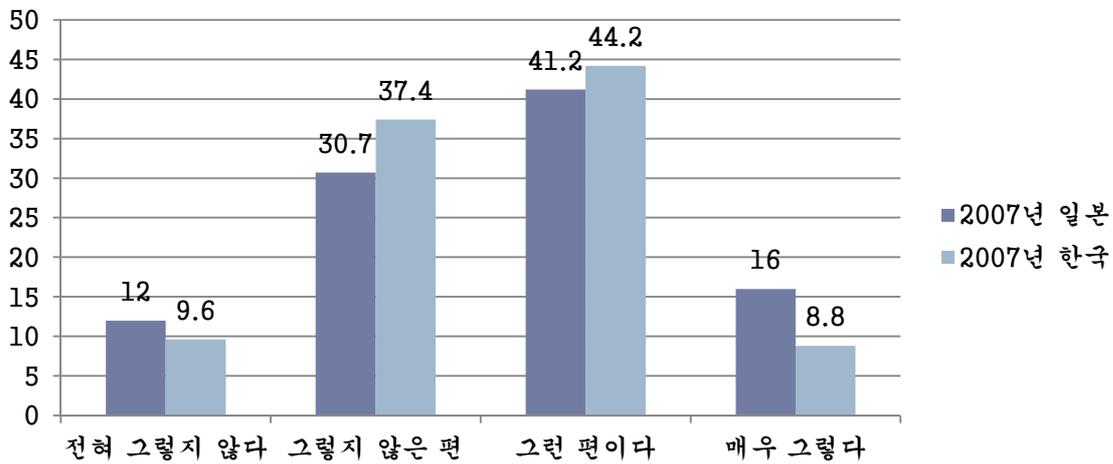


### 2011년 한국 청소년 친구관계: 외로움 느끼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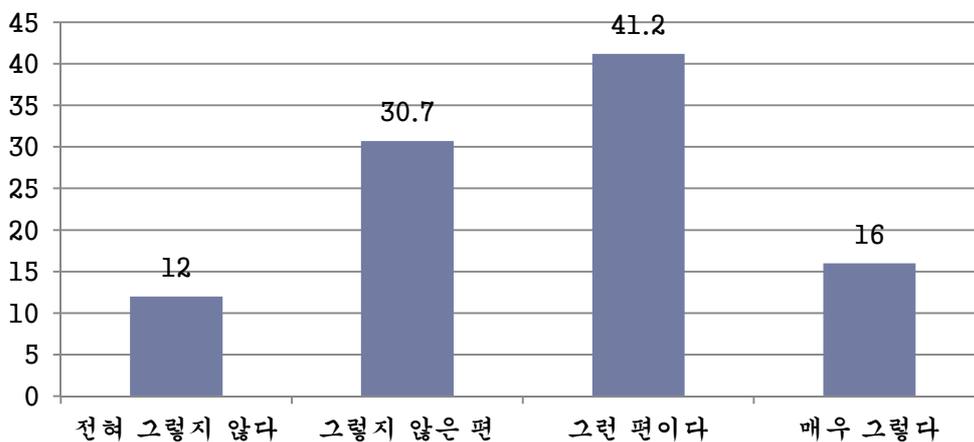


친구들과 관계에서 화를 경험하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2007년 한국 청소년이 8.8%로, 일본(16%)보다 두 배 가까이 낮았다. 그러나 2011년 조사에서는 ‘매우 화가 난다’고 답한 한국 청소년 비율이 1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 한·일 청소년의 친구관계: 화 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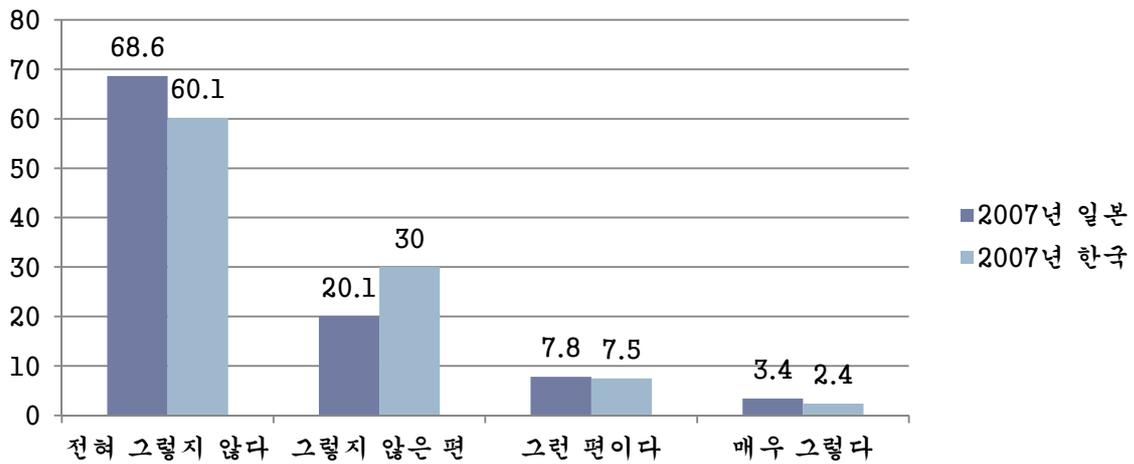


### 2011년 한국 청소년 친구관계: 화 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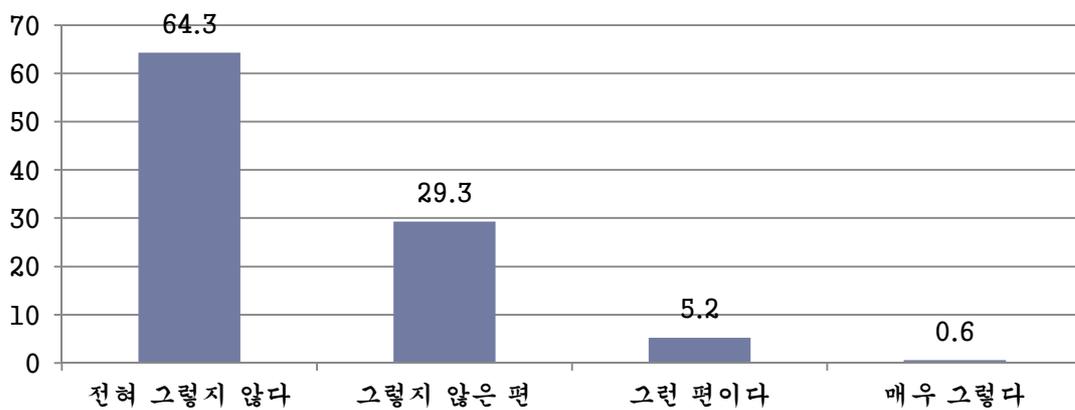


‘자신의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 고 생각하는 청소년 비율이 2007 년 조사에서 한국은 9.9%로, 일본(11.2%)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2011년에는 ‘다른 친구들이었으면 한다’ 는 한국 청소년 비율은 5.8%로 감소했다.

### 2007년 한·일 청소년의 친구관계: 다른 친구들이었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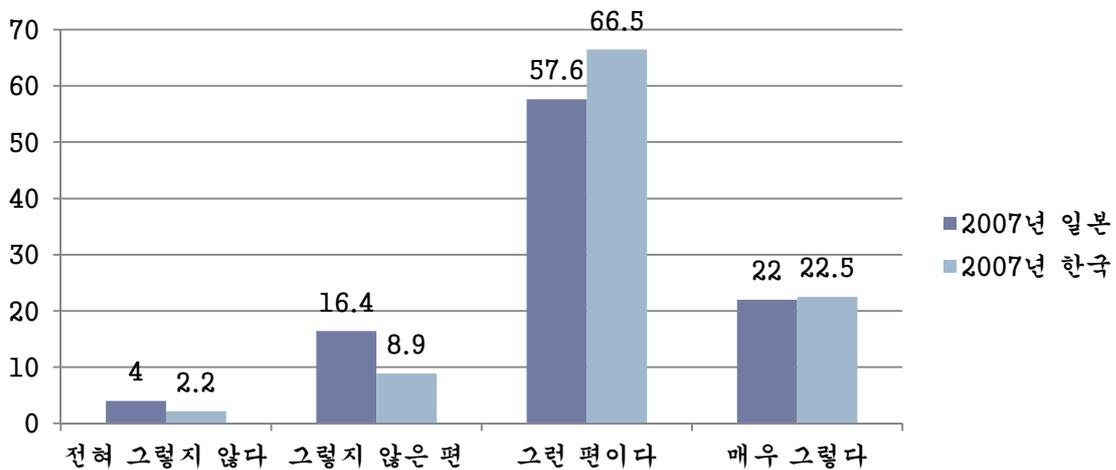


### 2011년 한국 청소년의 친구관계: 다른 친구들이었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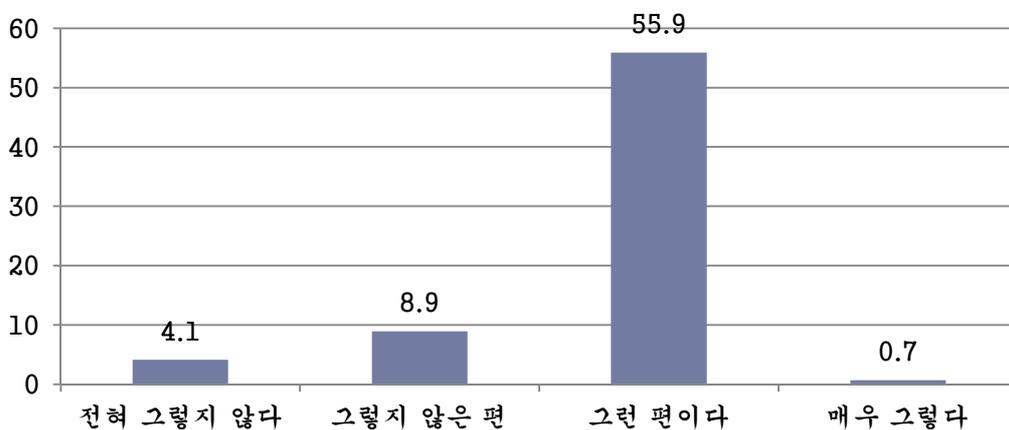


‘친구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편’ 또는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2007 년 한국은 89%로, 일본(79.6%)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11 년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56.6%로 크게 떨어졌다.

### 2007 년 한·일 청소년의 친구관계: 나를 이해함



### 2011 년 한국 청소년의 친구관계: 나를 이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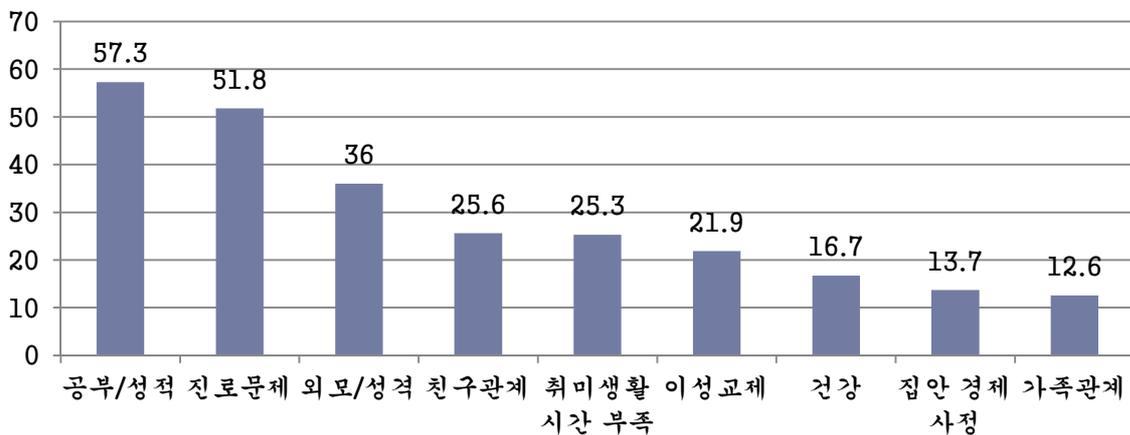


## 11.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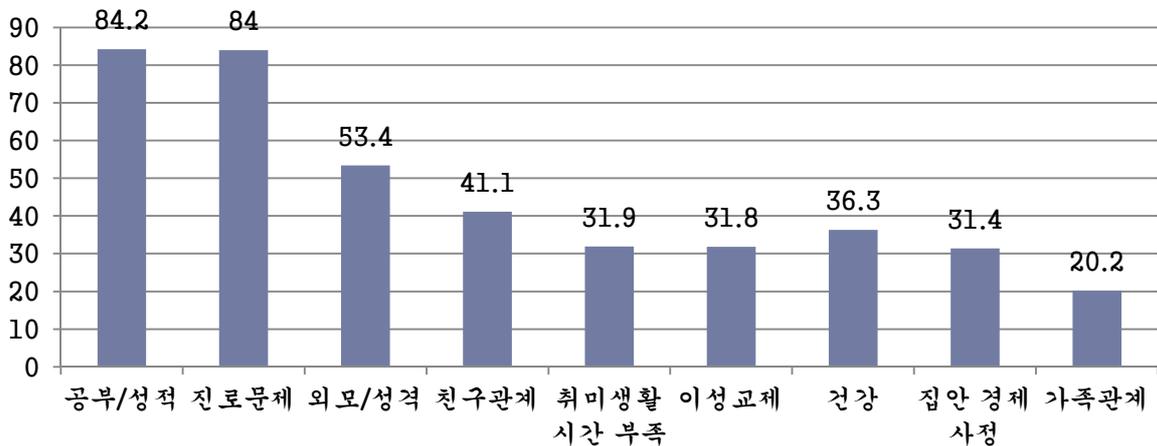
### 1. 한일 청소년의 고민거리

한국과 일본 고등학생은 2006년 조사에 따르면 공부와 성적, 진로문제, 외모, 친구관계, 취미생활 부족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고등학생의 경우 공부와 성적, 진로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 2006년 일본 청소년의 고민거리



#### 2006년 한국 청소년의 고민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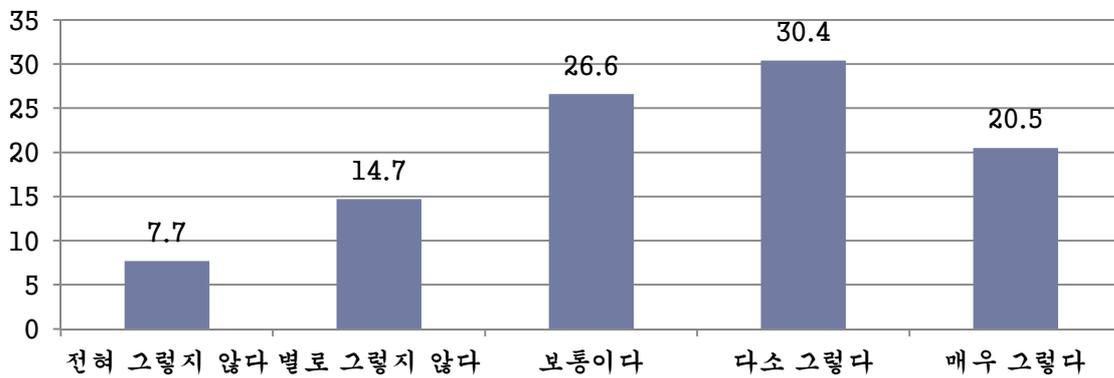


## 2. 한국 청소년의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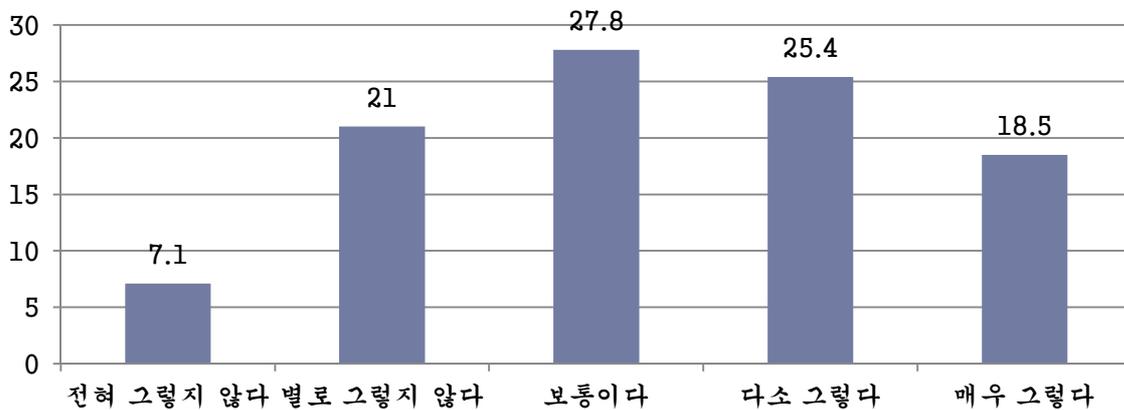
### 1) 성적/ 공부 스트레스

2011 년 조사에서 한국 청소년(고등학생) 가운데 약 절반이 학교 성적이나 공부, 숙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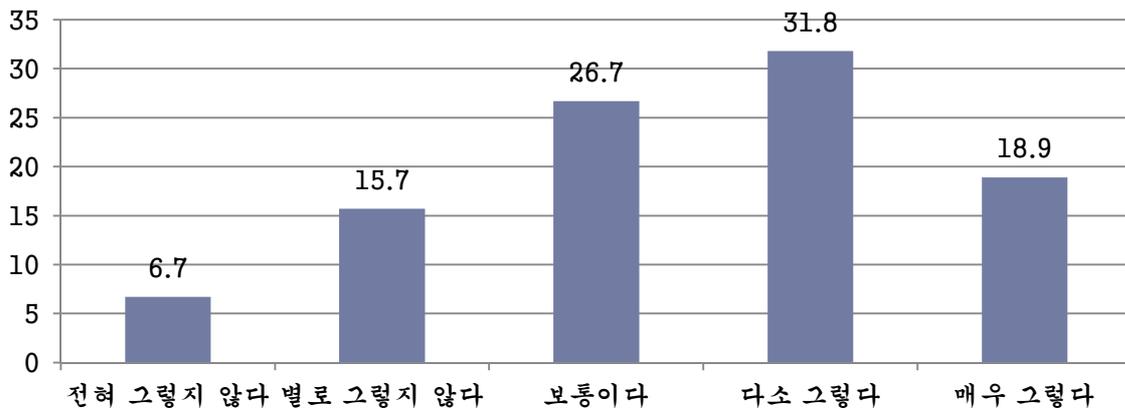
#### 학교 성적 스트레스



#### 공부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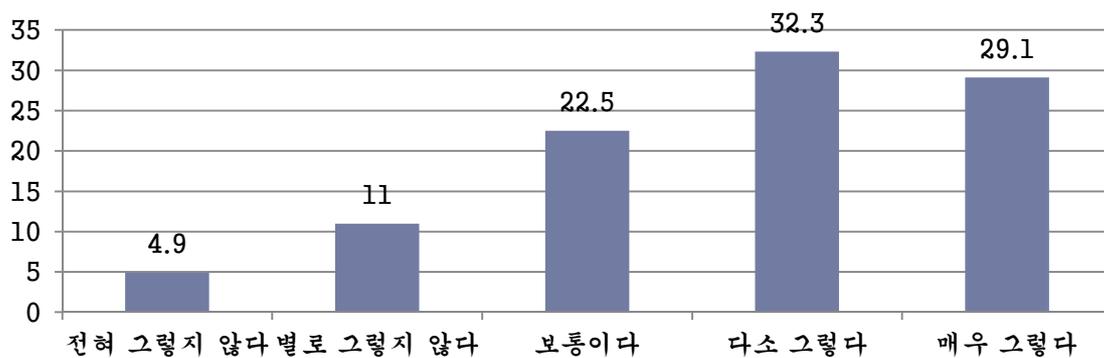
## 숙제/시험 스트레스



## 2) 진로문제 스트레스

2011 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고등학생 가운데 60% 이상이 대학입시나 취업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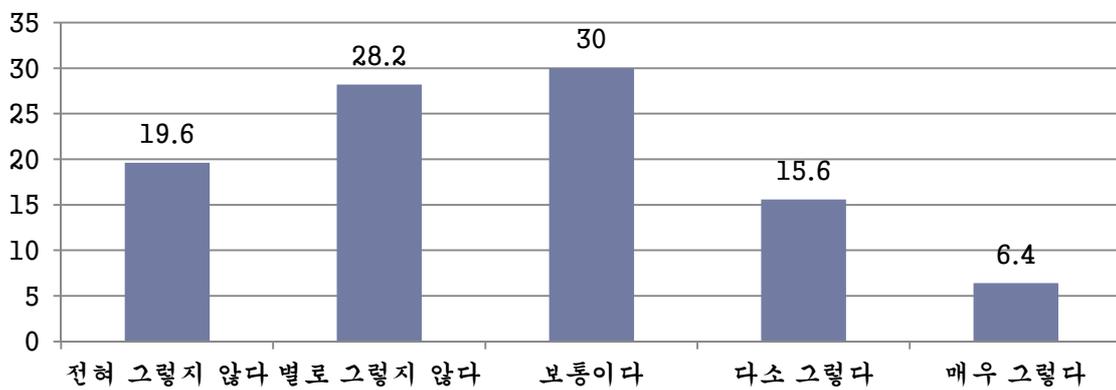
## 대학입시/취업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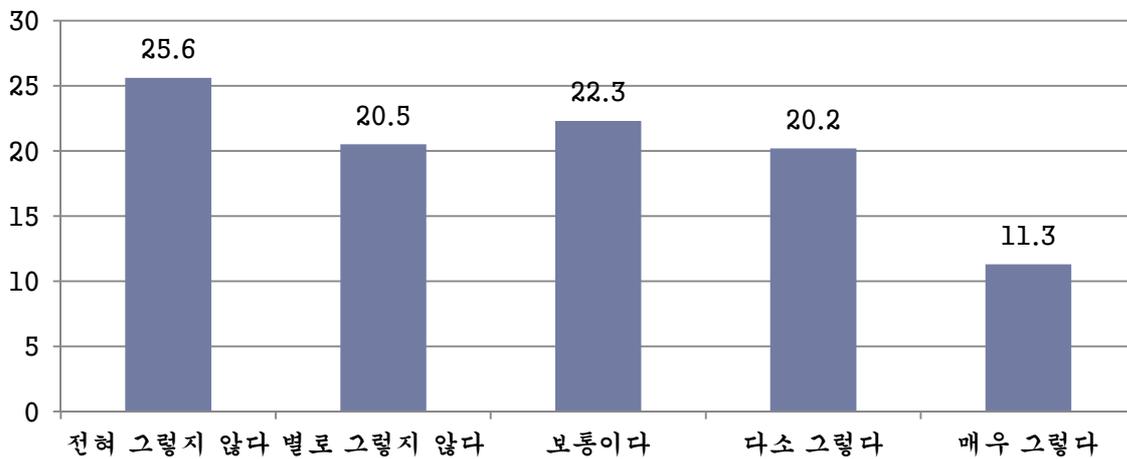
### 3) 외모/성격 스트레스

2011 년 조사에서는 한국 고등학생 가운데 약 20%가 얼굴 생김새나 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를 넘는 학생들이 몸무게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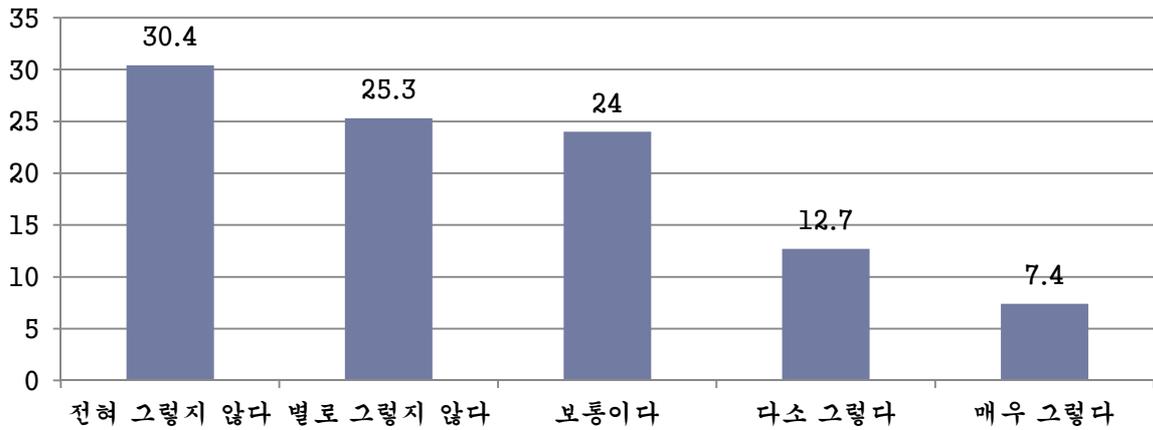
#### 얼굴 생김새 스트레스



#### 몸무게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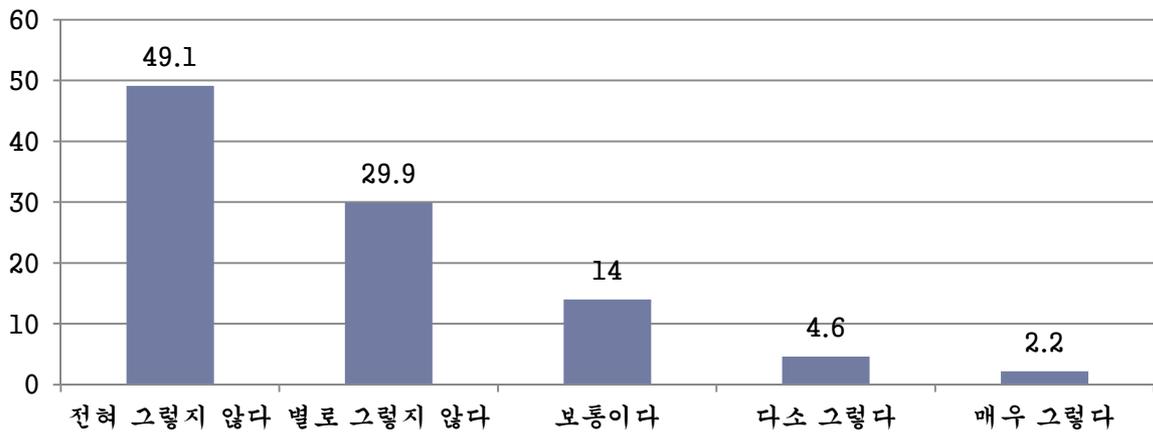
## 키 스트레스



### 4) 친구관계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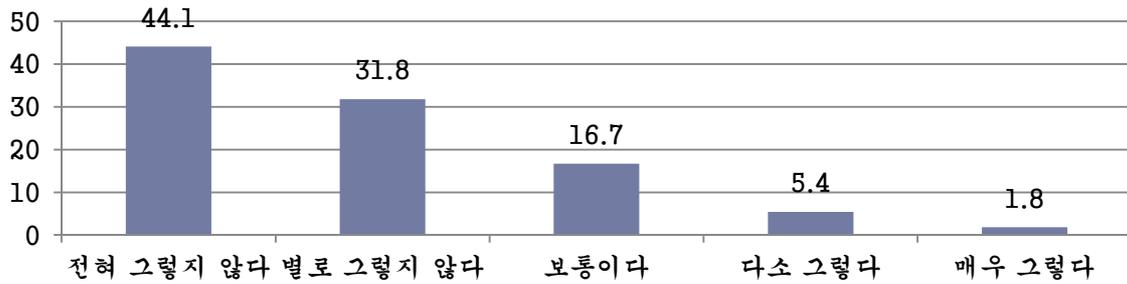
2011 년 조사에 따르면 친구들이 놀리거나 무시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한국 청소년 비율은 6.8% 수준이었다.

### 친구 스트레스: 놀림/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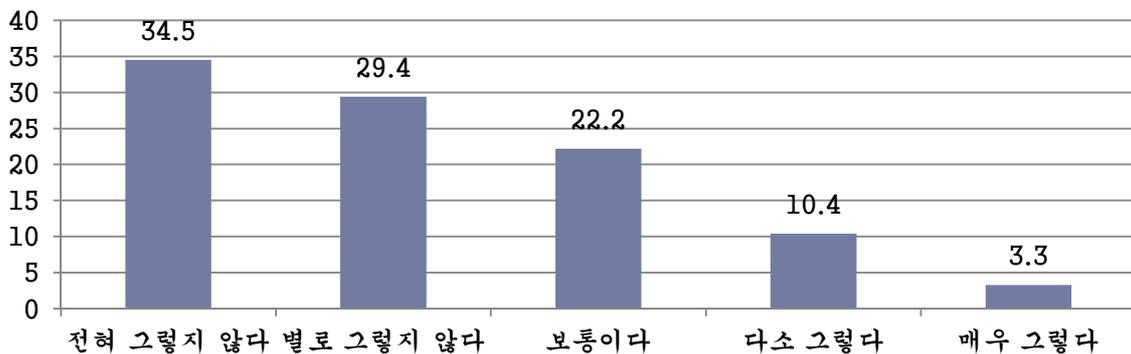
한국 청소년 가운데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비율은 7.2% 수준이었다.

### 친구 스트레스: 인정받지 못함



한편, 친구 관계에서 느끼는 열등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한국 청소년 비율은 13.7%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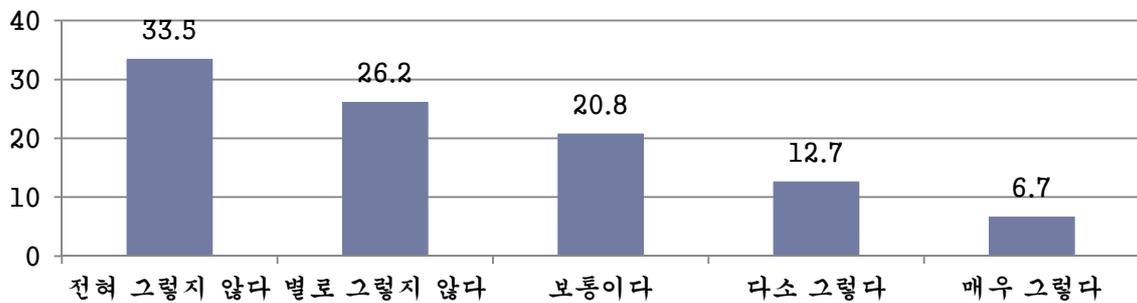
### 친구 스트레스: 열등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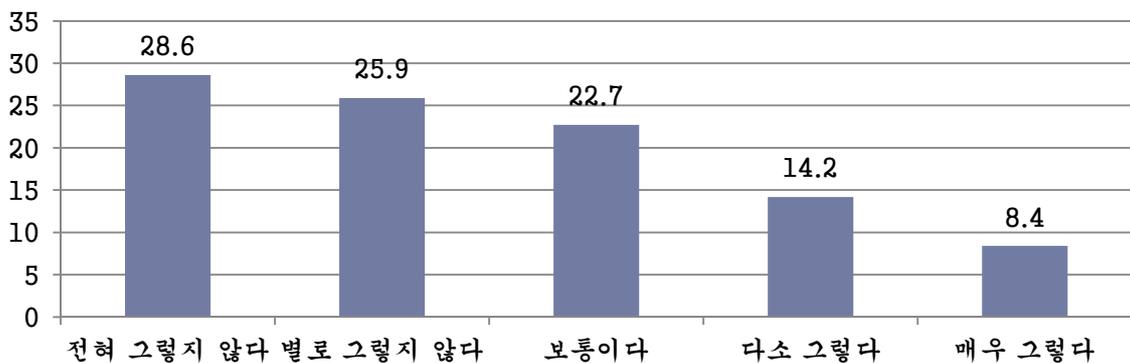
## 5) 경제/용돈 관련 스트레스

2011 년 조사에서 용돈부족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한국 청소년 비율은 19.4%로 나타났다. 또한, 갖고 싶은 물건을 소유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는 22.6% 수준이었다.

### 용돈 부족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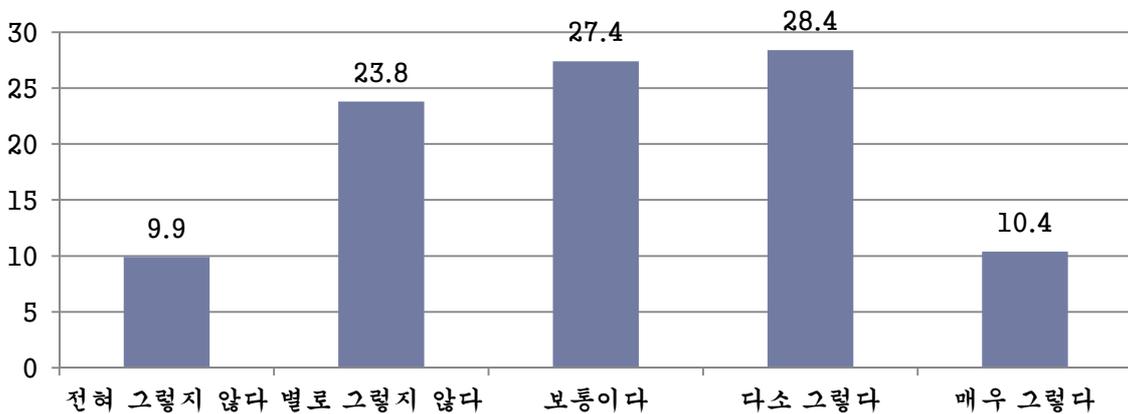
### 물건 갖지 못한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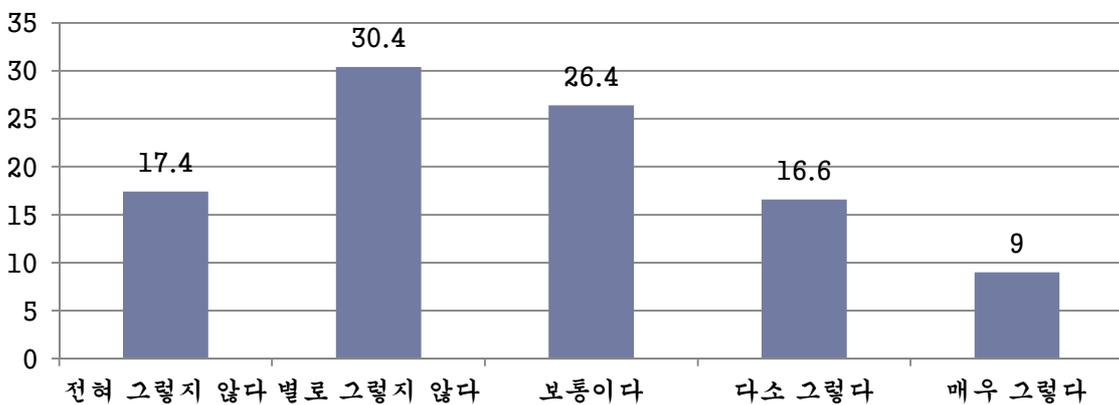
## 6) 부모관계 스트레스

2011 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 가운데 약 39%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의견충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 중 25.6%는 부모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 스트레스: 의견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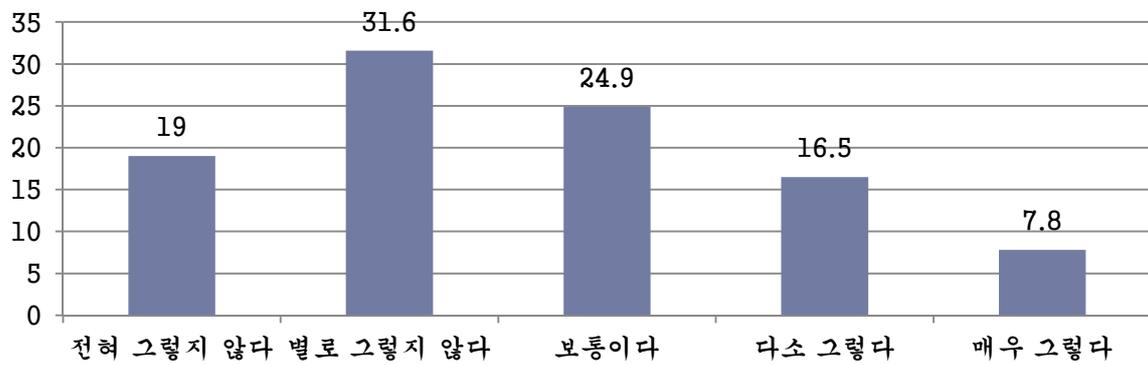


### 부모 스트레스: 지나친 간섭



2011 년 조사에서 부모와 대화가 통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한국 청소년 비율도 24.3% 수준으로 나타났다.

## 부모 스트레스: 대화 불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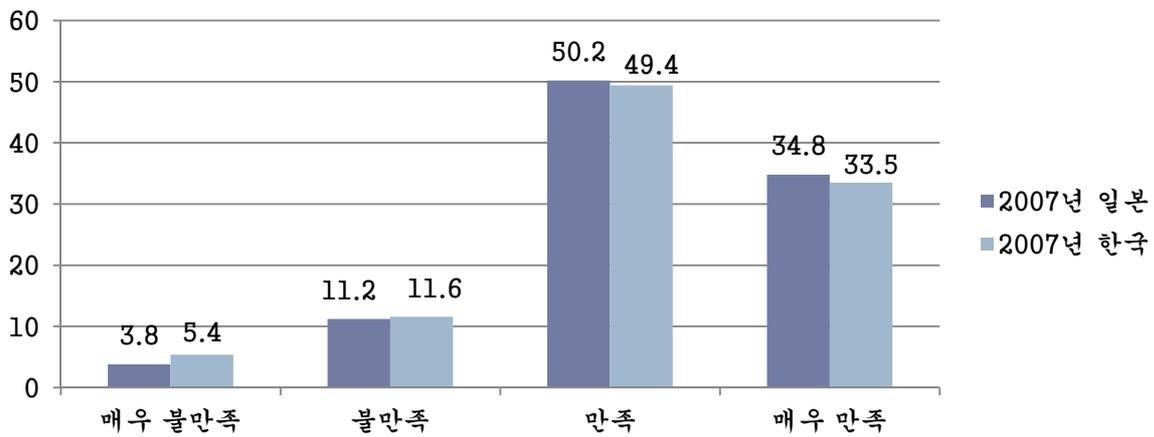


### III. 주관적 만족 및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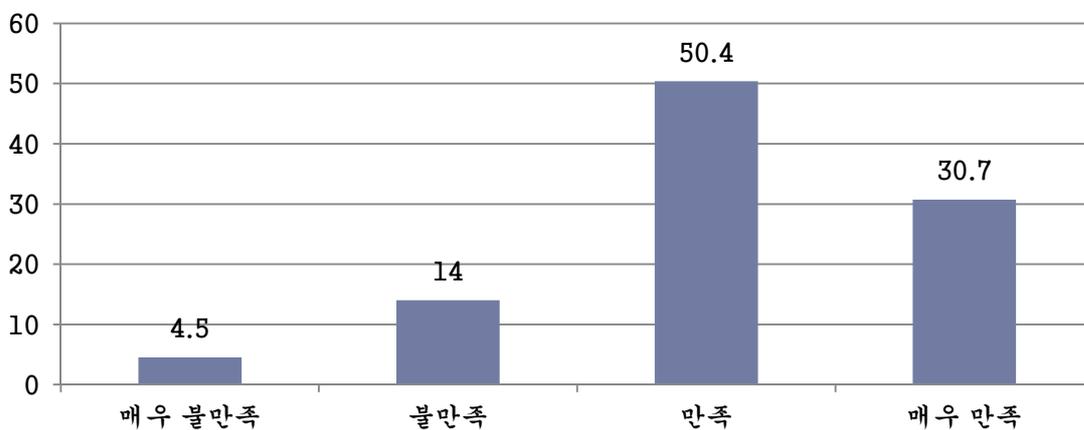
#### 1. 삶에 대한 만족도

한국과 일본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조사에서 가정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33.5%로 일본(34.8%)보다 약간 낮았다. 2011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한국 청소년 비율이 30.7%로 2007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 2007년 한·일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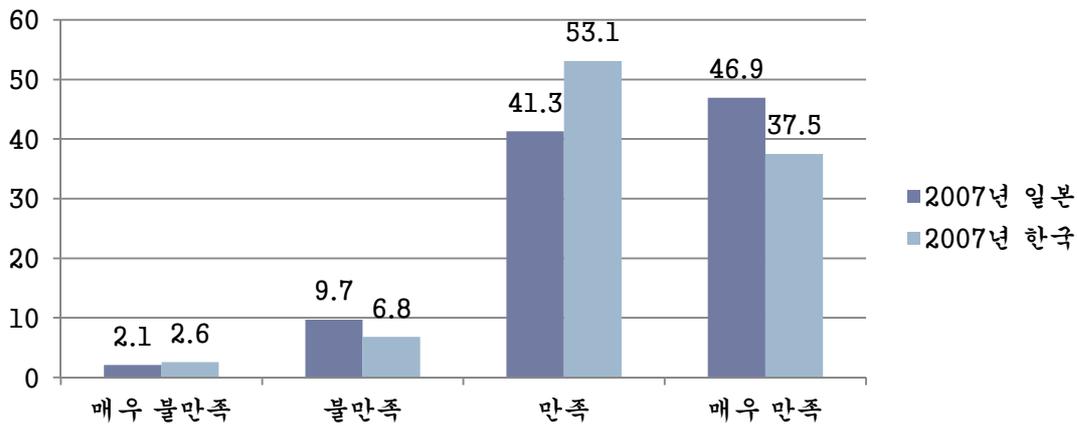


#### 2011년 한국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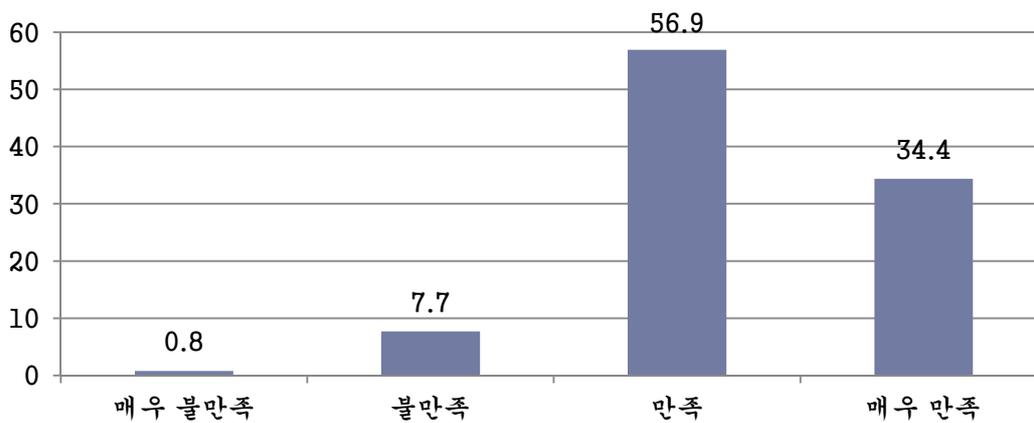


전반적인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일본 청소년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조사에서 친구관계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일본이 46.9%로 한국의 37.5%보다 10% 가까이 높았다. 2011년 조사에서도 한국 청소년이 친구관계에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34.4% 수준에 그쳤다.

### 2007년 한·일 청소년의 친구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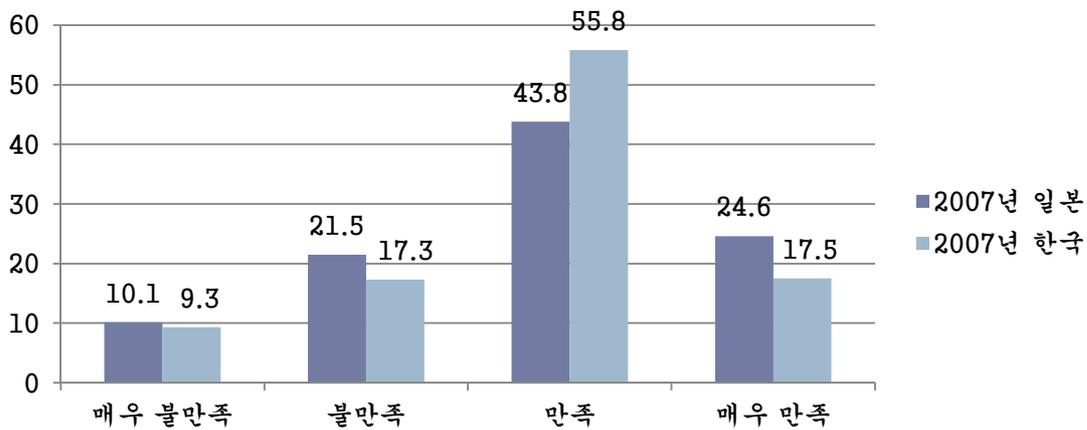


### 2011년 한국 청소년의 친구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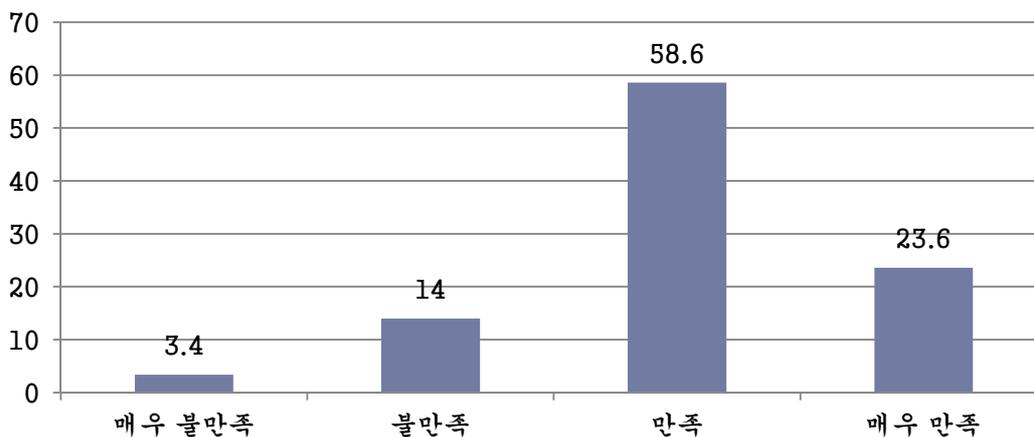


한국과 일본 청소년은 학교생활 만족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2007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매우 만족’ 하는 비율은 17.5%로 일본의 24.6%보다 낮았다. 그러나 2011년 조사에서는 학교생활에 매우 만족하는 한국 청소년 비율이 23.6%로 2007년 일본 수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 한·일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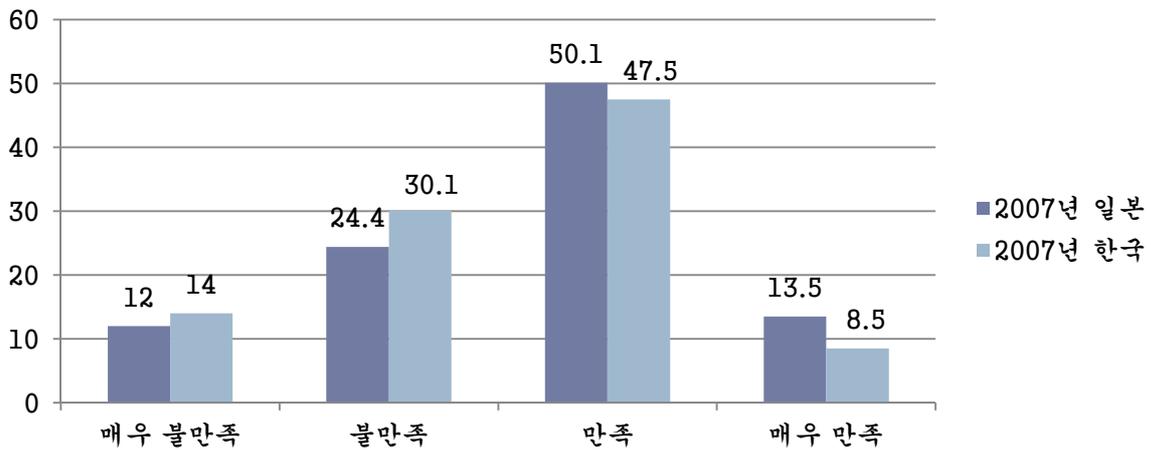


### 2011년 한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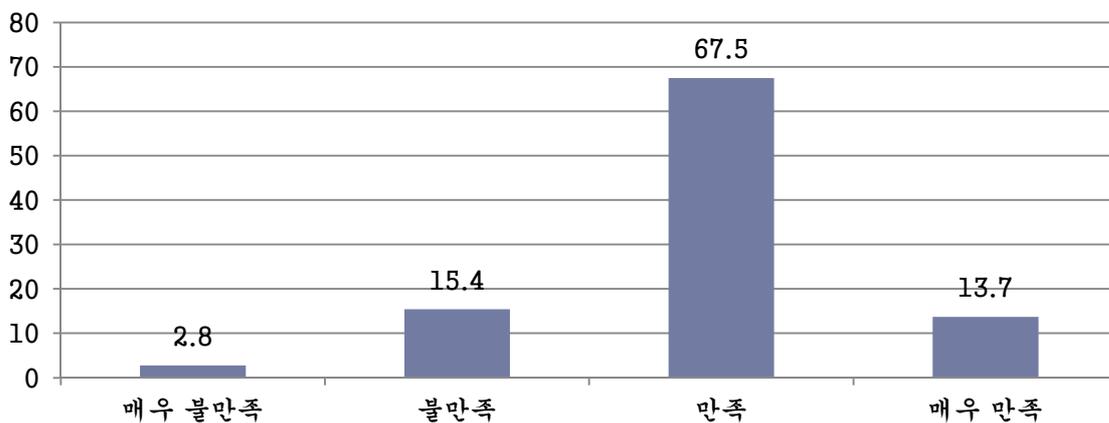


2007 년 조사에서 한국과 일본 청소년은 교사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한국 청소년이 교사관계에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8.5%로 일본 수치(13.5%)보다 낮았다. 그러나 2011 년 조사에서는 교사 관계에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13.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7 년 한·일 청소년의 교사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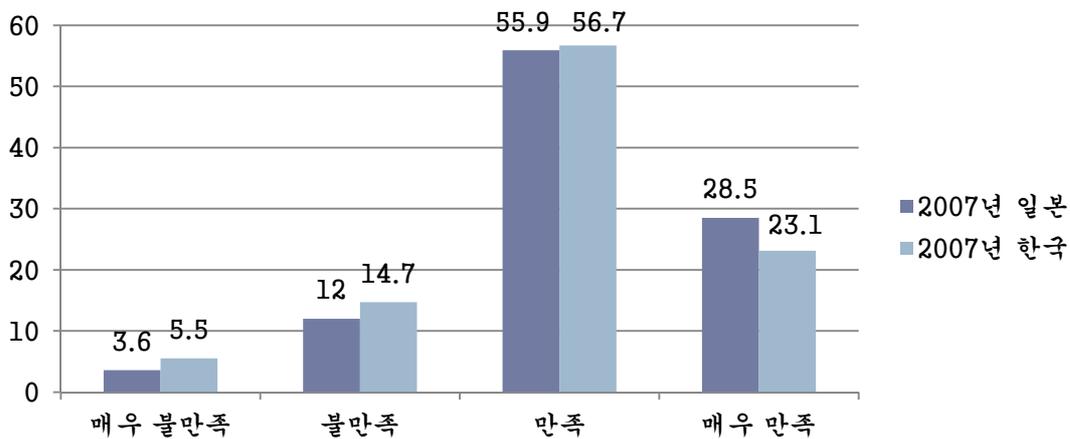


### 2011 년 한국 청소년의 교사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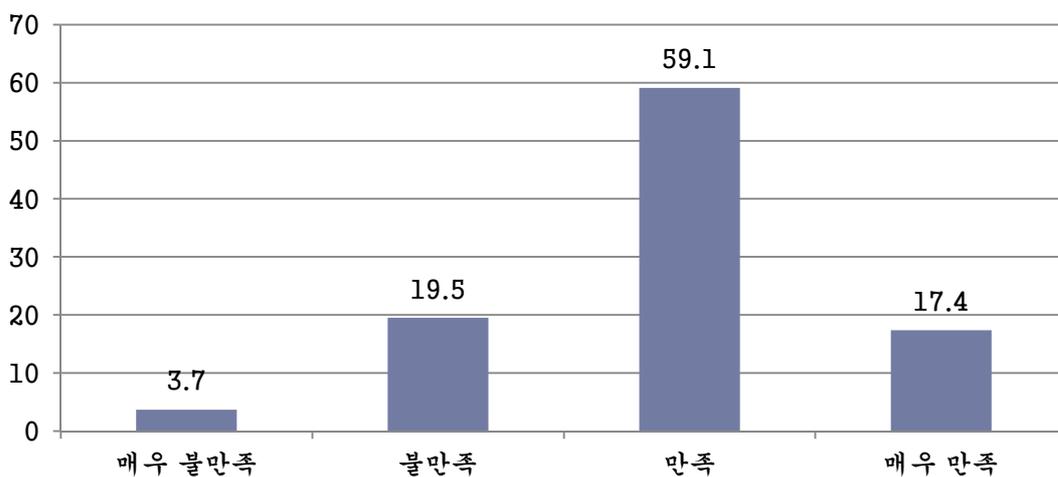


한국과 일본 청소년은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2007년 조사에서 생활 전반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한국은 23.1%로 일본의 28.5%보다 낮았다. 2011년 조사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경우 생활 전체에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17.4%로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 한·일 청소년의 생활전체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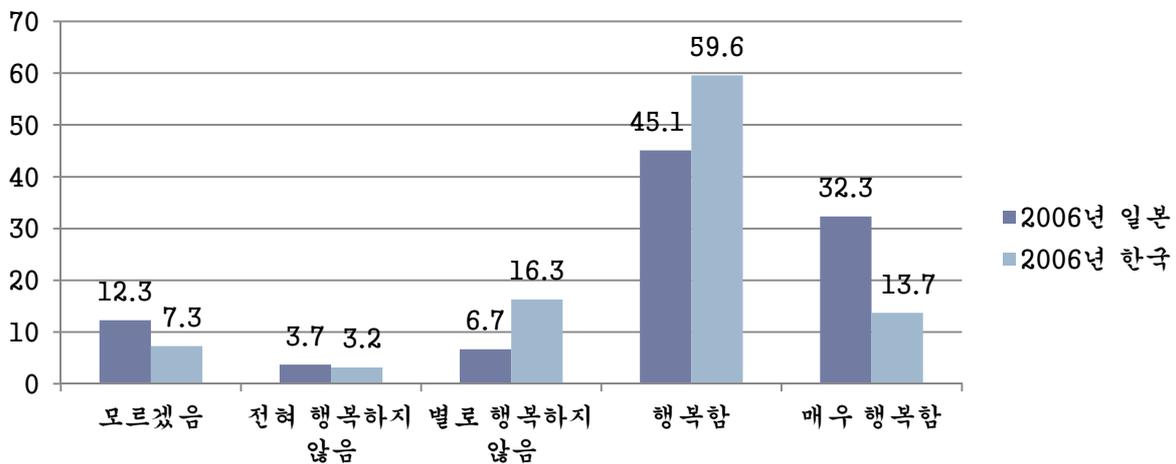
### 2011년 한국 청소년의 생활전체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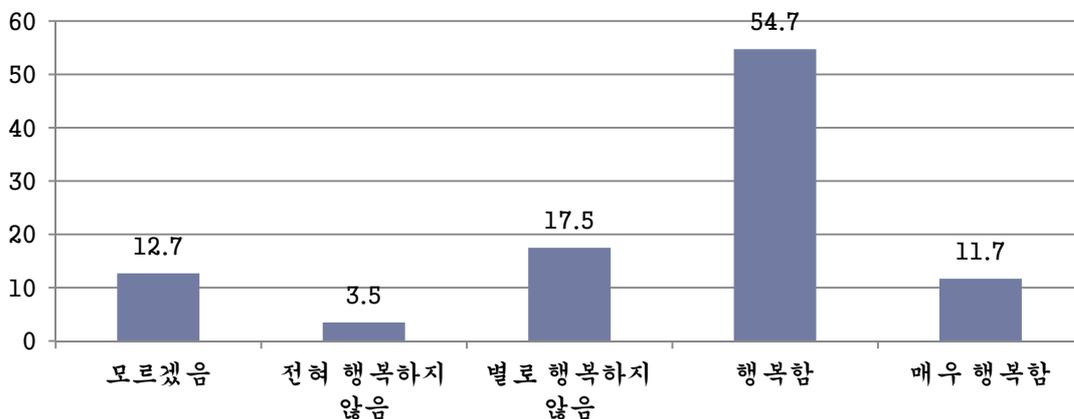
## 2. 주관적 행복감

한국과 일본 청소년은 ‘매우 행복하다’ 고 느끼는 비율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2007 년 조사에서 다양한 면에서 볼 때 ‘매우 행복하다’ 고 답한 청소년 비율의 경우 한국은 13.7%로, 일본의 32.3%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낮았다. 2011 년 조사에서도 ‘매우 행복하다’ 고 느끼는 한국 청소년 비율은 1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7 년 한·일 청소년의 행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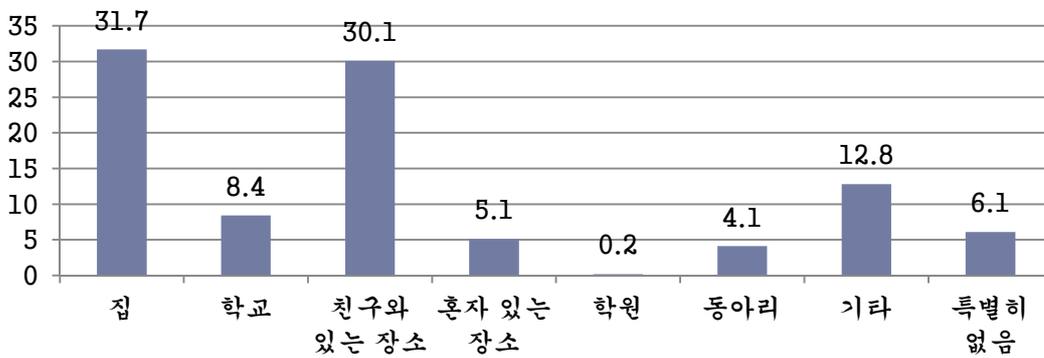
### 2011 년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



한국 청소년은 ‘가정’ 보다는 ‘친구와 함께 있는 장소’ 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 년 조사에서 일본 청소년은 행복을 느끼는 공간으로 집, 친구와 함께 있는 장소, 학교 순으로 꼽은 한편, 한국 청소년은 친구와 함께 있는 장소, 집, 학교 순으로 꼽았다. 행복을 느끼는 공간에 대한 한국 청소년의 순위는 2011 년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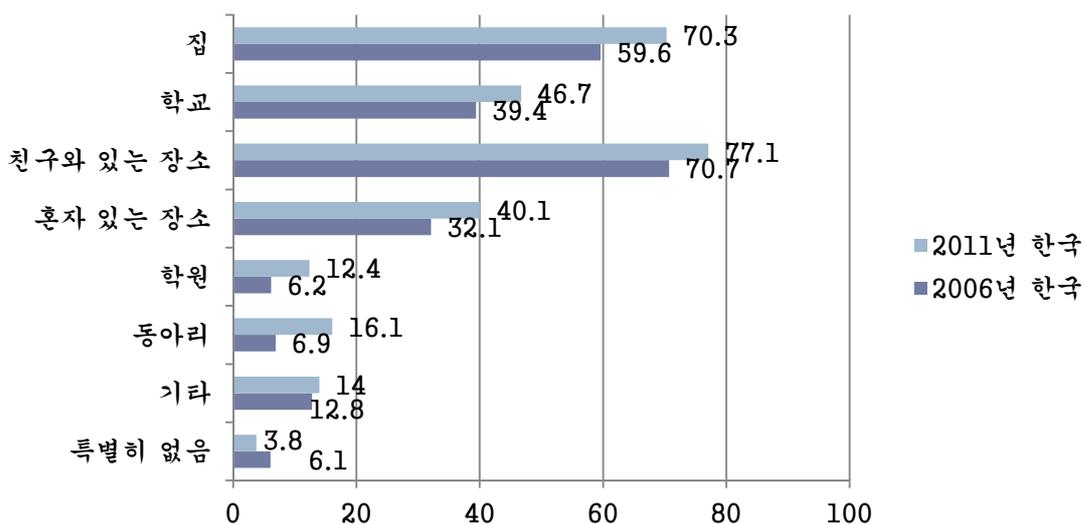
### 2006 년 일본 청소년: 행복을 느끼는 공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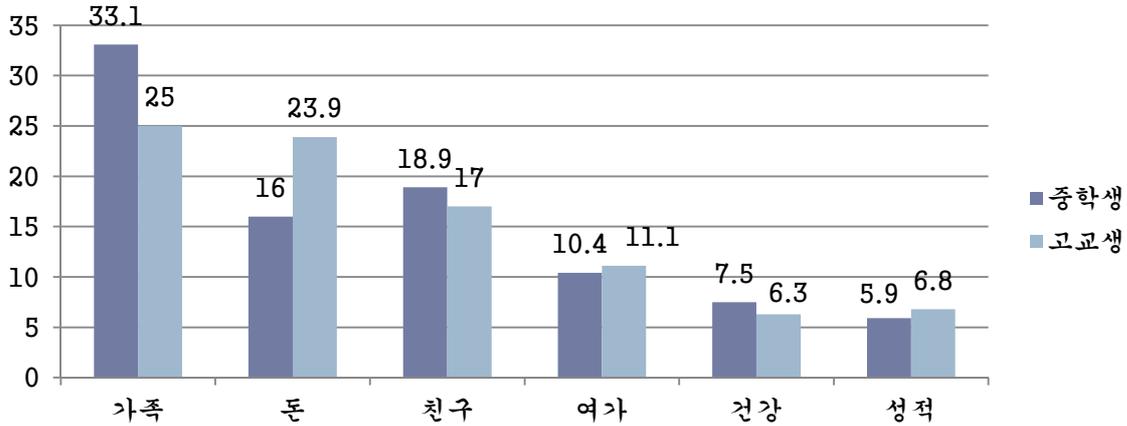
### 한국 청소년의 행복을 느끼는 공간

(복수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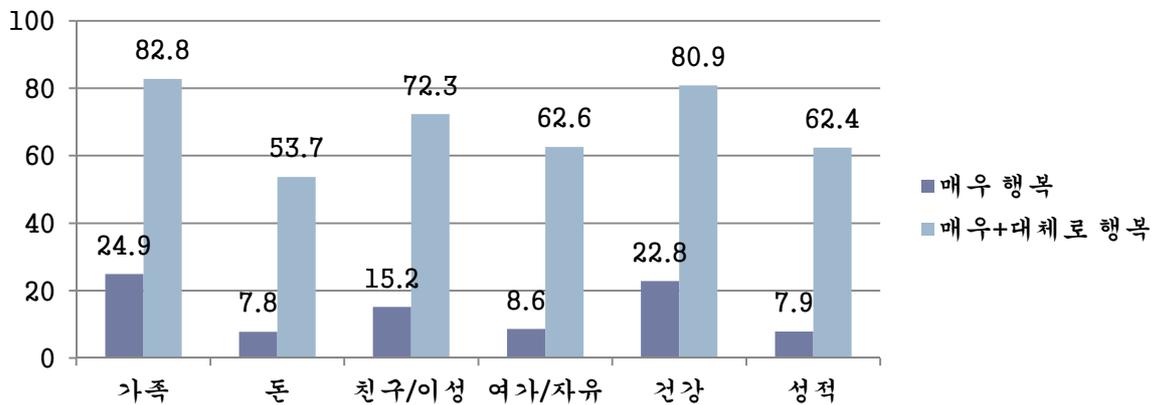
이 외에도 한국 청소년은 교급별로 다소 상이한 ‘행복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조사에서 중학생은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가족, 친구, 돈 순으로 지정한 한편, 고등학생은 가족, 돈, 친구 순으로 꼽았다. 1위와 2위인 가족과 돈의 비율이 중학생에서는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으나, 고등학생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 한국 청소년의 주요 행복 기준



행복기준과 주관적 행복감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 건강, 친구를 행복기준으로 지정한 청소년의 행복감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돈, 성적, 여가의 경우는 주관적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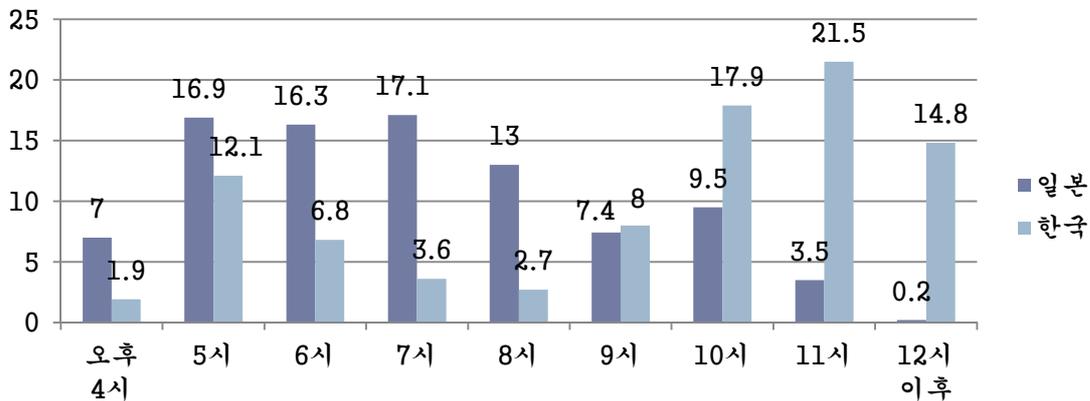
### 한국 청소년의 행복 기준과 주관적 행복감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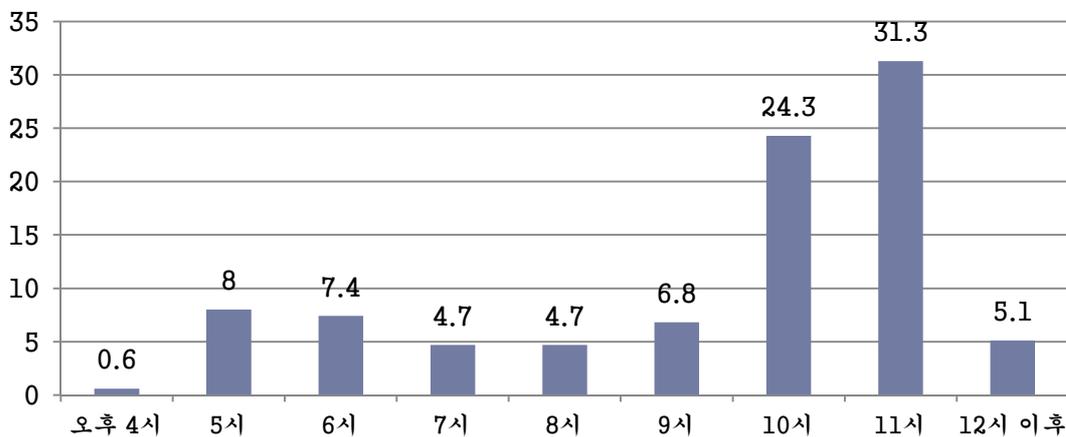
## IV. 귀가시간

한국과 일본 청소년은 귀가시간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다. 2006년 조사에서 한국 청소년의 귀가 시간은 오후 10시, 11시, 12시 이후에 집중된 한편, 일본 청소년은 오후 5시, 6시, 7시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귀가시간 차이는 2011년 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 2006년 한·일 고교생의 귀가 시간



### 2011년 한국 고교생의 귀가시간



# 제 5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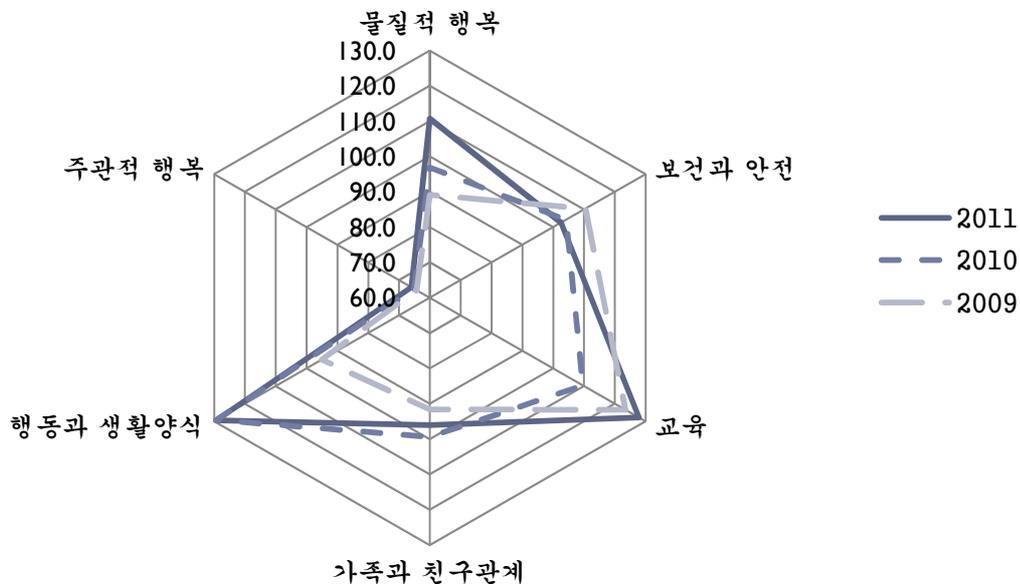
## 2009-2011

### 한국 행복지수 변화

유니세프 행복지수를 모델로 물질적 행복, 교육, 친구관계, 보건과 안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등 6 개 영역에서 측정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영역별로 상이한 변화를 보였다.

먼저, 어린이·청소년의 물질적 행복 지수는 2009년과 2010년에는 OECD 국가 평균(100)을 밑돌았으나, 2011년에는 110.7로 OECD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과 안전, 교육 영역 지수는 3년 연속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족과 친구관계 지수는 3년 연속 OECD 평균을 약간 밑돌았다. 주관적 행복지수는 3년 연속 60 점대로 꼴찌를 기록했다.

## 2009~2011년 행복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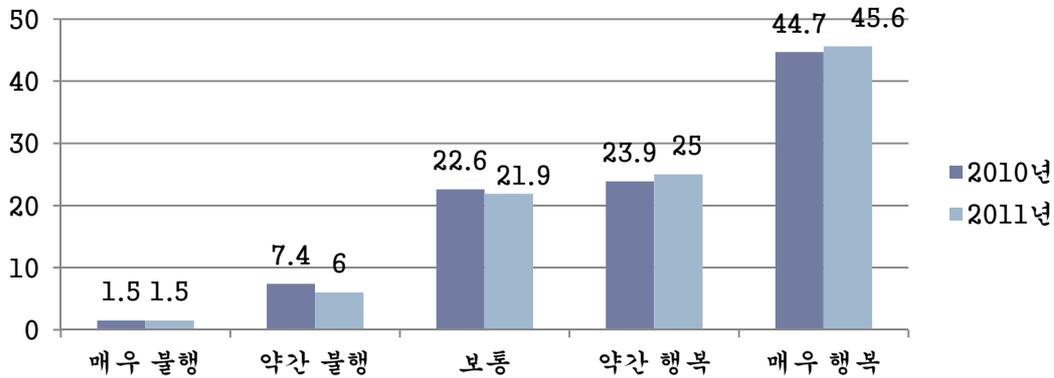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2009	89.1	110.5	123.4	91.6	95.1	64.3
2010	96.9	104.2	109.6	99.4	129.2	65.1
2011	110.7	102.6	127.8	96.1	129.3	6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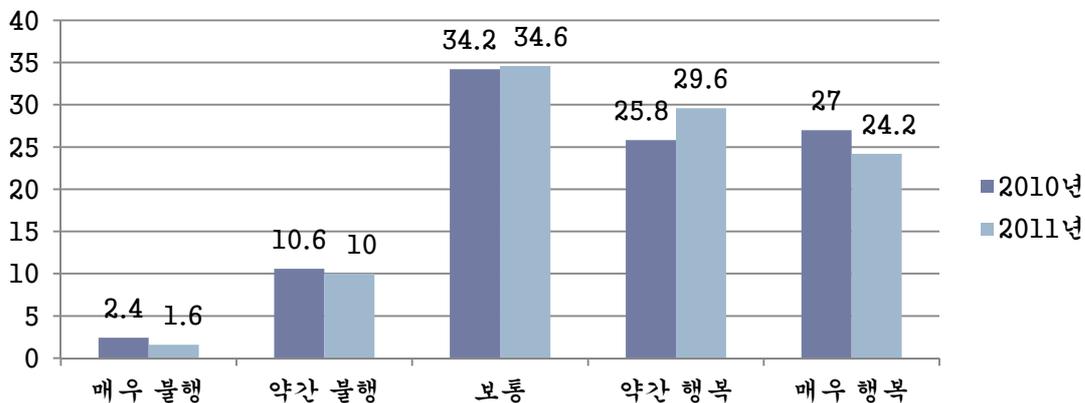
한국 어린이·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도가 매우 낮은 점은 다른 설문결과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친구들에 비해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매우 행복하다’ 고 답한 학생 비율이 전반적으로 50%를 크게 밑돌았다. 이 질문은 2010 년도부터 설문조사에 포함됐다.

어린이·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 년 조사에서는 친구들에 비해 ‘매우 행복하다’ 고 느끼는 비율이 초등학생은 44.7%에서 중학생 27%, 고등학생은 20.7%로 크게 감소했다. 2011 년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각각 45.6%, 24.2%, 17.1%를 나타냈다. 초등학생의 경우만 2010 년도에 비해 약간 올라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모두 약 3%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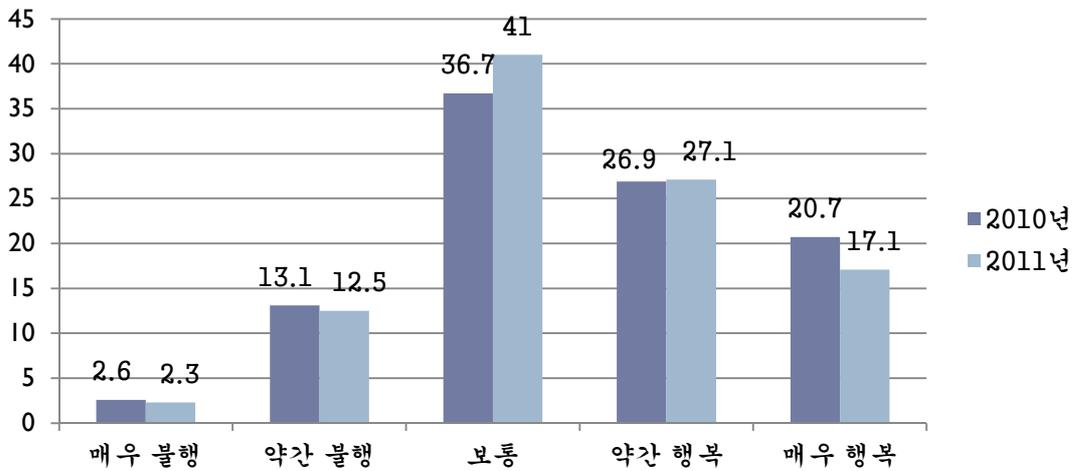
### 2010~2011 년 초등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 2010~2011 년 중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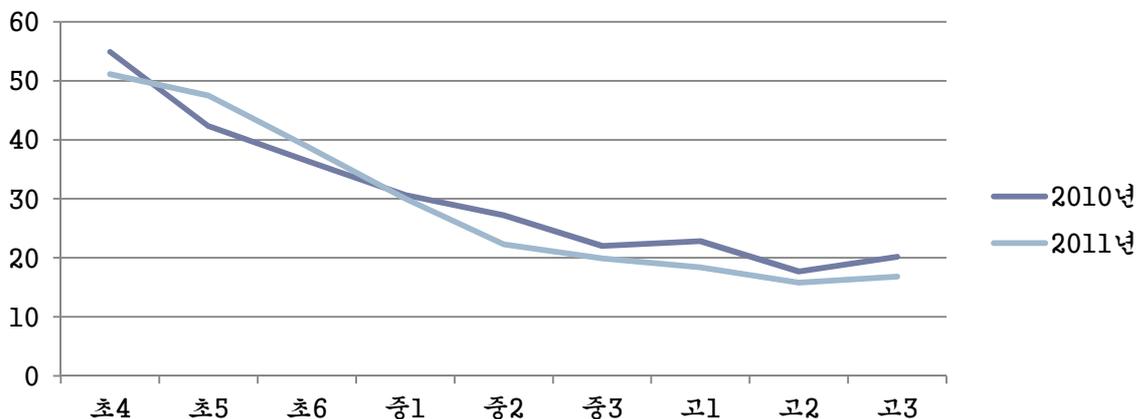


## 2010~2011년 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주변 친구들에 비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과 2011년 조사에서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0년 이 비율은 초등학교 4학년이 54.9%로 가장 높았고, 5학년 42.3%, 6학년 36.4%, 중학교 1학년 30.6%, 2학년 27.2%, 3학년 22%로 점점 하락했으며, 고등학교 1학년 22.8%, 2학년 17.7%, 3학년 20.2% 수준이었다. 2011년 조사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이 51.1%로 가장 높았고, 5학년 47.5%, 6학년 38.9%, 중학교 1학년 30%, 2학년 22.3%, 3학년 19.9%, 고등학교 1학년 18.4%, 2학년 15.8%, 3학년 16.8%를 기록했다.

## 2010~2011년 초·중·고 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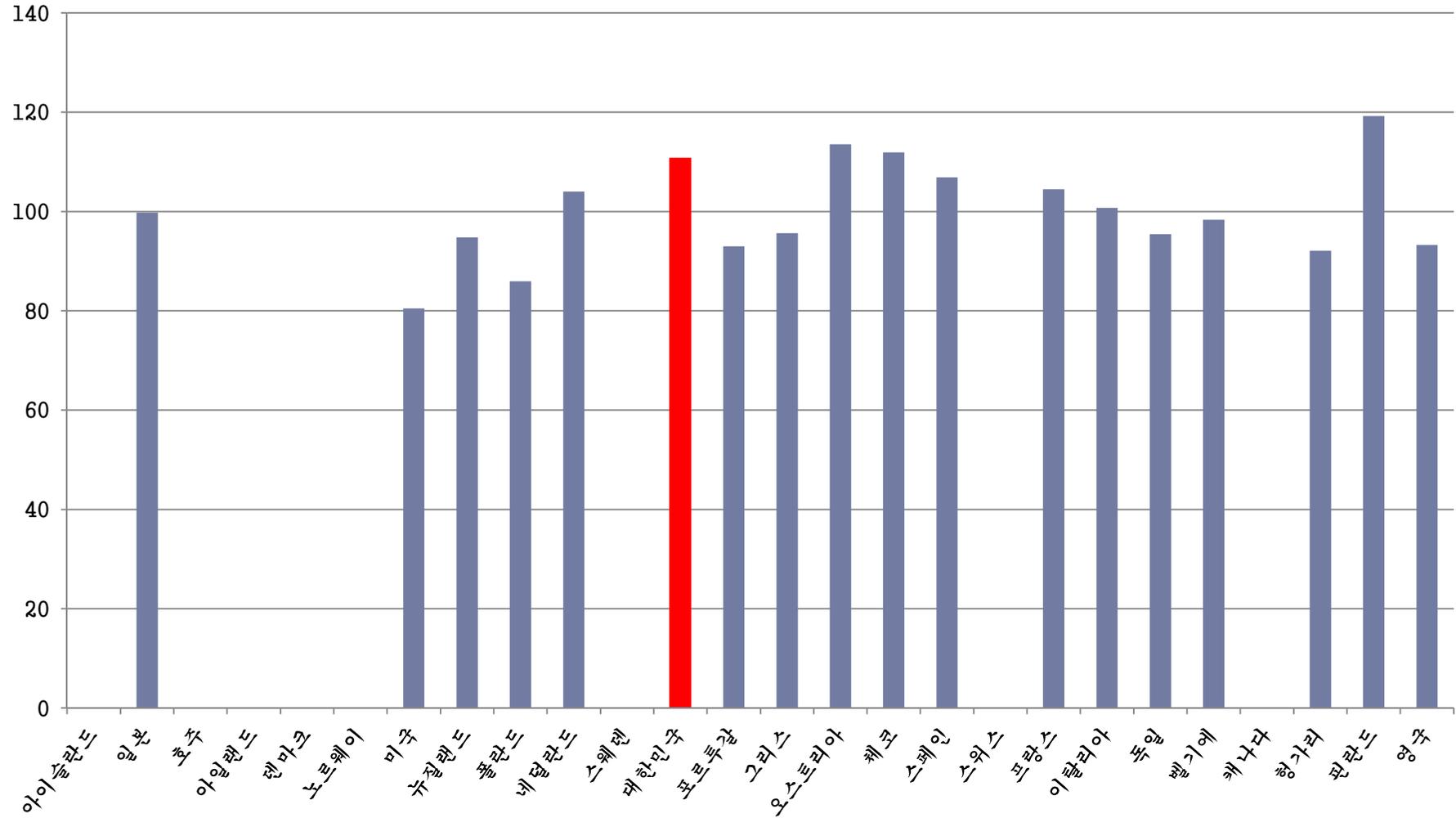


# 부록 1.

##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영역별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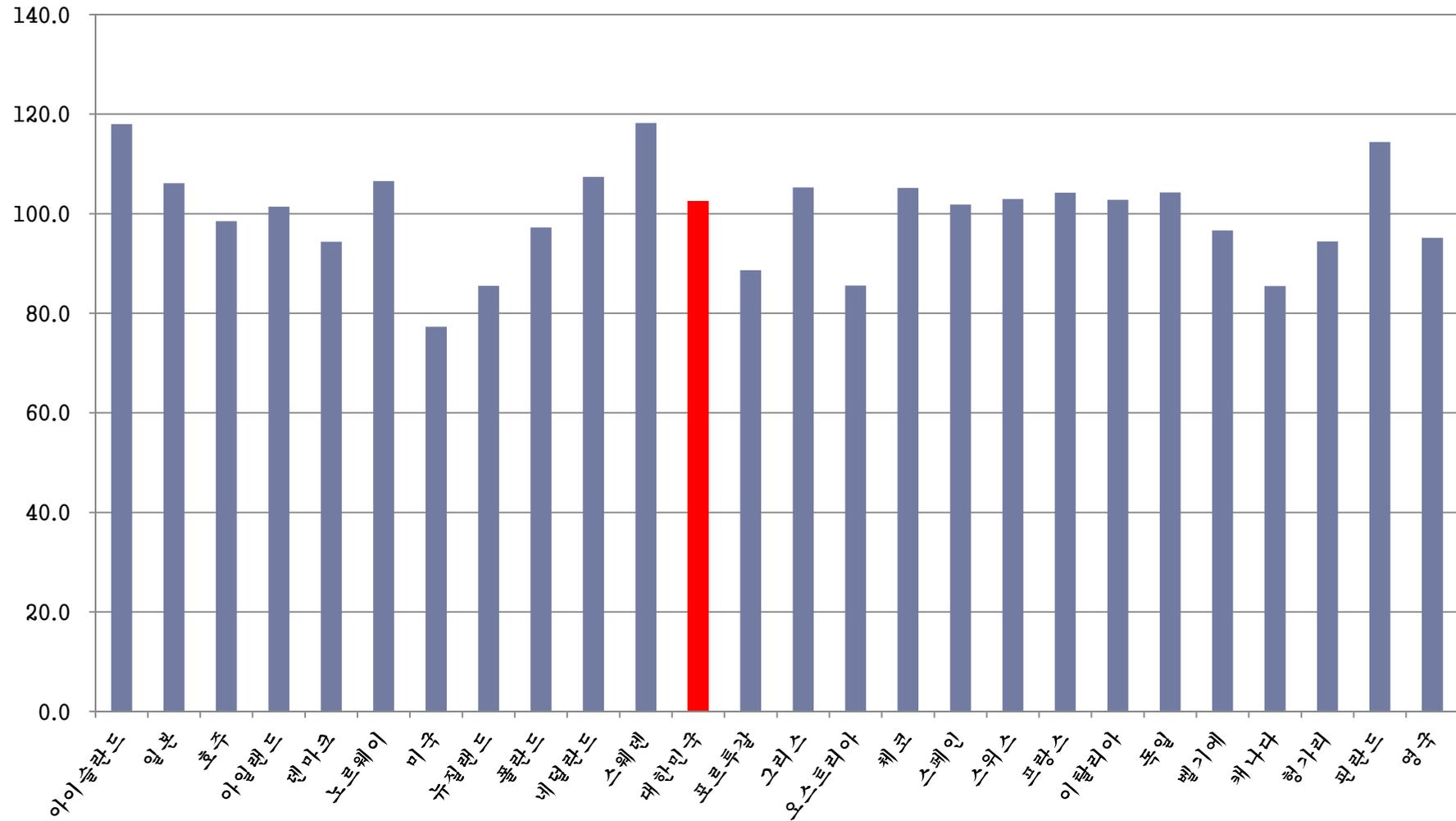


## 물질적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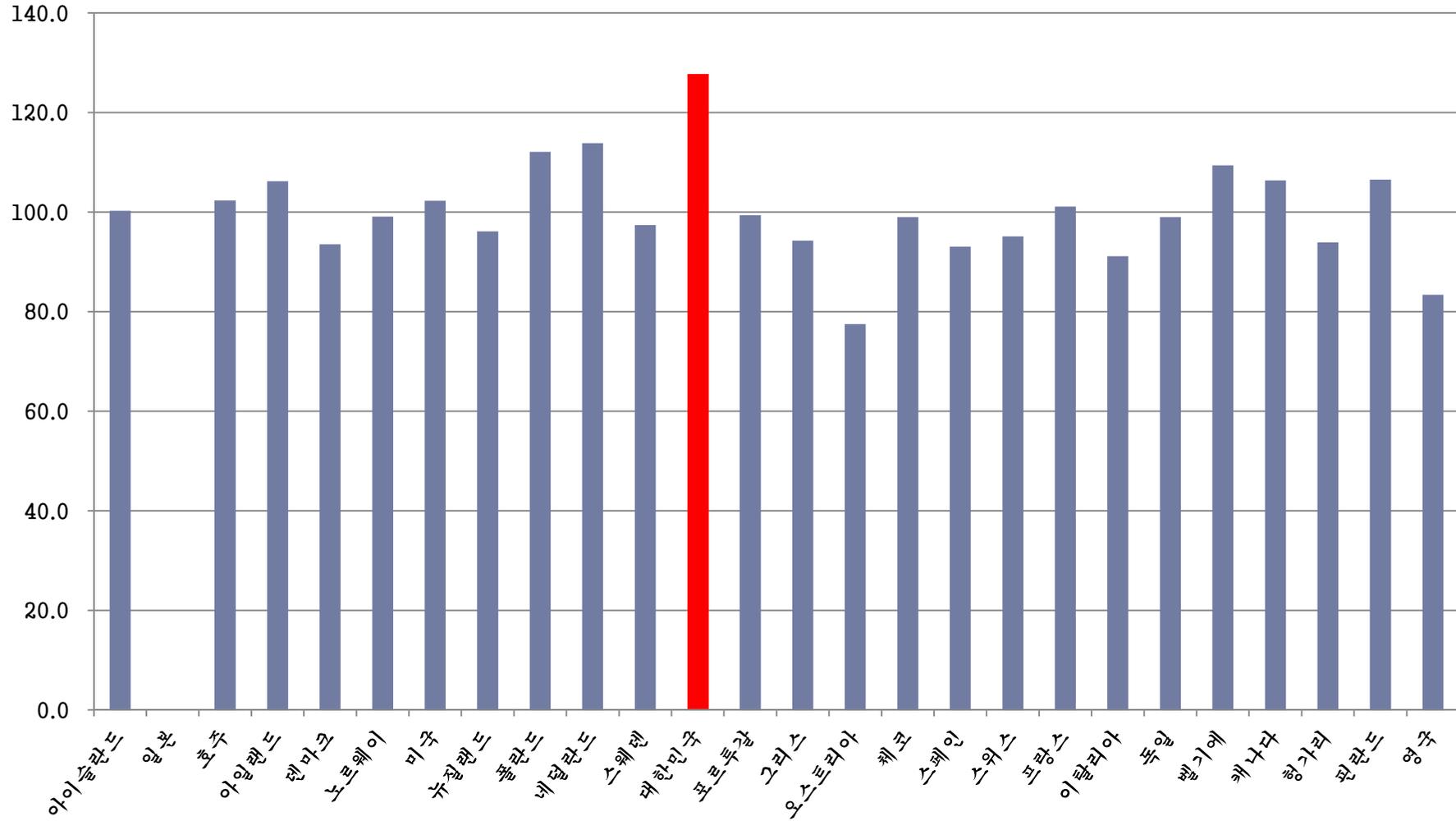
[물질적 행복]

## 보건과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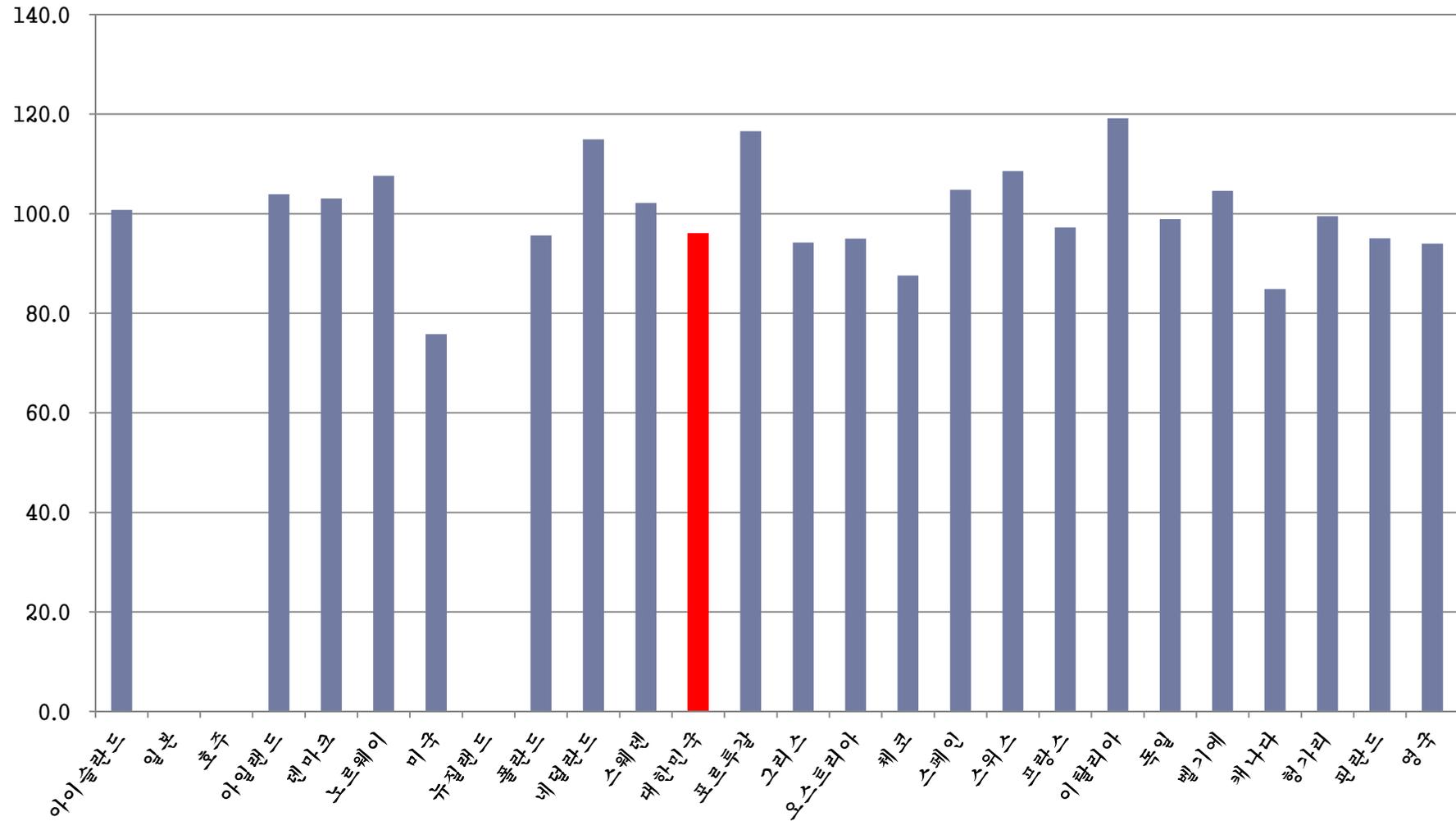
[보건과 안전]

#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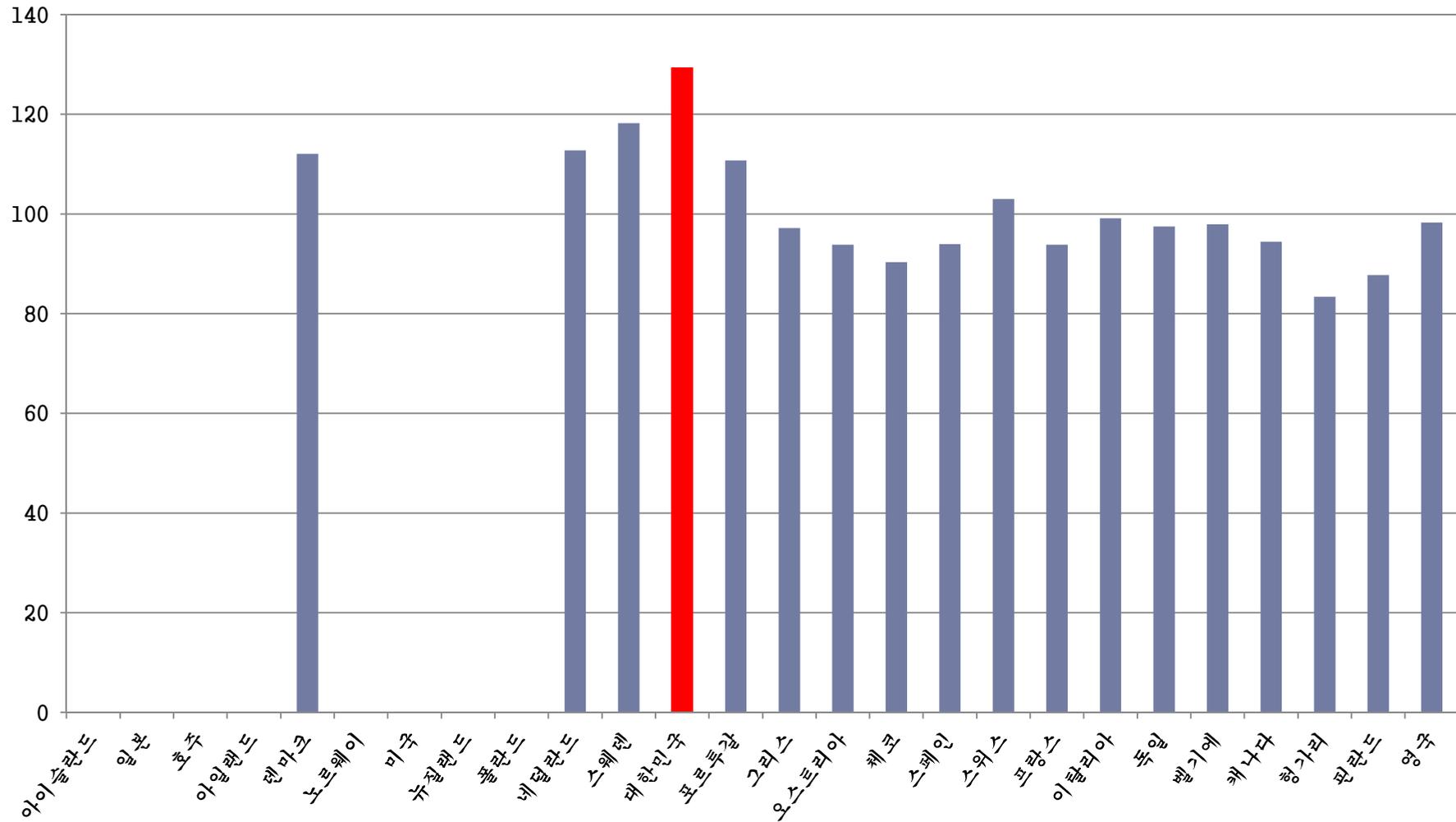
[교육]

## 가족과 친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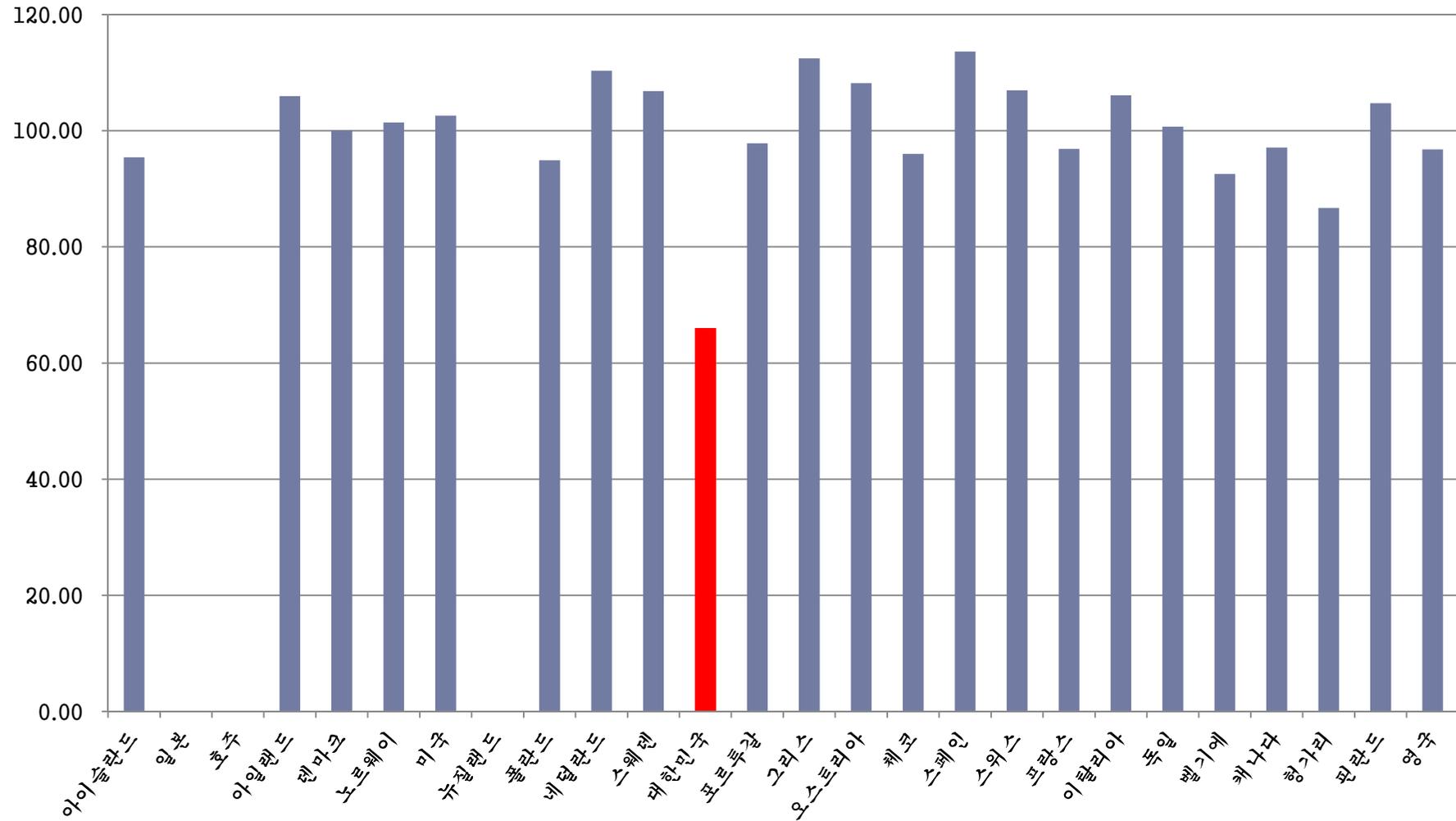
[가족과 친구관계]

## 행동과 생활양식



[행동과 생활양식]

## 주관적 행복



[주관적 행복]

# 부록 11.

## 지수도출 매뉴얼



한국과 OECD 다른 국가의 행복지수를 비교 연구하는 과정에서 각 영역의 구성요소와 지표는 다음과 같은 표준화 과정을 통해 얻어졌다. 먼저, 각 영역을 점수로 나타내기 위해 구성요소와 지표를 점수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산술평균을 얻는 과정에서 단위가 서로 다른 다양한 수치의 단순합산은 단위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 영역에서 학업성취 점수와 교육참여 아동의 비율을 직접 합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수 사이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모든 점수를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분포가 되도록 표준화하여 사용했다. 만약 점수가 70이라면 모든 국가의 평균치에서 약 3개의 표준편차만큼이나 낮은 점수이다. 즉, 개별지표들을 표준화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을 구해 지표를 계산하고, 각 지표의 점수를 더해 다시 산술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구성요소를 점수화 한 것이다. 그리고 각 구성요소의 점수를 더해 산술평균을 얻는 방식으로 각 영역의 점수를 구했다.

원자료 가운데 부정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진 것은 구성요소를 계산할 때 표준점수(Z-score)로 전환할 때, 부호를 바꿔주었다. 예를 들어 영아사망률, 저체중아 비율을 합쳐 어린이의 ‘영아 건강’ 을 측정하는 경우, 영아 사망률과 저체중아 비율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국가는 표준화 점수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얻도록 표준화 점수의 부호를 바꿔주었다. 그리고 측정질문, 지표, 구성요소, 그리고 영역에 이르는 점수를 얻는 과정에서 가중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한 가지 측정질문이 지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다른 측정질문보다 클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배제하고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했다.

한국어린이-청소년 행복연구(KCWI)의 각 지표별 원점수, 표준점수 그리고 구성요소 와 영역별 표준점수 <sup>3</sup>							
영역	구성요소	지표	조사대상	점수	OECD 평균	구성요소 별 한국 표준점수	영역별 한국 표준점수
물질적 행복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50%이하	0-17세	10.2%	11.6%	102.7	110.7
	결핍	교육여건	15세	1.8%	1.9%	107.2	
		문화적 결핍	19세 이하	5.1%	8.9%		
미 취업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19세 이하	3.4%	4.3%	104.3		
보건과 안전	영아건강	영아 사망률 (출산 1000명 당)	0-12개월	4.7%	3.9%	102.5	102.6
		저체중아 비율	2500g 이하	4.8%	6.5%		
	예방접종 (질병예방접종여부)	홍역	12-23개월	93%	93.1%	99.6	
		소아마비		95%	94.8%		
		DPT3		94%	94.7%		
사고사	아동 사고사 (10만명당)	19세 이하	22.4%	23.8	103.2		
교육	학업성취 (PISA 자료의 표준화 점수:평균 500)	읽기	15세	539	501.1	120.4	127.08
		수학		546	504.7		
		과학		538	509.3		
	교육참여	학업유지	15-19세	89%	84.7%	108.4	
고용으로의 전환	미숙련일자리 기대	15세	15.4%	28.7%	115.0		
가족과 친구 관계	가족구조	홀부모가정	11, 13, 15세	9.5%	14.2%	116.0	96.1
		의붓가정		2.2%	8.5%		
	부모관계	함께 식사하기	15세	53.2%	78.1%	75.2	
		함께 대화하기		41.9%	60.7%		
친구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11, 13, 15세	70.9%	68.2%	102.2		
행동과 생활양식	건강증진행위	아침식사	11, 13, 15세	83.5%	65.3%	134.0	129.3
		과일섭취	13, 15세	65.1%	37.7%		
		과체중 (BMI 25이상)	13, 15세	4.0%	13.4%		
		운동 (일 수 평균)	13, 15세	4.5	3.9		

<sup>3</sup> 생활과 행동양식영역에서 “폭력의 경험”은 한국에서 유니세프연구와 같은 지표화와 측정이 쉽지 않았으므로 제외되었다. 교육영역 중 15~19세 청소년의 교육, 고용, 훈련 상태에 대한 지표도 제외되었다. 2012년부터는 지수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을 권한다. 행동과 생활양식 영역에서 콘돔사용에 대한 질문은 한국 청소년의 성행위 경험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건강위험행위 <sup>4</sup>	흡연	11, 13, 15세	2.0%	15.8%	111.0	
		음주		12.2%	15.2%		
		마약		1.1%	13.6%		
		섹스	15세	0.6%	24.9%		
		임신과 출산	15-19세(여)	3.7%	12.7%		
<b>주관적 행복</b>	주관적 건강	주관적 불건강	11, 13, 15세	26.2%	14.1%	76.0	65.9
	학교생활	학교생활만족	11, 13, 15세	30.3%	26.9%	104.2	
	개인행복	삶의 만족 척도	11, 13, 15세	55.4%	85.4%	71.0	
		비소속감	15세	15.9%	6.8%		
		어울림		7.2%	9.3%		
		외로움		16.2%	7.4%		

<sup>4</sup> UNICEF의 원지표는 '지난 1주일간에 한하여 음주에 대한 여부' 인데 반해, 본 연구 설문지(KCWI)는 '지금까지 두 번 이상 음주경험' 을 물었기 때문에 한국의 비율이 과대측정 되었다.

# 부록 111. 설문지

